군대가 도시에 온 첫날

전남대학교, 시내버스 정거장/ 일요일 아침
버스를 기다리거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짜고짜 때리고 드는 군인들의 몽둥이질, 군홧발 질에 감히 대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숨죽인다.
사람들 표정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리둥절
사람을 저렇게 패도 되는 거야,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얼굴들

카메라는 폭력 행위보다, 공수부대원들이 지배자로서의 당당함, 자신만만함을 보여준다.
보란 듯이 때리면서 놀라 위축되는 눈길들을 즐기는 태도
법 집행하는 공권력이라는 자부심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어
나라는 우리 같은 강한 사람이 지키는 것이라는 자부심
주둥아리만 가지고 노는 새끼들

1 버스 정거장 /출근길

3명이 한 조가 되어 정거장에 서 있는 공수대원들
허리는 꼿꼿하고, 잘 빠진 몸매, 당당하게 벌어진 어깨, 날카로운 눈빛, 근육질 힘이 물씬 풍기는 공수대원이 몽둥이를 들고 버스 위에 올라온다.
가방을 든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골라낸다.

하사관 1 " 너! 너! 너! 내려 "
몽둥이로 두들겨 패며 무릎 꿇리고 고개를 숙이게 한다.

2 경찰서 기동대 내무반

동료들이 쉬고 있는데 뛰어 들어온다
기동대 1 " 난~리 났다! 지금 시내에 공수부대가 쫙~ 깔렸다! 야유회 끝나고 해장술 한 잔 하고 있는데 공수부대 놈들이 젊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두들기더라. 나는 군복을 입어서 괜찮겠지했다가 나도 맞았네! 봐라! "

3 전남대학교 정문/ 오전

10명 공수대원이 한 줄로 막아서 있다.
고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다가 군인들을 보고 들어가도 되나 망설이고 있다.

하사관 2 " 너 이리와!"

학생 다가가자 다짜고짜 때리고 밟으면서 무릎 꿇린다.

휴교령이 내리면 학교에서 모이자는 약속을 지키러 온 학생들이 모여서 멀찍이서 어슬렁거리자,
공수대원 30명으로 늘어난다.

학생 1 〃 우리 학교에 왜! 못 들어가게 하요? 〃
중령 5 " 학교에 휴교령이 내렸으니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가정학습에 임하라.
돌아가지 않으면 서로 좋지 못하다."

학생들 " 계엄확대 중지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50명이 스크럼 짜고 달린다.
학생들 달라붙는다.
일부 학생 돌 던진다.
군인은 돌 던지는 학생 본다.

중령 5 〃 해산하라! 〃 (메가폰)
학생들 〃 계엄! 해제! 〃 (앉아서 더 힘있게)
중령 5 〃 만약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다.〃
학생들 〃 계엄! 해제! 〃 (더 크게!)
중령 5 〃 돌격 앞으로! 〃 (최루탄을 던지며)

숫자만 믿고 있던 학생들 군인들에게 몽둥이로 맞으면서 머리가 박이 깨지듯 깨져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다.
학생들이 달아난 골목, 집까지 추격하여 때려잡는다.
학생 아닌 젊은이들도 똑같이 당한다.

학생들 〃 도청으로 가자! 〃

학생들 피를 보고 흥분하여 외치지만,
계엄군의 폭행을 본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 사람은
저건 뭐야?
왜? 저렇게 소리지르지!
무슨 일 낫나? 하는 얼굴로 버스에서 구경하는 승객들

4 전남대학교 내 강의실

학교 여기저기서 잡혀 온 학생들 50명을 감시하던 하사관 1
새로 잡혀 온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앞사람 허리를 붙들고 줄줄이 들어온다.

하사관 3 〃 너 어디서 잡혔어! 〃
학생 1 〃 도서관에 왔다가 잡혔습니다 〃
학생들 3명을 풀어준다.
학생들 머리에 피가 엉겨 붙어 있다.
하사관 3 〃 또 잡혀 오지 마라! 〃

5 시외버스 터미널 광장

경찰이 대기 중이다.
달려온 학생들을 준비된 경찰들이 실력으로 맞이한다.

학생 200명 " 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이 물러나라! "
최루탄에 흩어지는 학생들, 경찰들 골목까지 쫓아와서 학생들 때리고 잡아간다.

6 금남로

도청광장에도 경찰이 준비되어 있다.
금남로에서 다시 모여 연좌 농성하는 학생 200명
인도에는 구경하는 시민들 처음 보는 데모가 신기하다.

"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좋다! "
" 김대중이 석방하라! 좋다! 좋다! "
" 계엄 해제! "

경찰 기동대 대열을 맞추어 당당하게 척척 다가온다,
학생 대열 뒤에서도 경찰 기동대가 도로를 막고 척척 다가온다.
인도에는 시민이 가득 구경한다
경찰이 3m 가까이에서 멈추더니 최루탄이 날아온다.
학생들 그제서야 달아난다.
서로 달아나려고 엎어진 위에 또 엎어지면서 경찰에 맞고 잡혀간다.

7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앞/ 점심

도청 근처
전경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다.
학생들이 소리 없이 다가가 돌을 던지며 달려든다

학생들 " 와! "
전경 30명 놀라 달아난다.
학생들 페퍼포그 차를 뒤집어 엎어놓고 불을 지른다.
소방차 달려온다.

8 도청에서 1킬로 떨어진 지산동 농장다리 / 오후

학생들이 파출소에 들어가 최규하 대통령 사진을 떼어내 깨트리고, 파출소 집기를 도로에 끄집어내어 불 지르고, 경찰 오토바이도 불 지른다.
태극기는 들고나와 휘두른다.

파출소 밖에 1000여 명이 몰려다닌다.

마침 담양군에서 긴급 차출된 전투경찰 차가 다가온다.
사이드카 3대의 에스코트를 받고 오다가 군중이 돌을 던지자 달아난다.
학생들이 버스에 돌 던지고, 삥 둘러싸고, 타이어 바람을 빼고, 철망을 떼어내고 차를 흔들어댄다.

학생들 " 불 지를라니까 얼른 내려오쇼! "

30~ 40대의 나이 먹은 경찰들 내려오더니 헬멧, 몽둥이, 군화, 허리띠 모두 빼앗기고 손을 든다.
버스는 불타고
학생들은 경찰 모자를 쓰고 몽둥이를 들고서 전리품으로 치장한다.

학생들 " 잡혀간 학생하고 바꿉시다 "

학생들이 경찰 30명을 삥 둘러싸고 잡혀간 학생들과 맞바꾸자고 도청으로 간다.

9 노동청 앞

노동청 앞에서 경찰이 개스 마스크를 쓰고 도로를 막고 있다.
길 위에는 보도블록 조각과 최루탄 통등 한바탕 시위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학생들 포로로 잡은 경찰을 골목에다 두고 학생 대표들 셋이 경찰들에게 가서 협상한다.

학생 대표 " 인질 30명을 잡아간 학생하고 교환합시다 "
전경 중대장 1 " 위에서 명령을 받아야 하니 잠깐 기다려 달라 "

학생들 긴장을 풀고 기다린다

10. 도로

공수부대가 트럭에서 내리더니 대열을 이루는 것을 보고 있는 학생들, 몽둥이를 들고 돌격해오자 그제서야 놀라서 서로 달아나려다 엎어지고 엎어진 위에 다시 엎어지면서 달아난다.
학생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경찰도 덩달아 도망간다.
경찰이 앞에서 도망가고 학생이 뒤쫓고 군인들이 학생을 쫓아가면서 때리는 모양새다.
잡힌 사람은 두들겨 맞고 쓰러지고 쓰러진 사람을 군인 두 사람이 트럭 위로 던져 올리면 트럭 위에서 군인이 밟아준다.

11 금남로 5가 /오후

트럭 11대가 줄줄이 서 있다.
트럭마다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 젊은이가 실려 있다.
손이 뒤로 묶인 채, 남자 두 사람 발가벗겨져 있다.
기다란 머리를 내려뜨린 여자, 블라우스는 피투성이에 갈기갈기 찢어진 채, 아랫도리는 벗겨진 채, 얼굴을

가리고 흐느낀다.
여자는 두 다리를 오므리고 있다.
발에 걸린 팬티, 치마에는 피가 묻어 있고 찢어져 있다.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병원 사람들

병원장 " 아가씨한테 옷 좀 가져다주소 "
사무장. 간호원 " 아가씨가! " (손짓으로 옷을 전해주려고)
하사관 4 " 넌 뭐야! " (사무장에게 몽둥이를 날린다.)
시민들 " 짐승 같은 놈들! "
여럿이서 비난한다
혼자 있으면서 비난을 들으니 창피하다.

하사관 4 " 야! 얼른 입고 꺼져! "

12 병원

중위 3명, 소령 1명이 박찬희 챔피언 방어전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
소령 1 옆에 무전기에서 간간이 작전 상황이 나온다.
T.V 에 밤 9시부터 통행을 금지한다는 자막이 비친다.

소령 1 " 박찬희 다리가 무겁네! "
장교, 하사관 " 와 그렇지! 어퍼컷 "

간호사가 먹고 마실 것을 가져다준다.

병원장 " 식사는 하셨습니까? "
소령 1 " 아직. "
병원장 " 그대로 두면 위험해 보이는 중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

13 금남로

여동생이 집에 안 돌아오는 오빠를 찾다가 트럭에 실린 오빠를 발견한다.

여동생 " 오빠가 차에 실려 있어요. 오빠와 **둘이 사는고아**인데 오빠는 학생도 아니고 데모도 하지 않았어요 "
하사관 여 " 너 이년도 대학생이지! "
여동생을 잡으려 한다.
주변의 시민들이 젊은이들이 맞고 잡혀가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리고 있다가 보고 잡지 마라!고 항의한다.

여동생 소령에게 간다.
소령이 여동생과 같이 온다.
소령 " 네가 박형수냐? "

소령 " 죄가 없는 애니 데려와라 ! "
하사관 여 " 일어나 ! "
일어나지 못하는 오빠를 때린다.
소령 " 데려와! "

오빠 일어서지 못하자 하사관 부가 부축하고 소령이 업는다.

병원 사무장이 간호사와 함께 빵, 주먹밥, 우유를 군인들 100명에게 나누어주고 다닌다.
트럭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준다.
다 죽어가는 듯한 사람들 22명이 트럭에서 병원으로 들어간다.

14 시외버스 터미널 밖

택시 타는 곳
택시에 탄 사람을 끌어내리고 때린다.
둘이 내리자 때려서 무릎 꿇린다.
안 내리고 있는 둘을 보고 개머리판으로 찍는다

하사관 5 " 내려! "
택시 기사 1 " 손님은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이요! "
하사관 5 " 이 자식이 넌 가만히 있어! "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찍는다.
운전사 코피를 쏟으며 정신없이 달아난다.

사람들 보면서도 말을 못 한다.

15 버스터미널 안

공수대원들이 터미널에 들어오면서 몽둥이로 젊은이들을 마구 때린다.
터미널에 온 시민들이 보라고 사정없이 청년들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다
버스 운전사들 놀라면서 사람들 타자마자 차를 출발시킨다.
승객들 차창 밖으로 젊은이들이 피 터지게 맞는 것을 본다.

16. 시장

상인 1 " 난리 났네! "
상인 2 " 난리 났어! "
상인 3 " 난리 났어! (전화)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잉! 군인들이 학생들 다 쥑인다! 나오지 마라잉! 나도 일찍 들어갈란다."

17 제일고등학교

학교 담이 쇠막대로 되어있어 학교 안과 밖에 다 보인다.
교문 위에는 조선대 의대 동문 체육대회 프랑카드가 걸려있다.
100명 학생이 우르르 도망쳐 들어온다.

도망한 1백여 명의 학생들이 담에 기대어 서서 밖을 보고 있다.
대학생 몇 명이 계속 도망가는 모습이 보인다.
할머니가 경영하는 문방구점이 교문 앞에 자리하고 있다.
그 곳으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과 남학생 2명이 도망쳐 숨는다..

할머니는 숫자가 써진 양철문을 다 닫고 들어가 버린다.
공수들은 끝까지 쫓아와 총 개머리판으로 문을 차고 군홧발로 차면서 악을 쓴다.

하사관 할 " 빨리 대학생을 내놔라! "
너무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소리를 지르며 문을 부수려고 날뛰자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안에 있던 학생 2명을 문밖으로 내보낸다.

공수들은 남학생을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여학생에게는 뺨을 이쪽저쪽 돌아가며 계속 때린다. 둘은 실신한 듯 쓰러진다.
길바닥에 쓰러진 두 사람은 공수 3, 4명에게 목덜미를 잡힌 채 그대로 질질 끌려간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야유하며 흥분하여 학생탑 주위에 있는 차돌 같은 돌을 주워서 공수들을 향해 던진다.

이때 돌을 던진다는 것을 알아차린 공수들이 뒤를 돌아보더니 학교 안으로 쫓아오려고 한다.
그러자 제일고 교장 선생님이 교문 밖으로 나가서 말린다.
한참 동안 교장 선생님과 공수들간에 말이 오가더니 공수들이 돌아간다.

후문쪽 이발관이 있는 쪽에서 공수들이 담을 넘어 들어온다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온다.
학생은 얼른 교실에 들어가 교탁 밑에 숨거나 청소함 속으로 숨는 등 모두들 제각기 숨는다.

제일고등학교 내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방통고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교탁 밑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는데 방통고 쪽에서 두들겨 맞는 소리가 살벌하게 들려온다. 방통고생들은 대개가 머리를 자유스럽게 길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대학생들처럼 보인다.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하던 사람들 혼비백산 흩어진다.
후문쪽 이발관 앞 도로에는 젊은 여자 한 명이 블라우스가 찢겨 맨살이 드러난 채 차도에 죽은 듯 쓰러져 있다. 50명 사람이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른다.

18 서방 삼거리

당구장
건달 선배가 비상을 걸어 동생들이 모여 있다.
줄지어 선 동생 건달들 뺨을 한 대씩 때린다.

선배 건달 〃 내 조카가 공수부대 칼에 당했다 느그들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느그들도 건달이냐? 저기 봐라. 저놈들이 저렇게 다니는데 그냥 두냐! "

칼로 손을 찍는다.
눈에서 분한 빛을 보이는 동생들

19. 시장 관사

시장 빗발치는 전화를 받는다.

시민 1 ″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 놈들은 뭣 허고 자빠졌냐? ″
시민 2 ″ 야! 이놈들아! 인민공화국 때도 이러지는 안 했어야, 사람을 왜 그렇게 뚜드려 패서 죽인다냐! 시장은 뭣 허고 있냐? 빨리 나와서 막아주지~ 말려주지! ″

20 금남로 /저녁

다니는 차들이 없고, 군인이 탄 트럭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차들도 다니지 않는다
군데군데 모여서 수군대는 청년들 트럭이 오면 긴장한다.

청년들 ″ 박찬희 져부렀어! ″

21 광주 비행장

4대의 수송기에 타고 있는 258명 군인. 중령 1, 여단장, 여단 참모
여단장 " 7여단 2개 대대가 고전하고 있어 지원하러 간다. 서울과는 다르게 좋지 않다. 부마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고, 용공 분자가 합세해 상황이 악화됐다 "

22. 주택

대학가 주민 대 (전화) ″ 시방 여그는 군인들이 집집마다 학생을 개잡듯 때려 잡아간다. 느그 애기도 당장 피난 보내라! ″

군대가 도시에 온 둘째 날

23 광주역 /00:50

698명 공수부대 새로 막 도착한 부대들.
병력이 트럭을 타고 31사단으로 이동한다.
다시 조선대학교로 이동한다.

24 금남로 /오전 10시

시민들은 인도에 모여서 군인들 하는 양을 보고 있다.
3~4천명 군중 무슨 일이 일어날것인지 궁금해한다.

경찰 ″ 집으로 돌아가세요 ! ″

최루탄이 터지고 돌이 날라 다닌다.

25 시내 충장 파출소 / 낮

파출소를 지키던 10명의 공수가 200여 명의 군중이 던지는 돌멩이, 화염병에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절룩거린다.

지대장 1 " 대대장님! 충장 파출소! 9지대! 군중들에게 포위되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 (무전)

사이렌을 울리며 중령 1 지프가 나타나고, 사이렌 소리를 들은 군중은 흩어진다.
금남로 4가 중앙교회 앞에서 시위대들과 공수부대가 대치하고 있다.
시민들이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 공수부대는 착검을 한 채로 시민들을 쫓아가는, 밀고밀리는 공방전이다.

공수부대는 닥치는 대로 시민들을 두들겨 패서 끌고 간다
충장로 쪽에서는 청년들을 '몰이'해서 잡아간다

26 YWCA

신용협동조합 사무실로 쫓기던 청년들 10명 가량이 뛰어 들어와서 곧바로 셔터를 내리는데 뒤쫓아오던 공수대들이 다시 셔터를 들어 올리고 들어온다.
학생 3명을 직원처럼 가장해서 자리에 앉혀놓지만 학생인 것이 발각되어 무자비하게 구타당하며 끌려나간다.
학생들이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던 양서협동조합(YWCA 건물의 1층은 신협이었고, 2층은 양서협동조합이었음)의 시민 황이 공수부대에게 항의한다.

시민 황 " 이런 게 내 조국이야? 왜 때려? "
하사관 " 겁대가리가 없네! "
곤봉으로 상당히 두들겨 맞는다.
YWCA 건물에서 청년을 잡아서 거리에서 때리려고 한다.
이 모습을 건너편 공무원 고시학원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보고 있다.

시민 영 " 청년은 학생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요 "
공무원고시학원생들 " 야! 그러지 마라 "

공수부대 시민 황을 놔두고 맞은 편 고시학원으로 달려간다.

27 YWCA 과 맞은편 공무원 고시학원 /오전

군인들 몇이 학원으로 들어가서 수업 중인 학원생들을 때리고 밖으로 나가게 한다.
계단에 군인이 서 있으면서 내려가는 학원생을 두들겨 팬다.
굴러 넘어지면서 1층으로 내몰린다.
군인 30명이 학원 밖에서 셔터 문을 낮게 내린 채 학원생들이 기어 나오게 해 놓고 마구 때린다.
건너편 YWCA 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

시민 용 " 총이 있다면 모조리 쏴버리겠다! "

학생들이 옷이 벗겨진 채 꿇어앉아 있다.
작전 과장 총경이 피 흘리는 학원생을 일으켜 세워 경찰 봉고차에 태워 보낸다.
이것을 본 대위 몽둥이로 작전 과장 무릎을 때린다.

대위 1 " 잡아놓은 놈들 빼돌리거나 피신시키면 너희도 똑같은 놈이다! "

ABC 카메라 기자 카메라 들이대자, 대위 1 카메라 앞을 가로막는다.

데모 진압복 입은 경찰들이 금남로로 이어지는 도로 입구를 막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기웃기웃 무슨 일인가! 하고 학생들을 때리는 모습을 구경한다.

전경 중대장 1 " 제발 구경하지 말고 얼른 돌아가쇼! 군인한테 걸리면 죽소! 학생 아니라고 해도 소용 없은께 보지 말고 가쇼! " (사정한다.)

28 충장로 제일극장 앞

농인 셋이서 걸어간다.
공수부대가 농인 1을 때린다.
농인 2, 3 달아나서 골목에서 본다.

농인 1 (수화로) " 말 못 하는 농인입니다. 살려 주세요 "
하사관 6 " 이 자식! 병신 흉내를 내네 "

수화하는 손을 더 때리고 질질 끌고 가 장갑차 속으로 던진다.

29 학생회관 부근

도청 근처에서 대학생 2, 3명이 공수부대원들에게 쫓겨 도망간다.
대학생들은 얼마 가지 못해 공수부대에게 그만 붙잡혀 곤봉으로 두들겨 맞는다

농인 1 엄마 " 이 애는 우리 식당 종업원인데 왜 이러시요, 놔주시오 "
하사관 개 " 개같은 년아, 저리 가라 "
총 개머리판으로 농인 1 엄마 가슴을 친다.

농인 1 엄마 " 제발 우리 새끼들 살려주시오 "
더욱 더 손을 놓지 않고 사정한다.
길을 가다가 승강이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아줌마 한 분이 안면이 없는데도 다가온다

아줌마 " 이 사람들은 이 집 종업원이구만. 풀어주시오 "
사정하자 하사관들 귀찮다
하사관 7 " 놔주고 가자! "

공수들의 손아귀로부터 가까스로 구해 낸 그 학생 둘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 동안에도 많은 학생들이 도청 앞에서 두들겨 맞고 있다.

30 미도장 호텔/오전

가톨릭센터 뒤
지배인이 호텔 옥상에서 사거리에서 학생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본다.
호텔 사장과 친구가 호텔 입구에서 외치는 소리도 들린다.

호텔 사장 " 너는 부모 형제도 없냐? "
사장 친구 〃 죄 없는 학생들을 왜 때리냐? "

조금 후 지배인은 체크아웃 정리하러 1층으로 내려온다.
사장과 친구는 안 보인다.
검은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호텔 쪽으로 도망 온다.
지배인이 얼른 셔터 문을 내리는데 공수대원 7명이 밀치고 들어온다.

하사관 7 〃 이 개새끼들 겁대가리 없네! 〃

카운터에 있는 경리와 지배인 두들겨 맞는다.
직원들 햐얀 와이샤스가 피로 물든다.

직원 1이 도망 온 청년을 데리고 201호 객실 화장실에 숨는다.
군인들이 객실을 모두 뒤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 직원 1, 청년을 잡아 두들겨 팬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질질 끌려간다.

4층 청소하던 직원 2 놀라서 구석에 숨는다

하사관 8 〃 너 이 새끼! 나와! 〃

직원 2 런닝에 검정 바지를 입고 손에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들고서 나오자마자 얻어터진다.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서 계단마다 서 있는 공수에게 계속 얻어터진다.

도로에 무릎 꿇고 있는 여섯 명

장교 2 〃 이 새끼들 죽여버려야 돼! 〃

군홧발로 한 명씩 턱을 걷어찬다.

여직원 둘이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놀라 소리친다.

여직원 둘 〃 오매 어쩌끄나! 〃

장교 2 " 저 쌍년들 잡아다가 유방을 잘라버려! "

객실을 수색하던 군인이 신혼부부 남자를 끌고 나온다.
양복 입은 남자가 머리에서 피를 질질 흘리며 붙잡혀서 간다.

신부 " 우리는 신혼여행 온 사람이요! "
보내준다.

31 가톨릭 센터 6층

도로에는 미도장에서 잡혀온 사람들, 벙어리 등 뒤로 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피 흘리고 있다.
대주교가 내려다보고 나가서 말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괴롭다.

32 금남로

기동대 버스가 와서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자 하사관 7이 버스에 올라온다.

하사관 9 " 번호 "
잡힌 사람들 " 하나! 둘! 셋! "
하사관 9 " 대답 안해! "

농인이 몸짓과 신음 소리로 벙어리임을 호소한다

하사관 9 " 이 새끼가 병신 시늉하네! "

더 맞는다.

33 경찰서 유치장

모두 공포에 질려 앉아 있다.
맨 뒤에 있던 벙어리가 경련을 일으키고 구토를 하며 사지를 벌벌 떤다.

지배인 " 사람 죽는다! 사람 주근당께! 사람 죽는다고! "

경찰들이 와 보고는 들것에 싣고 나간다.

지배인 (수근거린다) " 머리가 깨지고 가죽이 다 벗겨지도록 맞아 불었으니 살기 힘들것다 "

34 조선대학교 운동장/점심

커다란 솥이 걸려있고
밥을 먹는다.

공수부대는 장교도 직접 배식을 받아먹는다.

35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 /낮

수천 명 사람이 금남로로 몰려든다.
군인이 도로에서 없어지자 5천 명 군중이 도로를 메운다.
앉아서 애국가를 부르며 앉는다.
계속 몰려들고 있는 시민들 " 계엄 해제! "

시민 전 " 똑똑히 들었다고 전라도 새끼들! 씨를 말려버려야 한다고 "
대위 어 " 우리는 어제 온 군대가 아닙니다! "

시민들이 도로를 꽉 메우고 흩어지지 않자 장갑차와 군대 대열이 다가오며

중령 1 " 시민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

메가폰 소리가 시민들 노래, 구호에 묻혀 잘 들리지도 않는다.
최루탄을 던지며 쫓아오는 공수부대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멩이를 들고 모여드는 젊은이들

36 상무대(광주지역 전투교육사령부가 있는 군부대) 계엄분소 회의실/ 오후

기관장 대책회의 10여 명

검사장. " 아니 군인들이 그케도 되나? "
재향 군인회장 " 진압이 아니라 사람 잡드라고 "

교육감 "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너무 다쳐 앞으로 국민학교 반공교재를 바꿀 수 밖에 없겠어요. 학부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국민학교 5학년 애가 " 우리는 공산당이재 국군은 공산당을 쳐부순다는데 우리가 맞는 사람인께 우리가 공산당이재"라고 하드라고 안하요. 고등학생들도 들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고등학생도 들고일어날 것 같습니다. 진압이 너무 무섭습니다."

부지사 " 부마사태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광주가 부산과 같은 줄 압니까.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장군 1 " 동네마다 반상회를 열어 시민들의 자숙을 꾀하는 게 어떻습니까? "
시장 " 사람이 모이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담화문을 발표하고 연행자를 풀어주고, 그게 안 되면 연행자 명단이라도 발표합시다"

재향 군인회장 " 공수부대를 철수시켜요!. 4.19 일어납니다."
모두들 " 그렇게 해주세요 "

계엄분소장은 얼굴을 들지 못한다.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
특전사령관, 7공수 여단장은 어렵게 돼가네! 이 새끼들 너희도 한패구먼 하는 얼굴이다.
31사단장은 묵묵히 듣고 있다.

회의가 끝나고
도경 국장 " 이러다 쑥대밭이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소? " (시장에게)

37 광주공원 다리 부근

하사관 양과 동료 둘이 젊은이들을 쫓아서 달려온다.
젊은이들이 다리에서 하천가 풀밭으로 뛰어내려 도망간다.
하사관 둘은 포기한다.
하사관 양도 뒤쫓아 뛰어내린다.
하천변 도로 양쪽에는 군중이 따라간다.
하사관은 젊은이들을 쫓아가며 때리고
군중은 하천가 양쪽 도로에서 하사관 양에게 돌멩이를 던진다.
하사관 양 도망가고
도망가던 젊은이들도 하사관 양에게 돌을 던진다.
하사관 양 쓰러진다.
쓰러진 하사관 양에게 계속 돌 날아온다.
적십자 병원에서 의사가 돌던지 말라고 손을 흔들며 개천 풀밭으로 내려간다.
병원에서도 들 것을 가지고 온다.
공수부대는 몰려오고 군중은 흩어진다.

38 금남로 /오후

군용 헬기 방송

" 시민 학생 여러분, 이성을 잃으면 혼란이 가중됩니다. 지체 말고 즉각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극소수 불순분자 및 폭도들에 의해서 자극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가담하거나 동조하면 가정과 개인에 중대한 불상사가 닥칩니다. 그때 우리는 여하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

군중이 가톨릭센터 주차장에서 CBS 차량을 가져와 기름통에 불을 질러 군대 저지선으로 밀어붙인다.
차와 차가 부딪치면서 기름통이 엄청난 소리를 내고 폭발하면서 화염이 공중 높이 치솟는다.
군중이 기뻐 감탄한다.
119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고
군인들 쫓아가서 몇 사람 잡아서 때리고 밟고...

얻어맞고 잡혀간 사람이 열 사람이면 새로 그 친구. 가족들 1000명이 군중이 된다.
진압할수록 군중은 늘어난다.
도망갔다가 다시 모여 있는 군중들, 군중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 다니면서 공수부대는 끝까지 쫓아가지 못

한다.

뭉쳐 다니는 군중들은 힘을 느끼면서 공수부대와의 싸움에서 재미를 느낀다.
시위대가 군대에 안 밀리면 구경하던 사람들이 시위 군중으로 변해간다.
정치적 구호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서 하는 시위가 아니라 눈앞의 군대와의 물리적 충돌 그 자체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거리는 가득하다.

집회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고, 폭력 대 폭력이 맞선다.
군중은 " 계엄 해제!" "전두환이 물러가라!" "김대중이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는 무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없나?
돌멩이, 화염병, 각목, 차에 불붙이고 밀어 버리는 것, 군인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시위대는 군인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하지 않고 떼를 지어 다니며 수가 모이면 싸워보고 불리하면 도망가고 다시 모이면서 싸움을 통해 싸움을 배운다.
군대는 시민에게 공포를 일으키지 못하고 분노만 만들고 있다.

시위하는 사람들보다는 데모와 진압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는 데모하는 사람 아니니까 괜찮다" 하고 안 도망가다 맞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다.

39 노동청으로 통하는 전신전화국 앞 도로 /낮

금남로와 한 블록 떨어져 있는 전신전화국 앞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전신전화국 앞으로 교통순찰차가 지나간다.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이 순찰차를 잡아 차를 불태워 버린다.

군중은 150m 앞 MBC 문화방송으로 간다.
MBC 문화방송 앞에서는 31사단 병사 4명이 지키고 있다가 시위대가 접근하자 셔터문을 내리고 사격 자세를 취한다.
시민들이 주춤하고 뒤로 물러선다.

시민 위 " 저것은 공포탄이다. 아무 상관 없으니 밀고 나가자! "

시민들이 한꺼번에 돌을 던지면서 다가간다.
군인들은 돌을 수없이 맞으면서도 발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는다.
성난 시민들은 군인들을 잡아 구타하고 철모와 총을 빼앗는다.
군인 한 명이 잡힌다.

소수의 사람 " 죽여 버리자! "
대부분 사람 " 공수부대가 죄지, 이 군인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
총을 돌려주고 풀어준다.

MBC 문화방송 차고의 셔터를 올리자 검은 자가용 3대와 이동취재 차 한 대가 있다.

시민 위 " 언론이 제구실도 못 하면서 자가용이나 타고 다닌다. "
차를 끄집어내 쇠파이프로 연료통 마개를 부수고 불을 지른다.

그때 계엄군들이 밀고 들어 온다.
시위대는 골목으로 도망간다.

40 광주고등학교 앞

광주고등학교 앞에 장갑차 한 대가 인도로 올라선 채 시동이 꺼진 채 움직이지 못한다.
장갑차로 모여든 군중
시민이 장갑차를 둘러싼 채 청년들이 짚단에 불을 붙여서 장갑차 밑에 던졌으나 타들어 가지 않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장갑차 앞에 붙어 있던 밖을 내다보는 유리로 된 장갑차 눈을 깨뜨리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깨지질 않는다.

시민 위 " 뚜껑을 열고 집어넣자. "

고등학생 찬과 시민 위가 뚜껑을 열려고 하나 열리지 않자 그냥 뚜껑 위에 불붙은 짚단을 올려놓고 뛰어내려 도망간다.
장갑차 뚜껑이 빼꼼히 열리면서 총대가 보이더니 하늘을 향해 총을 쏜다.
군중 총소리에 놀라서 달아난다.

시민 위 " 공포탄이니 도망가지 말자 "

도망가다 말고 고등학생 찬이 멈춰선다.
그때 아스팔트에서 불이 '파바바바박' 튀면서 학생 찬 몸이 말을 안 들으며 마음은 달아나려는데 몸이 고꾸라진다.
근무지인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에 길을 지나가던 의사가 총 맞고 쓰러진 학생 찬을 본다.

공중 보건의 " 쏘지 마라. " (외치며 옷을 벗어 흔든다.)

장갑차 대위 알았다고 총을 쏘지 않겠다는 신호로 총을 하늘을 향해 들고 빙빙 돌린다.
공중 보건의가 도로로 나가 학생 찬을 둘러업고 병원을 찾아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장갑차도 달아나면서 커브 길에서 갓 쓰고 도포 입은 사람 친다.

41, 31사단 내 교회와 연병장의 임시 천막

연병장에는 대형 막사가 세워져 있다.
막사 둘레는 둥그런 철조망 두 겹이 둘러 쳐져 있다.

교회 안에는 젊은이들이 누울 수도 없이 꽉 차 있다.
대부분 피가 엉겨 붙고 옷이 벗겨지고 찢긴 채이다.

31사단장 〃 나는 고향이 순천이다. 광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학교를 광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내 친구, 친지들은 전부 광주에 있다. 나는 광주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는 못 하겠다.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겠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해해달라 "

사단장 부관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다.

42 농인 집

농인 1 엄마 〃 광주경찰서죠? 말을 못 하는 28세 되는 벙어리가 잡혀 왔지요!."
경찰서 〃 그런 애는 없습니다 〃
농인 1 엄마 〃 잡혀간 사람들이 다 그리 간 것을 본 사람이 있는디 〃
경찰서 〃 상무대로 넘겼소 〃

43 시외버스 터미널 광장 /밤

군중이 돌이 실린 경남번호판을 단 대형 화물 트럭을 힘을 합쳐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치를 뜯어내 불을 붙여 트럭에 불을 지른다.

시민 공 〃 왜 저런다요? 〃
시민 용 " 경상도에서는 광주고속 5대가 불태워지고 경상도 놈들이 전라도민을 싹 쓸어 버리라고 했다요! 〃

터미널 광장에 운집한 수천의 군중들
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더 자유롭다.
군중의 폭력은 어둠 속에서 더 자유롭다.
밤에는 시위 참여자가 더 늘어난다.
불은 군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군중의 힘을 더 잘 느끼게 한다.

화분대, 공중전화 박스로 도로를 막고 도로를 가득 메운 시위군중들을 향하여 계엄군 장갑차가 달려든다.
군중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달아난다.
골목에서 나타난 시위대가 장갑차에 화염병을 던져 맞춘다.
불이 붙은 장갑차 주춤거린다.
군중 환호한다
.
군대는 군중을 해산시키지만 1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여든 군중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군대는 세 차례나 군중을 해산시킨다.

하늘에서는 헬리콥터가 조명을 비추며 시위대를 찾는다.

44. 31사단 /밤

회의 참석자
31사단장, 공수 7여단 중령 둘, 11공수 여단장, 도경 국장, 31사단 연대장 대대장 참모들 6명

31사단장 " 사태가 심각하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
도경 국장 " 계엄군이 들어오기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에 없던 군중이 생겼고 고등학생들도 보인다. 공권력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지고 적개심을 보인다. 구경하던 시민들도 군중이 되고 있다. 4.19가 생각난다. "

31사단 연대장 " 시내 인심이 사나워져 휴가 장병들이 군복 입고 외출할 수가 없고 휴가를 포기하고 영내로 피신 옵니다. 공수부대가 너무 인심을 잃고 있습니다. 휴가 나간 장병들 말로는 자기들도 피가 끓더라고 합니다. "

공수부대 지휘관들 말고는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공수 여단장 " 지역 경찰과 향토사단이 구경하듯이 하고 있는데 적은 병력만으로 어떻게 하느냐! "

침묵

31사단장 " 지금부터 피를 보는 진압은 안 된다! "

45 국방부

특전사령관 " 광주에서 소요사태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습니다. 유언비어 때문에 광주시민들의 감정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공수 5개 대대로 힘이 부칩니다. 병력을 더 보내야 합니다."
계엄사령관 " 서울에서도 아직 산발적인 시위 움직임이 있는데 광주에다만 군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특전사령관 " 서울은 더 시위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지만 광주는 그대로 두면 혼란이 더합니다. 3공수에게 출동 준비를 지시했는데, 1공수도 동시에 내려보내야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시선이 심각하게 듣고 있는 보안사령관에게 집중된다.

보안사령관 " 선배!(계엄사령관을 보며) 3공수와 20사단을 함께 보냅시다. "

46 주택가 /밤

어머니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사내자식들을 걱정하며 문 앞을 서성거린다.
사내자식들이 한 번 나가면 소식이 없다.

주민 1 " 집 애기는 들어왔소? "
주민 2. " 아니라! 공수부대가 여학생의 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내고 팬티만 입힌 채 도청 앞에 눕혀 놓았답디다 "

주민 3 " 집 집마다 머시매들은 싸움 구경 불구경에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않네! 밥만 묵고 나가면 소식이 없네! 뭔 난리까 "

주민 4 " 군대 보낸 자식도 걱정이고, 데모하는 자식도 걱정이요. 아들 많은 집은 걱정이요 "

주민 5 "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고 구경도 이런 구경거리 본 적이 없는데 애기들이 말 듣것소? 데모판 만나서 신났어요! "

47 시내 중심가 도로 /밤

불 꺼진 도시에 하늘에서는 데모대를 수색하는 헬기가 조명을 비추고 있고,
어둠 속에서 중심가 넓은 도로 위에서는 대열을 지은 군대가 대열을 지어 위력 시위한다.
저벅저벅 군홧발 소리만 크게 들린다.
숨어있는 시위대는 오늘 재미있었고, 내일은 얼마나 재미있을지 소곤댄다.

군대가 도시에 온 셋째 날

48 시외버스 터미널 / 새벽

이슬 피할만한 곳에서 자고 난 뒤 담요를 개고 있는 군인들.
어쩌다 다니는 차, 도로는 텅 비어 있다

49 광주역 /새벽

1477명 공수부대 새로 막 도착한 부대들
먼저 도착한 병력의 지치고 잠 못 잔 힘없는 얼굴들을 본다.

막 도착한 공수대원들 " 뭔 일이여! "
" 말이 아니구만 "
" 처음부터 우리가 왔었어야재 "

31사단장 " 공수단이 학생들을 너무 심하게 다룬다."
여단장 대꾸 안 한다.

중령 박 " 어떻게 돼가는데 우리까지 내려오게 만드데여! "

중령 권 " 말 마라! 억수로 무섭다! 오전에는 좀 나은 데 조금 있으면 갈퀴, 쇠파이프, 몽둥이, 돌 들고 몰려온다 아~들이고 할배고 뭐 이런 난~리가 없다! "

중령 박 " 뭔 말이여? "

50 상무대 입구

농인 1 엄마가 아들이 잡혀 왔는지 알아봐달라고 사정한다.

헌병 " 죄 없으면 돌려보낼 테니까 돌아가시오."

51 명동성당

추기경 〃 사람이 죽었습니까? 〃
대주교 〃 죽은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은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믿겠습니다 〃
추기경 〃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유언비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의 발언은 신중하게 진실만을 수집하고 말해야 합니다. 〃

52 궁정동 안가. 박정희 대통령 저격 장소 /오전

보안사령관, 가운데 앉고 추기경, 대주교 마주 보고 있다.

추기경 〃 광주에서 유혈 사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안사령관 〃 소요 사태가 있습니다. 〃

전화벨이 연이어 울린다. 추기경 입을 열려고 하면 전화가 온다.
광주에 관한 이야기인 듯 보안사령관 전화로 보고를 받으면서 표정이 어둡다.

보안사령관이 〃 광주에서 내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곧 국방부로 나가봐야 합니다 〃

53 도시 변두리

피난 행렬
줄지어 걸어가는 사람들
대학생들 도시 탈출

54 금남로 1가 /오전

가톨릭 센터 6층 교구청에서 금남로를 내려다보는 신부 1, 3,
얼굴과 가슴에 피가 낭자한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을 끌다시피 데려간다.
20~30명 정도의 젊은이들을 금남로에서 젊은 남녀가 팬티와 브래지어만 남기고 발가벗긴 채 보도 위에서 원산폭격(머리를 땅에 댄 채로 두 손을 등 뒤로 가져가는 군대식 기합)을 시켜놓고 조금만 움직여도 군홧발로 차고 진압봉으로 두드리는 공수부대원들의 날뛰는 광경을 본다.

4열인데 한 줄 7명, 한 줄은 6명, 한 줄은 8명, 여자는 8명
여자들 신발은 굽 높은 하이힐이 많다.
10명의 공수대원이 손에 방망이를 들고 빙 둘러서서 지키는 가운데 하사관이 줄 가운데에서 구령한다.

하사관 8 " 뒤로 누워! "
하사관 9 때리며 " 복창 안 해! "
하사관 8 때리고 발로 차며 " 동작이 그것밖에 못 하냐 "

하사관 표정은 이런 것도 못 하는 놈들이니 당연히 맞아야 한다는 듯,
자신은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만물의 척도는 군사훈련이다

얼굴과 머리에 피가 낭자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이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빈다.
젊은이들이라면 무조건 구타하여 끌고 와서 트럭에 싣고, 최루탄을 던지고 출발시킨다.
피투성이의 젊은이들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보고 신부 1 온몸에 전율을 느낀다.
감히 나서서 대들지 못한다.

신부 1 이 신부 3 에게 " 총으로 쏘아 버리고 싶다 " 울먹인다.

55 적십자 병원

농인 1 엄마 " 내 아들이 김경철인데 병원에 있다고 알고 왔응께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시오 "
소리친다.

직원 " 영안실로 가 보시오 "

56 적십자 병원 영안실

영안실에는 아무도 없다.
어안이 벙벙하여 멍하니 서 있었는데 직원이 다가온다.

직원 " 어젯밤 8시에 들어와 주사 한 대 맞지 못하고 숨이 끊겼소 "

57 병원 입구

농인 1 엄마 " 내 아들 빨리 내놓아라."
소리를 지른다.
직원 " 통합병원에서 실어갔다. "
직원은 자리를 피한다

58 통합병원 영안실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시신을 확인한다.
농인 1의 아내는 기절한다.

59 농인 집

아이가 배고파 우는데 엄마가 정신이 없다.

농인 1 엄마 " 빨리 젖을 줘라 "
말 못 하는 며느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려는 듯하다가 그만 엉엉 운다.

젖먹이는 목놓아 우는데도 며느리는 끝내 쳐다보지도 않는다.
농인 1 엄마가 울며불며 애원하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젖을 준다.

60 통합병원 영안실

군인들 2명이 시체 2구를 바닥에 놓고 호스를 끌어와 긴 솔로 문지르며 시체를 씻는다.
사진을 찍고 무엇인가를 적으면서 다시 냉동실에 시체를 넣는다.

농인 1 엄마 " 마지막으로 내 아들 보내는 길에 보게 해 주라 "
통곡하며 소리친다.

온 몸이 곤봉으로 맞았는지 시퍼렇게 어깨와 이마에 멍이 들어있고 구둣발로 짖이겼는지 발가락이 으깨져 있다.
농인 1 엄마는 평소 아들이 깔끔하고 단정한 것을 생각하고 베개까지 해서 넣어주고 홑이불로 싸 준다.

61 금남로 /오후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 학교에 안 나가자 데모하러 나온다.
수만 명의 중고등학생까지 신나서 군중이 된다.
드디어 말로만 듣던 데모를 나도 하는구나

군중들 " 으샤 으샤 "

카메라 기자들을 보고 웃는다.
축제 같은 해방감, 행복한 표정의 중고등학생들,
머릿수만 믿고 흥분하는 어른들

62 무등 경기장 앞 광장/오후

시외버스 터미널이 군대에 의해 기능이 마비되자 무등 경기장 앞 광장이 시외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이 되어버린다.
기사들은 서넛씩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한마디씩 한다.

택시 기사 1 " 길 좀 비켜달라고 빵빵했더니 대가리를 쳐버리네! "
택시 기사 2 " 무서워서 시내로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나 태워주고 먹고 사는데, 대학생을 태웠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운전을 해 먹냐? "

택시 기사 3 "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여! "
택시 기사 1 " 차를 가지고 시내로 가 공수부대를 쓸어버리자! "
택시 기사 2 " 갑시다! "

시외버스 기사들 삥 둘러 듣고 있자니 택시 기사들 하는 말이 무섭고 데모하자는 것은 재미있게 보인다.
재미있겠다
우리도 하자
우리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듯, 시외버스 기사들 눈빛이 마주친다.

순식간에 40~50명의 기사가 이에 동조, 대열을 짓기 시작한다.

63 광주역 광장/낮

광주역 광장으로부터 200m 지점
광주역에 배치된 계엄군들은 택시 기사들이 몰려온다는 무전을 받고 2열로 앞줄은 앉아 쏴, 뒷줄은 서서 쏴 자세를 취하고 택시들을 향해 총구를 겨냥하고 있다..
긴장. 침묵. 대치

택시 기사 1 " 저 새끼들 보소! 미친 새끼들! 일단 후퇴하자! "

차량 시위는 무등 경기장 광장에서 무리를 지은 기사들이 도청으로 먼저 출발하고, 뒤이어 무리를 지은 기사들이 광주역으로 간다.
수많은 군중이 여기저기서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
너도나도 참여하려는 열기 앞서서 나가니 기사여 따르라!

64 시외버스 터미널 / 오후

택시 7, 8대의 택시들이 무등경기장 쪽에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로 오고 있다.
광남로(독립로)와 금남로 진입로엔 공수대 20명씩 길을 막고 있다.
길을 차단당한 택시들은 도로에 서 있고, 시민들은 인도에서 상황을 지켜본다.

얼마 후 무안이라고 씌어진 안내판을 단 시외버스 한 대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배차실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자 빨간 잠바를 입고 모자를 쓴 30대 초반의 남자가 그 차를 세운다.

빨강 잠바 " 길을 뚫어야 하는데 공수대가 막고 있어 어렵다 택시 가지고는 어렵다. "
운전사와 타고 온 손님들이 차에서 내린다.
버스에 올라탄 빨간 잠바의 남자는 차를 몰아 서서히 공수대 쪽으로 향한다.
서서히 가다 막판에 돌진하자 공수대는 뒤로 후퇴한다.
길이 뚫리자 버스는 금남로를 향해 갔고 그 뒤를 7, 8대의 택시들이 따른다.
시민들은 차량을 뒤따른다.

65 금남로/ 오후와 저녁 사이

저녁이 가까워질 때, 낮부터 돌 던지고 도망가는 시위가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다.
멀리서 함성과 헤드라이트 번쩍거리고 경적 들린다.
시위하던 군중들 돌 던지다 말고 한 사람 두 사람 모두 뒤돌아본다.
버스 택시 운전기사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서서히 다가온다.
엄청난 대열이 오고 있는 것을 알아챈 군중들 함성
공중교통 노동자들이 시위를 주도하므로 대부분 시민도 덩달아 끼어든다.

빨강 잠바 " 밀어불자! "

시민 3 " 기사 아저씨! 택시보다 앞으로 갑시다! "

5가에서 4가, 3가, 2가, 1가 교차로마다 차들이 지나가다 말고 대열에 합류하려고 끼어든다.
인도에는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도청으로 걸어간다.
구경났네! 구경났어!
걸어갈수록 인도에는 사람들이 점점 가득해진다.
끼어드는 차량이 많을수록 행렬은 느려지지만, 함성은 더욱 커지고
짐 실은 5t 트럭이 나타나자.

군중 " 와 "

믿음직한 트럭을 환영하고 택시들은 뒤로 빠진다.
차량으로 꽉 찬 도로에서도 기사들끼리 협력하여 재주껏 앞으로 뒤로 빠진다.

큰 차는 앞으로! 작은 차는 뒤로!
군중들 어마어마한 구경거리에 신나서 모여든다.
기사가 내려서 택시를 밀고 간다.
택시에 탄 손님들도 응원하고, 점점 늘어나는 군중들.

시위대도 택시에 탄다. 창문 밖으로 몸을 드러내고 손목을 번쩍 들고 도청으로 함께 갑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나도야! 간다!

승객 "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렸네! "
기사 2 " 와! 인자 군바리들 쫓겨나것네! 더 못 가것는디 걸어갈라요? 그것이 낫것소! 나도 따라가 볼라요!"
승객 " 허~벌나부네이!!. 나도 가 볼라요."

앞장서는 사람도 없지만, 모두가 와! 흥이 나서 몰려든다.
운전사들, 시민들 모두 마음이 흥겨워진다.
난생처음 느껴본 일체감에 젊은이들 더욱 들뜬다.

군중들 " 으샤! 으샤! "

금남로가 차량으로 가득하다.
시위대 사기가 오른다.
이것이 우리 힘이다
볼거리가 만들어지자 구경꾼이 달라붙고, 구경꾼은 금방 시위 군중이 된다.

천천히 질서정연하게!
모두 한 걸음 더 나가자!

어마어마해지는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뭉쳐진 힘에 놀라고, 신난다.

군중 " 으샤! 으샤! "

축제의 즐거움(광화문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함성 물결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나라다, 공화국이다, 법이다는 기분,

국민 주권은 선언문이 아니라 힘이다.
이보다 더 큰 힘 있으면 나와!

군대는 도청광장으로 통하는 세 군데 도로를 막고 있다.
세 군데 저지선마다 군중들이 모여 있다.

광주역에 있는 군대를 물리치려고 다섯 개의 도로에서도 군중들이 몰려든다.
무등 경기장 광장에서 광주역으로 가는 길목인 신안 사거리에도 금남로처럼 차량 시위 중이다.
차량 시위하는 시위대의 방식과 그에 대한 군대의 대응방식과 그 결과가 같다.

중령 1은 차량 공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병력을 인도로 올라서게 한다
도로에는 경찰만 남겨진다.

기동대 중대장 2 " 우림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막아달라! "
중령 1 " 우리도 최루탄 없이는 막을 수 없다! 우리 최루탄은 다 떨어졌다! "

경찰 기동대장 최루탄 한 박스를 가져다주고, 페퍼포그 차량이 대열 앞으로 나온다.
병력 절반이 장갑차와 함께 도로를 막고 있고 절반은 인도에 있다.
군인들은 시멘트 화분대를 도로 가운데로 옮긴다.
화분대가 여섯 명이 달라붙어야 할 정도로 무겁다.
경찰들 최루탄 총 발사 준비한다.
군대 저지선과 점점 100m 거리에서 차들이 멈추며 기세만 올리고 있다.

이래도 안 물러갈래
우리 힘 봤지
이제 고만 휴전선으로 돌아가라 하는 듯

군대와 경찰이 멀리 방어벽을 치고 막아섰다.
최루탄이 몇 개 날라와 터지면서 시위대 대열 정지한다.
버스 하 대가 최루 가스를 못 견뎌 앞으로 나간다.

빨강 잠바 " 오매 매운그 눈도 못 뜨것네! "

운전사 장갑차와 방어벽을 보고 놀라 차를 도롯가에 멈춘다. 최루탄이 버스를 향해 날아오고, 몽둥이를 든 군인들 달려들어 유리창을 깨고, 최루탄을 집어넣고 시위대를 끌어 내려 때린다.

군용 헬기 방송

" 시민 여러분! 이성을 찾으십시오! 모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연행자는 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루탄 연기가 없어지고, 군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시위대 차량 대열 다시 앞으로 나간다.
앞장섰던 택시는 뒤로 가고 버스들이 맨 앞줄에 서서 대열을 정비한다.

군중 " 으샤! 으샤! "

힘차게 소리 질러봐!
한 청년이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며, 이 버스 지붕 위에서 저 버스 지붕 위로 옮겨 다니며, 흥겨워한다.
자신이 생각해낸 퍼포먼스가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흔드는 청년, 응원단장인 듯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4대의 버스가 대열 선두에 서서 서로 가까이 붙어서 천천히 간다.
버스 8대, 짐실은 5t 트럭 1대, 소방차 1대, 그 뒤로 택시 60대

카메라는 위에서 군대와 시위군중 간 거리를 보여준다.
30m 정도
긴장된 대치. 함성

66 신안 사거리 (전남대학교와 광주역으로 통하는)/ 밤이 오는 저녁

차량시위대가 방어벽을 치고 있는 군대와 가깝게 대치한다.

젊은이들 " 깔아 죽여 버리자! " (차위에서 각목을 들고)
중령 김 " 나를 죽이면 내 부하들도 당신들을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 요구
조건이 뭐냐!"
젊은이들 " 광주역으로 갈 테니 길을 비켜라!"
중령 김 " 나도 위에 지휘관이 있으니 5분만 참아달라! "

금남로와 전남대학교 앞 신안 사거리에서 양쪽에서 최루탄 터지는 같은 상황
최루탄 발사와 함께

중령 김 " 돌격 앞으로! "

운전사들 잡혀서 두들겨 맞고 피 흘린다.
제일 앞줄 차량 열쇠를 빼버리고, 타이어 바람을 빼버린다. 엉키고 부서지고 멈춰선 수십 대의 차들

20여 분 뒤, 머리가 깨지거나, 어깨가 내려앉아 피투성이가 된 채 실신한 사람들이 즐비하다.
안내양 차림의 처녀 2명이 운전기사 차림의 30대 청년 두 명을 부둥켜안고 통곡하고 있고, 쓰러진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며 구급차를 빨리 보내라는 목멘 목소리

최루탄 연기가 가시고
신났던 군중 중 잡힌 수십 명이 도로에 피 흘리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처박고 있다.
도망갔던 운전기사 다시 와서 군인들 눈치를 보며 군대 대열이 물러난 것 확인하고 시위 대열 뒤쪽에 있었던 차량을 빼내 가져간다.

67 노동청 앞/밤 9시

노동청 앞은 경찰이 막고 있다.
금남로에서 군대에 당하고 더 만만한 경찰에게 더 폭력적으로 대하는 군중들, 노동청 주변에 주유소가 있다.
경찰 저지선을 향하여, 차량에 불을 질러 밀어 버린다.
모든 것을 다 불 질러 버리고 싶은 군중의 화난 얼굴들, 공권력이 사라진 자유, 해방감을 폭력으로 확인하는 군중
광주고속 버스 운전사들도 금남로 차량 시위의 흥분된 여파로 시위에 가담한다.
운전사들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후진으로 경찰 저지선 대열에 다가간다.
어둠 속에서 광주고속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여 경찰 저지선을 향하여 간다.

경찰 기동대 1 " 버스다! 피해라! "

1차 저지선 경찰들 버스를 피하며 돌을 주워 던지면서 피한다.
담벼락 밑에 기대어 쉬고 있던 경찰들은 버스가 다가오자 놀라서 일어나 담벼락 벽에 붙어선다.
버스 뒤꽁무니가 담벼락에 붙어 서 있는 경찰관에 그대로 부딪힌다.
버스와 담벼락 사이에 경찰 1, 2, 3, 4, 여러 명이 끼거나 깔려 뒤엉킨다.

깔린 경찰들 1, 2, 3, 4 " 어머니! 어머니! "

경찰들 끌어내려고 팔, 다리를 잡아당긴다.
축 늘어진 팔, 다리

경찰 기동대 1 (메가폰) " 중상자가 생겼다. 길을 비켜 달라 "

사이렌을 울리며 간다.
시위군중 길 비켜준다.

사람이 죽었어도 시위는 계속되고, 불은 밤을 밝히고 또 버스가 후진으로 경찰 저지선으로 들어온다.

도청과 노동청에 가까운 MBC, 세무서가 불탄다.

광주역과 가까운 KBS 가 불탄다.

선동하는 여자 스피커 소리가 널리 퍼진다

" 전두환이 물러나라! 내 자식을 살려내라! 계엄군이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 모두 죽여라. 계엄군을 몰아냅시다!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자 젖가슴에도 칼질하는 악랄한 공수부대 놈들을 모두 다 찢어 죽입시다!

당신의 아들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뜨거운 방에서 뜨건 밥 묵고 뜨건 이불 속에서 잠이 오요!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러 왔습니다. 임산부 배를 갈랐습니다.

나는 공산당도 아닙니다. 난동자도 아닙니다. 단지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 죄없이 우리 학생. 시민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더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섭시다. 계엄군을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 우리 고장을 지킵시다. 시민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엄군 아저씨!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맞습니까? 경찰 아저씨! 당신들은 우리 편입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청광장을 잠시만 비켜주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경찰 아저씨! 최루탄을 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맨주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이깁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힘을 합칩시다. 끝까지 물러서지 맙시다.
저들은 우리를 향해 절대로 총을 쏘지 못합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궐기합시다. 시민 여러분!

아리랑 개사곡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시민 여러분
십 리도 못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꽃같이 어여쁜 우리 형제들은
무자비한 계엄군에 끌려서
죽음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경찰 아저씨! 우리와 힘을 합하여 악랄한 공수부대를 몰아냅시다! "

한편
공수들 이구동성으로
하사관 7 〃 저 년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으니 저 여자부텀 죽여야 한다. 〃
하사관 8 〃 저 간첩 년을 1순위로 죽여야 한다. 〃
하사관 9 〃 저격수는 뭐하나! 저년 주둥이를 조용히 시켜야지! 〃

68 MBC /밤

노동청 앞과 MBC 앞 도로에는 군중이 몰려 있다.

군중 속 화염병을 든 시민 " 거짓말하는 MBC 를 불질러 버립시다!"
말리는 시민 " 불이 주택으로도 번질 수 있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방송하자 "

MBC 건물로 우르르 들어가는 사람들
방송국 안에 사람이 없다.
시민 송 " 방송할 줄 아는 사람 없습니까? "
화염병을 든 시민 나오면서 화염병을 던져 버린다.
MBC 건물 옆 전자상가가 불이 붙을까 전자 제품을 길에 꺼내 놓고 있는데 군중이 도운다.

이때 도청에서 장갑차 두 대가 달려온다.
군중 흩어지고 두 명은 차에 치인다.

69 시외버스 터미널 / 밤

공수부대가 터미널로 통하는 모든 도로에서 군중에게 둘러싸여 있다.
돌멩이를 던지고 각목으로 무장한 시위대와 싸우기가 힘들다.
군대는 달아나기 위하여 군중 머리 위로 화염방사기를 쏘니 화염이 나온다.
군중들 도망가고 군대는 시청 쪽으로 길을 확보하며 이동한다.

70 광주역

3여단 5개 대대가 아침에 도착하여 전남대학교에 여단 본부가 주둔 중이다.
도청으로 지원 나갔던 11대대, 시청 지키는 12대대, 터미널에 있던 13대대 3개 대대가 군중으로 둘러싸여 고립되어 광주역으로 겨우 후퇴한다.
광주역에 겨우 모인 5개 대대는 후퇴하는 대대를 따라온 군중들에게 다시 포위되어 전남대학교 있는 여단 본부에서 실탄을 배급받아 군중에게 사격하면서 광주역 광장을 포기하고 전남대로 후퇴한다.

군중들 광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나와 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주차된 고속버스를 시위대가 몰고 나온다.
시위대가 달리는 차를 중립 기어에 놓고 뛰어내린다.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에서 광주역으로 향하는 모퉁이 주유소에서 한 청년이 트럭에 드럼통 2개를 싣고 휘발유를 가득 채운 뒤 불을 붙여 계엄군을 향해 밀어붙인다.
청년은 전방 20m 앞에서 뛰어내리고 차량은 불덩이가 되어 돌진하여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분수대를 들이받으면서 주위를 진동하는 폭발음과 함께 폭발하고 불기둥이 솟는다.

트럭 뒤 칸에 화염병을 든 사람을 태우고 가서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고, 트럭 2~3대가 연속 공격하기도 하고 군중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 본다.

군중들의 사기가 오르자 직접 운전을 해서 군대에 부딪혀 버리는 사람도 나타난다.
대열을 짓고 있는 군인들 차량 돌진이 있을 때마다

공수들 " 차 온다! "

소리치며 도로에서 피하는 군인들.
군인들 운전사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도록 팬다.

중령 박, 달려오는 트럭을 보고 권총을 빼 들고 바퀴에 총을 쏜다.
차는 분수대를 들이박고 멈춘다.
운전사 끌려 나와 죽도록 맞는다.

트럭이 돌진한다.

공수들 " 차 온다! "

광장에 있던 군대는 피한다. 분수대를 돌아 800m 거리의 신안 사거리까지 간 트럭 운전사가 방어벽을 발견하고 급하게 우회전하면서 차가 넘어간다.
옆으로 넘어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공수 하사관 4가 차와 함께 끌려간다.
트럭 조수석에 탄 청년 잡혀서 죽도록 맞는다.

여자 방송 스피커 소리 들린다.

" 학생을 태우고 가던 택시 기사 4명이 칼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먼저 가신님들과 같이 죽읍시다.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리러 왔습니다. 전두환이가 공수부대를 동원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공수부대원을 이틀씩이나 굶기고 술 먹여 칼로 찌르고 있습니다. 여대생을 발가벗긴 채 세워 놓고 대검으로 유방을 도려내어 죽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학생이 많이 죽었습니다.
부녀자의 국부를 찌르고 유방을 칼로 도려내니 참을 수 없습니다.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트럭에 싣고간 우리 형제들을 석방하라! 내 형제! 트럭에 싣고 어디를 갔느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총칼을 국민에게 쓰고 있는 전두환이 보낸 공수부대를 몰아냅시다."

71 전남대학교 여단 본부

여단장 1 " 실탄 보급조! 지원해! "
소령 2 " 가자! "

탄약 운반조는 트럭과 트럭을 보호하는 보병이다.
출발한다.
시위대로 길이 꽉 막혀 있다.
트럭 위에 M60 사수가 아스팔트와 건물에 사격하면서 앞으로 나간다.

소령 2 " 후퇴하면 쏴 죽인다! "

실탄 보급 부대가 광주 역에 도착한다.
조명탄이 오르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
군중들 도로에 메우고 있는 모습 보인다.
주변이 밝아지자 시위대 도망간다.

골목으로 숨었던 시위대 " 공포탄이다! "
군중들 도로로 나온다. " 와 와 와 "

일렬로 늘어선 군인들 사격한다.
총 맞아 쓰러지며 죽고 피 흘리는 군중 4명 사망

버스를 몰고 광장으로 들어가는 기사.
버스는 벌집이 되고 부딪힌 채 멈춘다.

사격 후 주둔지인 전남대학교로 가는 길도 가로막은 시위 군중과 뒤쫓는 군중으로 군대는 최루탄을 쏘고 때리고 총을 쏘면서 길을 열고 간다.

72 세무서

군중이 노동청 건너편에 있는 세무서 앞 도로에도 가득하다.

시민 무 " 국민 세금으로 생활하는 군인이 국민을 때려죽이니 세무서를 불 질러 버립시다 "
시민 서 " 세무서를 불 지르면 국민 세금으로 다시 지을테니 우리 돈만 손해입니다 "

세무서 경비를 맡은 31사단 병력이 위협을 느끼고 군중에게 사격한다.
쓰러지는 청년 셋
청년들 우르르 몰려들어 동시에 화염병을 던진다.
시민 장도 군용 트럭 짐칸에 휘발류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 후진하면서 세무서 입구에 들이받는다.
운전석에서 뛰어내려 도망가는 시민 장(지원동 지역방위대 대장이 된다)이 담장을 넘자 담장에 총알이 쏟아진다.

불타는 세무서

73 노동청 앞

선동자 " 조선대학교에 잡혀간 시민 학생을 구하러 갑시다. 차로 밀어 밀어버립시다. "
군중 " 가자 ! "
소방차, 10대의 버스들에 30~40명씩 타고서 줄지어서 800미터 떨어진 학교로 간다.

74 조선대학교 앞

학교 앞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차를 향하여 군인들 몰려온다.
선두 버스는 뒤로 물러설 수 없어서 그대로 진행한다.
총알이 날아온다.
모두들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다.
조선대학교를 벗어나 살펴보니 한 사람은 못 일어나고 한 사람은 귀 뒤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선동자 " 광주역으로 돌아서 전남대 병원으로 가자 ! "

75 광주역

로타리를 가까이 가니 총알이 날아온다.
사정없이 도망친다.

76 전남대병원

도착한다.

77 골목

어둠 속 달아나는 시위대 쫓아가는 군인들
일병 목. 길가에 맞아 죽은듯한 사람을 발견하여 업고 대문을 두드리나, 열어주는 곳이 없다.
교회 문을 두드리니 나이든 목사가 문을 열어준다.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인 줄 짐작한다.
들어가니 서재에 몇 명의 청년들이 숨어있다.
숨어있는 청년들은 군인이 총을 메고 군홧발로 들어와 놀랜다.
죽은 듯한 의식 없는 사람을 맡기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일병 목

78. 경찰서 도경 국장실

말없이 무거운 분위기, 도경 국장이 참모들과 협의한다.

참모 1 " 불에 탄 파출소가 열 곳, 경찰 사망자 네 명, MBC, KBS 도 불타고,
시민 차량 방화가 50대 "
도경 국장 " 됐습니다. "

침묵

도경 국장 " 장관과 치안본부장이 우리가 사태수습은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수습하라면서 무장해서 시위대에 대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다. "

작전 과장 : 〃 참, 여기 상황을 모르는 말씀들 하고 계시네, 우리가 시민들에게 총질하믄 이 동네에서 못 사요. 군인들이 와서 난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공권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민들 적개심에다 총질까지 하라고 하면 옷 벗고 말라요! 〃

참모 1 〃 이승만 대통령에 충성해 시민들을 죽인 죄로 내무장관 최인규, 경무대 비서실장 곽영주가 죽은 지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

참모 2 〃 시위대의 움직임을 보면 사격이라도 해야 할 판인데 그럴 수야 없지 않소? 〃

참모 3 〃 나중에 세상일이 바뀌어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은 하지 맙시다.〃

참모 4. 〃 길게 봐야재 〃

참모 5 〃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안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디 군인들이 우리한테도 개 잡듯 하는데〃

도경 국장 〃 정보 계통에 있는 사람과도 이야기해 보았는데 시민 상대로 총질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일단 무장을 하게 되면 상황따라 발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일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무장하지 맙시다.〃

79 도청 분수대 광장 주변 / 밤중

상무관에서 중령, 지역대장, 중대장 모여서 이야기한다.

중대장 1 〃 이제는 쫓아다니고 때릴 힘도 없다.〃

중대장 2 〃 데모 진압은 실패한 기고, 철수하든지 실탄을 나눠줘야지! 〃

중대장 4 〃 태극기 들고 덤비는 새끼들한테 이런디서 죽어도 국립묘지 갈라나! 〃

중대장 5 〃 군대가 대우가 좋은께 군대 왔재 누가 이런디서 죽을라고 직업군인 한당가! 〃

중대장 6 〃 때리고 잡으면 숫자가 더 늘어나니 잡아 때릴 맘도 안 생기고 부대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와서 더 어려워지는 거 같다. 안되는 것은 안 되지, 안 되면 되게 한다고 군대식으로 해볼 일이 아니다.〃

중대장 7 〃 3공수가 차에 치여 죽고 경찰도 죽이는 폭도들한테는 총밖에 없다! 3공수 쪽에서 총쏘면서 후퇴했다고 〃

중대장 5 〃 경찰도 총 들어야지! 〃

서로의 분위기가 전해지는 거리에서
한편 중령 1 여단 본부 참모장에게 무전으로

중령 1 〃 실탄 지급을 허용해 달라 〃

여단 참모장 〃 말로 하고 좀 참아 보라! 〃

중령 1 〃 야 이 개새끼야, 네가 현장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하는 모양인데...〃

참모장 〃 여기도 공격받고 있다! 우리도 죽을 지경이다. 나보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도 말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

부하들 듣고 있다. 상관에게 욕하는 대대장을 보고 갈 데까지 가는구나 싶은 사기 뚝 떨어진 모습, 우리는 버린 자식인가 하는 쪽팔린 얼굴
공수부대 투덜댄다. 중얼거리며 한심하다는 듯

하사관 10 " 도망가던 새끼들이 대들 때부터 실패한거랑께! 뒈지게 때려놓고, 안되니 인자 말로 하면 자들이 말 듣간! "
하사관 11 "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인자 총밖에 없다! 싹 쓸어버리는 거야! , 베트남처럼 "
하사관 13 " 내는 무섭다! 군대도 무섭고 사람들도 무섭고 월남도 이렇지는 안 했다! 앞이 안 보이잖냐! 대대장들 쩔절매는거 보래이 저 양반도 월남 두 번 갔다 온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 책임있게 나서야지 우리는 총알받이 아이가! 내일 눈 뜨기가 무섭다. 또 얼매나 많이 몰려 올라노! "
하사관 14 " 이게 총쏘면 끝날 일이까? 사람같이 무서운 게 없는데 총쏘기야 쉽지! 뒤가 무서운 거랑께! 우리가 뭔 일을 해도 우리보고 박수칠 거로 알고 했지, 이리 떼거지로 달려들어 찢어죽이자 할 줄 알았으면 우리가 몽둥이질 했으까? 우리 편이 어디 있냐 ? 목 마른데 물 한모금 주는 사람이 있냐! 고생한다고 손벽치는 사람이 있냐 ? 군대와서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

하사관 15 " 사기 떨어지는 소리 고만 해라! 니는 누구 편이고 ! "
하사관 9 " 총질하믄 사기가 오르나 여단장도 못 살리는 사기를 총알받이가 어찌아노? "

압축 스프 봉지를 털어 넣고 물을 마신다.

하사관 13 " 이거 먹고 자들 이기겠나! "

침묵

중령 1 무전을 끝내고 부하들 집합시킨다.
중대장 50여명 모인 후 총탄을 분배한다.
행정병 2~3명이 돌아다니며 중대장(대위)들에게 실탄을 15발씩 분배한다.
계급이 분명히 보이게 찍는다.

중령 1 " 명령에 따라서만 사용하라 "
중대장 1 " 특전사가 명령 듣고 총 쏘나! 지 알아서 판단해야지! 그렇게 훈련 안 받았나! 죽고 난 다음에 명령 내리면 어쩌고 !" (중얼 중얼)

누가 듣거나 말거나 별 신경도 안 쓴다.

중대장 2 " 철수하면 그만이지! 총까지 쏘면 전쟁하잔 말이가? 웃 대가리들은 뭐하는 기고! 3공수도 전남대로 총 쏘며 철수 했다든데! 늦어지면 우리도 당하는 거 아이가! "

80 도청 뒷동네 / 밤

주민들 모여서 걱정한다.

도청 주민 1 (길을 나서며) " 피난 가요! "
도청 주민 2 " 날 새면 우리도 갈라요! "
도청 주민 3 " 사람이 살고 봐야재 집 지키다 사람 죽겄네! "

MBC, 세무서, 불타오르는 도로, 도시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카메라 멀리서 도시 전체를 보여준다. 수많은 옥상에서 시내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여자들. 남자들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남자들을 기다리는 여자들

81 상무관 /밤

군인들 코를 고는 소리 요란하다.

하사관 16 " 중사님 주무십니꺼? "
하사관 17 " 응!"
하사관 16 " 무섭습니다."
하사관 17 " 응 "
하사관 16 " 죽을까 봐 무섭고, 죽일까 무섭습니다."
하사관 17 " 응"
하사관 16 " 미쳤어요!"
하사관 17 " 쿨쿨 "

군대가 도시에 온 넷째 날

금남로 1가와 분수대 광장, 광주역 부근, 도시 이곳저곳 /새벽

간밤의 흔적들
전쟁터 같은 도청과 광주역 광장 주변, 불타고 부서진 차들 돌멩이들, 유리병 조각
금남로에는 멈춰선 버스들, 소방차, 5t 트럭이 멈춰서 있다.
택시들은 도망가려다 서로 부딪힌 모습, 25대
노동청 앞 불탄 차들, 뒤엉킨 차들 11대
온통 전쟁터다.

이슬 피할만한 곳에서 군인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 담요를 개고 있다.
경찰과 군대는 길 위에서 날을 밝히고 피곤해 지쳐 있다.

도시 이곳저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도청광장으로 통하는 세 곳 도로를 밤새 교대로 자리를 지키는 군인, 경찰

텅 빈 광장, 도로를 지키며 새벽을 맞이하는 군대· 경찰.

82 도청광장 /새벽

중대장 갑, 군복에 피가 범벅되어 돌아온 일병 목의 모습을 보고 중대장 화가 나서 때린다

중대장 2 " 비상계엄하에서 부대 이탈이란 즉결 처형감이다. 여기는 전쟁터이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행동 못 해! "

중대장 때리면서도 별일 없이 돌아온 것에 안도한다.

83 상무관/아침

군대는 보급 차량이 올 수 없어 전투식량으로, 경찰은 헬기로 주먹밥이 전달된다
상무관 한쪽에 12시간 전에 죽은 경찰의 시신이 데모 진압복을 입은 채 그대로다.
상무관에서 주먹밥을 먹으며 작전 과장, 기동대장이 회상한다.

84 조용한 곳 실내/낮

학생들 거리시위로 경찰과 충돌하자. 도경 국장이 학생회장을 만난다.

학생회장 " 제가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과 함께 최소한도의 시위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제 책임하에 오늘 밤 횃불 시위를 할 계획인데 허락해 주십시오. "

도경 국장 " 밤에! 그건 안 되겠는데! "

학생회장 " 만약에 야간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학생회장으로서 더는 학생들을 제어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집회입니다 "

도경 국장. " 그러면 사고 없도록 경찰이 에스코트 하지. "

85 도청 분수대 /밤

평화적 도청 집회, 전남대 학생회장 연설한다. 횃불 집회장 둘레를 진압복 입은 경찰이 삥 둘러서 지켜보고 있다.

" 그동안 수업을 팽개치고, 행했던 학·내외의 집회와 특히 연 3일 동안 진행된 시가지 시위와 도청 앞 집회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뜻이 전달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곧 받아들여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들의 성스러운 요구를 뭉개버릴 때는 또다시 수업을 중단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휴교령이 발동되면 즉시 투쟁할 것을 약속합니다.

학생·시민 여러분! 민주화를 성취하기까지는 아직도 머나먼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출발 선상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민주화의 성스러운 횃불이 꺼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한 학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님, 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횃불 집회 및 행진, 경찰 오토바이가 선두에서 호위하고 경찰들은 행진 옆에 서서 같이 행진한다.

86 장성 백양사 1박 2일 기동대 야유회/밤

당분간 시위 진압은 없을 것으로 알고, 야유회까지 장성군 백양사로 다녀온 기동대 즐거웠던 때가 꿈만 같다. 모닥불 피워놓고
기동대장 " 그동안 고생했다. "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경찰 기동대
기동대 1 " 밤차 "
기동대 2 " 미인 "

87 송정리 역광장/ 아침

기차에서 자는 병사들, 먼 길을 비상식량으로 때우면서 이동하는 병력
20사단 4667명 도착한다.

88 도청광장 /아침

간밤의 일들이 궁금한 시민들이 도청 주변으로 나와 간밤의 흔적을 보며, 군인들을 흘끔거리며 모여든다.
멀리서 자전거 타온 사람들,
군인들 말없이 서 있을 뿐, 기가 죽어있다.
흘끔흘끔 모여드는 사람들, 길가에 서 있다가 군인들 얼굴이 사기가 떨어지고 힘없는 것을 알고 도로 위로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모여든다.

89 광주역 /아침

간밤에 광주역에서 총소리가 나서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시민들 몰려든다.
광주 역 대합실에서 두 사람 시신을 발견한다.
리어카에 시신 2구를 싣고 방송차를 따라간다.

여자 1 " 계엄군이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도청으로 모입시다 "

90 금남로 가톨릭 센터 앞 도로 /아침

금남로에 모여 있던 수많은 사람이 그 시신들을 보고 놀란다.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눈으로 확인하고 놀란다.

군중 " 오매 진짜로 죽였네!' "

죽은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들 눈에 놀란 표정 입을 다물지 못한다.
도청 앞에서는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손수레의 시신을 계엄군 가까이에 가져다 놓고 10m 떨어져 앉는 군중들
봐라! 너희들 짓이다
대열 앞에는 몽둥이, 칼 들고 있는 젊은 사람들
여자 1 군대 대열 바로 앞에 서서 멀리 있는 군중을 지도한다

여자 1 " 앞으로 나오세요! 앉읍시다 "
" 죽은 사람이 내 동생인데 계엄군이 죽였습니다. 살인마 계엄군을 쫓아냅시다 "

군중 " 와 와 "

군중들 앞으로 나와서 군대 저지선과 가까워진다.
중령 1, 2 앞으로 나와 손수레에 실린 시신을 보고 놀란다.

여자 1 " 이럴 수가 있습니까? "
중령 1 "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간첩 짓입니다 "
여자 1 " 광주역에서 찾았습니다. 당신네가 죽였습니다. "

중령 2가 여자 1과 이야기 하는 중, 중령2에게 돌이 날라온다.
중령 1, 2 대열로 돌아간다.

여자 1 " 남자가 칼을 뺏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다시 나와라! "

네 중령끼리

중령 1 " 당신이 말을 잘하니까 당신이 나가서 이야기해 봐라 "
중령 4 " 뭐라카노! 안된다카네 "

중령 1 메가폰으로

" 우리는 전방 지휘관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이기 때문에 도청을 사수하라고 지시를 받은 이상 우리 마음대로 철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상급부대에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계엄군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민으로 구성된 군인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폭력을 쓰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당신들이 폭력을 쓰지 않으니까 우리도 폭력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여자 1 어제 차량 시위 때 버려진 택시 지붕 위로 올라간다.

여자 1 " 일단 군인들도 명령을 따랐을 뿐이니 저들에게 돌을 던질 필요는 없습

니다. 우리 협상을 하면 어떻습니까? ″

군중 ″ 좋소 ″ 박수

여자 1` ″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시신들의 눈이 다 파헤쳐져 있으며, 심지어는 학생들을 태워준 택시 기사들까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 계엄사령관을 만나게 해달라 ″

중령 1 ″ 사령관을 만나려면 우선 도지사를 만나야 하니까 도청으로 가자 ″

여자 1 " 제가 도청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고 나와도 되겠습니까 ? "

군중 ″ 좋다 ″ 박수

시민들 군인과 김밥을 나눠 먹는다.

밥 나누는 시민 ″ 밥은 먹었소? 이것 먹으쇼! ″
군인들 ″ 배고프다. 목마르다 ″

시민들 요구르트 빵, 김밥, 바께스에 담아온 물을 바가지로 담아 준다.
군인들 받아먹는다.

91. 공단 입구 / 오전

20사단 병력 1413명이 트럭을 타고 들어오다가 시민들이 톱과 도끼로 가로수를 베어 만들어 놓아 들어오지 못한다. 열심히 톱질하여 가로수를 베는 시민들이 군대의 진입을 막는다.

군중 ″ 들어오지 마라. ″
대대장 (무전) ″ 시민들이 가로수를 베어 길을 막고 대단히 흥분되어 있다. 군대가 철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육박전이라도 할 기세다. ″

사거리에서 다른 쪽 도로에서 군인 2명씩이 탄 지프 14대가 들어오다가 방어벽을 보고 멈춘다
화염병을 던지고 달려든다.

시위대 ″ 와 !″

길을 바꿔 보지만 또 방어벽이 있고 당황한 군인들은 27명 도망가고, 1명 잡힌 군인은 군복이 벗겨진다.
양양하게 14대의 지프를 운전하는 시민, 별 둘 달린 지프도 보인다.

92 금남로 /오전

금남로1가부터 뒤로 가득한 어마어마한 군중 뒤쪽에서

시민 아 " 우리도 무장이 필요하고 무장을 위해서는 우선 차량이 필요합니다. 아세아자동차 공장에 가서 차를 끌고 옵시다! 같이 갈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

2~3십 명의 청년들이 일시에 소리친 청년들 앞에 모여 선다.
시민 남도 가담한다.

93 금남로

양동 주민 일동이라는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 버스가 온다.
라면박스에 비닐을 깔아 주먹밥이 가득하다.
차들이 연이어 도착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군중

94 아세아자동차 공장으로 가는 시내 도로 위/오전

곡괭이자루와 몽둥이를 창밖으로 내 차체를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아세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간다. 신나 있다.
인도에서 보는 사람들도 나도 저기에 속했으면 하는 부러운 눈들, 정말 재미있겠다 싶은 눈, 박수

버스 시민들 " 진짜 사나이 "
" 애국가 "

95 금남로

장갑차 탄 시민들이 군중들 사이로 환호, 박수, 함성을 받으며 환영을 받는다.
장갑차 차량에 가득 매달린 시민들 웃음꽃이 활짝 하다.
우리가 잘했지 하는 뿌듯한 얼굴
마치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듯한 기쁨과 환영,

96 도청 본관 2층 도지사실/오전

여자 1, 학생 등 4명과 도지사, 시장, 국장들.... 중령 4

도지사 "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주둔하면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을 말씀하십시오."

여자 1 " 시민들이 불안해하니 계엄군은 철수하도록 해주시고 연행된 학생과 시민들 소재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공정한 언론 보도를 하도록 해주시고. 계엄사령관을 만나게 해주세요. "
도지사 " 12시까지는 계엄사령관을 만나게 해볼 테니까 당신이 먼저 나가서 시민들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

97 금남로 /낮

여자 1은 도지사의 말을 믿고 군중들 앞에 서서, 도지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도지사는 도청 직원들의 만류로 나오지 않는다.
군대와 군중이 마주하고 있다.

여자 1 " 선구자 " .
군중 " 당신 때문에 도지사 나오기만 기다린다고 아까운 시간만 버렸다. "

도청 본관을 나와 군대 저지선까지 걸어가는 시장과 시청 직원 두 사람, 200m 거리가 비어 있다.
카메라 두 사람이 걸어가는 빈 거리의 길이를 보여준다. 하늘에서도 보여준다.
이 거리 안에서 곧 군중이 가득하게 되고, 시위 차량이 가득하고, 군중들이 점점 앞으로, 도청을 향하여 가까이 가게 되고 또 그만큼 군대 대열이 뒤로 물러난다.
몇 시간 후 군중의 열기로 꽉 찰 지금은 빈 공간, 비무장지대

중령 3 " 못 간다. 가서 잡히면 인질이 된다. "
시장 " 시민하고 만나야 뭔 이야기가 될 거 아니냐. 죽어도 가겠다 "

군대와 시민 간 거리 5M.
시위대 장갑차가 대열 앞으로 나와 있다.
시장이 연단 위에 오르면서 눈앞에 보이는 손수레에 실린 시신에 놀라며

시장 " 시민 여러분!, 저는 시장입니다! 여러분은 폭도가 아닙니다! "

시민 한 사람이 시신을 덮고 있던 태극기를 걷어서 시장에게 보여준다.
시장 더 놀란다.

시장 " 만세 삼창을 합시다. 시민 만세! "

군중 박수
군중 " 계엄군은 물러가라 도지사 나와라 "

시장의 구호, 군중의 아우성, 화염병, 돌멩이 최루탄이 연이어 일어난다.
너희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동시적으로 준비된 반격.
시청 직원이 시장을 연단에서 보듬고 데리고 간다
시장 신발이 벗겨진 채 피한다.
최루탄이 터지고 군대는 군대 저지선을 뒤로 물린다.

여자 1 눈을 못 뜨고 피하는데 가다 보니 군대 쪽으로 피하고 있다.
군인들 총을 여자1에게 겨눈다.

중령 1 " 총 치워! "

중령 1 (매가폰을 주며)　　" 지금 시민들이 당신 말은 들어도 우리 말은 듣지 않는다. 수습을 해달라 "

여자 1 이미 싸움 분위기로 돌아선 분위기에 나보고 뭘 어쩌라고? 하는 얼굴
시위대 장갑차가 시위대 대열 선두에 나타난 후, 대화 분위기보다는 힘의 대결을 바라는 군중이 분위기를 잡는다.
군대는 최루탄을 터트리고 저지선을 70m 뒤로 물린다.
1차 저지선이었던 곳과 2차 저지선 사이에 버스 트럭 소방차가 모두 9대 놓여 있다.

18시간 전에 군인들이 최루탄으로 박살 내버린 그 차들이다.
시위대와 군대 사이 70m의 공간에 차들이 어지럽게 가로막혀 있다.

군대는 병력이 교체된다 (270명씩 3교대)
기관총이 달린 장갑차 2대가 교대병력 270명과 함께 6차선 도로를 막고 서서 저지선을 만든다.

헬기에서 도지사, 시장이 방송한다.

" 12시까지 군인들이 철수하도록 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연행자를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를 살립시다 "

시위대 스피커

" 끝까지 투쟁하자. 계엄군은 물러가라! "

방송대 방송 싸움으로 시끄러워 귀가 웅웅 거리는 분위기.

사람들이 차량을 정리하여 군중이 모일 수 있게 공간을 만든다.
군중들이 개미처럼 움직여, 여럿이서 힘을 합하여 도로 가운데 있는 차들을 도롯가로 움직이니 도로 가운데 공간이 나온다.

다시 점점 눈치를 보며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조금씩 모이지만 계속 모이고 군대 대열 가까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고, 소리는 더 높아지고. 몽둥이를 든 사람들부터 앞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온다.

시민 문　　" 앞으로 나옵시다! 계엄군은 물러가라! 계~엄 해제!"(대~한민국 박자로)

조금씩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멈춰선 버스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도로를 가로지르는 광고판 설치물 위로 올라선 사람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좋은 자리에서 보겠다는 자세다.
군인들과 10m 거리를 두고 모인다

군중　　" 와 와 으샤 으샤 "
시민 황　　"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오? 피해가

클텐데 좀 비켜 주시오."

중령 1 "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러잖아도 지금 상관이 철수를 건의하고 있소. 못 믿겠거든 당신이 직접 통화해 보시오. 상부에 연락을 취해 곧 나가도록 해 보겠다. "

중령 당황해 어쩔 줄 모른다

군중 " 와 와 "

마음껏 소리 질러봐!
군중들이 버스 위에 더 올라갈 공간이 없다.
좋은 자리는 만원이다.

시민 황 " 왜 12시가 되었는데도 물러가지 않느냐? "
중령 1 " 지금 계엄회의가 계속 중이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 "

공수부대원들 땅바닥에 주저앉아 노래를 부른다.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라도 해도 위기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시위대는 군대에게 폭력을 배웠고, 군대는 시위대에게 노래를 배웠다.
군중은 군대와 함께 노래한다.

공수부대 270명 대열 합창 " 고향의 봄, 애국가! "

98 상무관(도청광장에 있는 전라남도 경찰국 체육관)/낮

대대장들 지역대장들 회의, 중령 소령 대위들 이상 20여 명

중령 3 " 이대로 있다가 육박전이라도 벌어지면 부하들 다 죽이겠다. 약간의 희생자가 생기더라도 위협 사격을 좀 해 물리치자."
중령 4 " 우리 애들이 겁을 먹었다. 군법회의에 가더라도 사격을 해서 물리치자."
중령 2 " 무슨 소리를 하느냐. 도청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 (벌컥 화를 내며 지휘봉을 내동댕이친다.) 철수하자 "
중령 5 " 교체는 시켜주는 거야? 이럴 때 여단장이 현장에 없고 무전으로 어떻게 지휘하나? ".
중령 1 " 3여단도 어젯밤 전남대로 철수했는데, 총을 쏘았다.
우리도 철수가 늦어지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
중령 3 " 우리가 말로 한다고 보고만 있겠냐? 화염병 든 놈들, 과격한 놈들이 나서면 싸움이 벌어질 테고, 자동차로 밀고 왔던 군중들 기세가 어제와 또 다르다. 군중이 너무 가깝게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중령 1 " 20사단으로 교체할 모양인데, 도로가 막혀 있어서 어려운 것 같다. "
중령 2 " 진압은 틀린 지 오래다. 병력 희생 없이 물러날 방법을 생각하자. 선임 대대장이 과감하게 건의하고 결정해서 빨리 나가자"

중령 1 " 같은 대대장 처지에 내가 선임이라고 나만 앞장섰다가 덤터기 쓰면 어떡하느냐? 의견 통일을 해달라 "
중령 5 " 철수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병력이 알고 있지만, 여단장 철수 명령이 없는데 명령 없이 철수했다가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 좀 더 기다려 보자! "
중령 4 " 자들이 기다려주나! 곧 밀고 들어오려고 시동 걸고 있는데 때를 놓치면 우리가 당하는 기라!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이다 〞
중령 1 〞 지금은 목숨이 걸린 상황이라 여기 사정을 모르는 상관의 명령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선임이니 여러분이 뜻을 모아주면 옷 벗을 각오하고 해보겠는데, 일단 명령이 올 때까지 군중을 진정시키려면 저지선을 뒤로 물려야겠다 〞

장갑차와 병력을 90m 더 후퇴한다.
병력, 장갑차 천천히 뒤로 물러선다,

군중 〞 와 이겼다! 와 〞

2차 저지선에서 90m 뒤로 물러선다.
뒤에는 광장이라 저지선으로 막을 수 없다. 병력이 분산되니까
다시 장갑차 2대 270병의 병력이 장갑차 앞과 뒤로 열을 지어 저지선을 만든다

군인과 군중과의 90m의 텅 빈 거리,

시민 문 〞 앞으로 나갑시다. 〞

차츰 눈치를 보며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다시 도로를 메우고,

99 황금동

도청과 가까운 유흥가 겸 주택가
중학생 김 엄마 호기심에 도청 쪽으로 나가본다.
메가폰 잡은 남자가 헌금통을 들고 돈을 걷고 다닌다.

메가폰 남자 " 시민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배가 고프고, 청년들도 모두 배고프니...."
중학생 김 엄마 천원 넣는다.
메가폰 남자 " 아주머니!, 이 돈 좀 세어 주시오!. "
중학생 김 엄마 세어본다
메가폰 남자 " 아주머니 안 바쁘면 이 돈으로 가게에 가서 빵, 치약, 우유, 담배 등을 사서 도청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가져다 줄라요? "

중학생 김 엄마 10만 원어치 물건을 산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다.
혼자서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난처해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술집 아가씨들이 와서 묻는다.

황금동 술집 아가씨 1, 2, 3, 4, 5 " 아줌마! 우리가 도와줘도 돼요? "
중학생 김 엄마 " 그래! 도청 앞으로 가서 나눠 주소. "

술집 아가씨들 물건을 들고 도청 앞으로 바람처럼 환한 얼굴로 달려간다.
드디어 우리도 일이 생겼다.

100 전일빌딩과 YMCA 앞/낮

중학생 김 엄마 생계란. 다섯 판을 머리에 이고 시위대에게 준다.

시위대 " 아주머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져다 줘서 먹었으니까, 저 군인들 좀 가져다주시오. 군인들도 배가 고플 것인디, 먹는가 안 먹는가 한 번 가져다 줘 보시오."
군인들에게 다가간다.
중학생 김 엄마 (조심스럽게) " 이거! 먹을라요? "

슬그머니 내미니 서로 먹으려고 야단이다.

시민 황은 군중과 군대가 너무 멀리 있으면 사격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위대가 탄 군용 트럭을 대열 앞으로 나오게 한다.
차들이 군대 대열 앞에 서서 군인들 장갑차와 마주 본다.
90m의 공간이 4~5미터의 공간으로 줄어든다.

군중 〃 으샤 으샤 물러가라 〃

저지선 앞 지휘관들 방독면을 쓰고 어쩔 줄 모른다.

101 호남동 성당 사제관 /낮

〃 폭력과 무기를 사용하지 말자 〃
〃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명예로운 수습을 하자 〃
〃 학생과 민주인사를 석방하라 〃
보랏빛으로 쓴 플래카드가 보인다.

8명의 신부가 흰색 장백의를 입고 계엄사와 통화한다.

신부 옥 〃 평화적 수습을 위하여 중재를 시도해 보고자 시위대와 군대 사이로 나갈 것이니 발포하지 마세요. 〃
계엄사 " 사제들이 시내에 장백의를 입고 나오더라도 유탄을 맞을 수 있으니 만일의 사태에 책임질 수 없다."

신부들 무거운 분위기

102 금남로 /낮

군대와 군중이 대치하고 있는 사이, 가톨릭센터 앞. 그곳에서는 청년들이 복면을 한 채 신문지를 깔아놓고 화염병을 만들고 있다.

군중 속에서 200여 명의 집단이 움직인다.

화염병을 든 군중들 " 거짓말만 하는 신문사는 불태워 버립시다 "

전남일보 회사 빌딩인 전일빌딩에 화염병을 던지려 한다.

시민 정 " 불 지르지 마세요! 이 건물은 전남 재산이니 그대로 둡시다."
화염병 든 군중들 " 너 프락치냐! "
나이 먹은 시민 " 불 지르지 마세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
외환은행 30대 행원 " 안됩니다! 이 건물에 세 들어있는 외환은행 우리가 뭔 죕니까! 제발 우리보고 참아 주쇼! "

화염병 든 군중이 셔터 문을 부수고 가버린다
도로에 있는 군대는 바라보기만 한다.

군인들 대열 앞 5m에는 군용 트럭 버스, 장갑차 등에 시위대가 탄 채 시동을 걸고 있다.

시민 황 시민 화 중령 1, 2와 만난다.

시민 화 " 5분 남았다!. "
중령 2 " 시동 걸어라! " (장갑차에게)
중령 1 (무전) " 군중들이 점점 더 흥분하고 있다. 철수해야 한다. 여기 부대들이 계속 있으면 다 죽는다. "
본부 (무전) " 철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새끼야 잔말 말고 지켜! "
중령 1 " 사수하라고 명령하는 마당에는 무슨 조처를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

부하들 듣고 있다. 안타깝고, 갑갑한 마음들이다.
전일빌딩 수협 건물 옥상에도 군인 팀별로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다.

103 광주 비행장 특전사 상황실 /낮

특전사령관 " 언제 들어갑니까? "
20사단장 " 시민들 저항이 심해서. 들어갈 수가 없소. "

특전사령관 당황하고 무능력한 정신적 공황 상태.

104 전일빌딩과 Y.M.C.A 사이 3차 저지선

시민 문은 금남로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군중을 이끌고 있다.
점점 군중이 늘어나면서 흥분되고 있는 군중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시키면서 군대는 물러갈 수밖에 없으니 더 기다리자는 쪽으로 시위를 유도하려고 애쓴다.
밀어 버리자는 함성과 자제를 호소하는 소리가 뒤섞여 와글와글
양측의 차들이 모두 부릉거리는데,

군중 " 와 와! "
군중 " 뭘 기다리냐? 밀어 버리자 "

금남로로 통하는 전일빌딩 골목에서

시민 문 " 질서! "
군중 " 질서! "
군중 " 기다리자! "
시민 황 " 자제! " (두 손을 흔들며)
군중 " 자제! 앉자! "

대열 제일 앞쪽에 있는 트럭, 장갑차 운전사들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시민 남, 시민 화 " 신호에 따라 함께 나가자! "

이 트럭, 저 트럭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말을 주고받으며 행동 통일하자고 입을 맞춘다..
이 모습을 지휘관들 앞줄 병력이 다 보고 있다.
트럭 위 지붕에 앉아서 두 다리를 덜렁거리며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 세는 자신이 자랑스럽다.
시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있는 순간에 기쁨이 차오른다.
앞이 훤히 잘 보이는 명당을 차지한 행운에 감사하다.

5시간 마주 보고 있던 군중과 군대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상호 간의 탐색 끝에 이루어진 느리지만 힘 있는 충돌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충돌을 보여준다.
군중은 숫자만 믿고 있고, 군대는 총만 믿는다.
군중은 군대가 총을 쏘리라고는 믿지 않고, 군대는 군중이 밀고 들어 오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후 군중 일부에서 군대에 화염병 공격을 하고, 군대 일부가 사격하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군중과 군대가 충돌하는 장면은 시간순이라기보다는 반응이 반응을 부르는 이어지는 과정이면서도 동시 발생하는 뒤죽박죽이기도 하다. 카운터 펀치 같은, 서로가 준비된, 즉각적인 연쇄반응

군중 사이에서 과격한 무리가 군대가 약속한 시각 내에 물러가지 않는다면서 군중의 힘을 배경 삼아 군대에 화염병과 돌을 던진다.

군대는 어제는 최루탄을 쏘며 달려들어 흩어지게 했지만, 이 순간에는 그렇지 못하다.
군대는 더이상 싸울 의지가 없이 사기가 떨어져 있다.

군인들도 후퇴의 신호가 서로 없었고, 10m 뒷줄에 있던 병력은 느리게 반응하다 군인 장갑차에 깔린다. 시신 위로 시위대 장갑차 버스 트럭이 지나간다.

장갑차 보고 "차 빼!" 했던 중령 2는 일병 권이 군인 장갑차에 치여 죽는 것을 본다.
군인들 도망가면서 일병 권이 장갑차에 깔리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본다.
멀리서 보는 사람에게는 시위대 장갑차 차량이 지나간 후에 쓰러져 있는 군인을 본다.

카메라는 가까운 군인의 눈으로도 보고, 멀리 있는 관찰자 눈으로도 본다.
하나의 사건이 두 개 화면으로 다르게 보이는 게 자연스럽게

105 전일빌딩과 Y.M.C.A 사이 저지선

화염병 3개가 장갑차 위로 옆으로 떨어진다.

중령 2 (지휘봉 흔들며) " 차 빼! "

중령 2가 지휘하는 대대에 배속된 장갑차 1대가 후진한다.
수많은 군중과 차들 앞에서 오로지 장갑차만 믿고 있던 병력이 뒤돌아보며 힐긋거린다
장갑차를 후퇴시키다니
뭐야! 후퇴인가
돌멩이가 날아들고 시위대 차들이 밀고 들어올 태세인데 장갑차가 뒤로 빠지는 걸 확인한 병력 동요한다.
본능적으로 최루탄을 던지고, 물러서는 병력,
최루탄과 돌멩이 동시에 교차한다.
군대 당황하여 머뭇거리고 최루탄을 던지고, 시위대 옳다 됐다 싶은 얼굴로 돌을 던지며
와 와 와 와 군대가 뒤로 움직이자 군중도 앞으로 움직인다.
차들 경적을 울리고, 와 와 와
군중은 최루탄이 터져도 흩어지지 않고 군대 저지선 대열이 비운 공간을 차지한다.

1, 2장면을 한 화면에 담는다.

1 장면
군대 대열이 혼란 속에 무너지면서 뒷걸음치며 돌멩이를 맞거나, 시위대 차량이 밀려들 것을 알고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는 모습

2 장면
군인들이 도로로 올라선 후에도 군중들은 군인들을 잡거나 때리거나 상대하기보다 드디어 도로를 통해 광장으로 간다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

썰물처럼 빠지는 군대와 밀물처럼 들어오는 군중들 순간 광장은 시위대의 차지가 된다.

군중은 오로지 광장으로 나가는데 신나 있고, 도로에서 저지선 대열을 이탈하여 인도로 올라선 군인들은 무시한다.

1, 2장면을 한 화면에 담는다.

1 장면
장갑차와 떨어져 뒤에 있던 병력 중 무전기를 메고 있던 새내기 일병이 장갑차의 후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장갑차를 피하지 못하고 다리부터 머리까지 장갑차 바퀴 밑에 깔린다. 다른 병사 한 명은 다리가 치이면서 걸을 수 없다.

2 장면
시위대 버스, 시위대 장갑차, 트럭이 연이어 광장으로 들어간다.
수많은 사람과 함께 들어가서 속도는 느리다.
군인을 차량으로 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광장을 차지하는 게 목표이므로 군중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와! 하고 쫓아가는 사람, 경적을 울리며 운전하는 사람, 기세를 올리며 성난 파도 같다.
죽은 병사 위로 시위대 차들도 지나가고, 시민들도 죽어있는 군인과 쓰러진 군인을 보면서 앞으로 밀려간다.
군중은 뒤에서 미는 힘으로 밀려간다.
멈출 수 없다.
파도처럼
밀물처럼
뒤에서 미니 나가는 군중 물결
군중 물결은 1가에서부터 5가까지 있다. 1킬로에 걸쳐 운집해 있는 10만 군중

다시 하나의 화면으로
1차 사격
군대들 뒷걸음치며 헬멧이 벗겨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먼저 도망가는 분위기이다.
일찍 도망간 병력은 도청 안과 노동청 쪽으로, 조금 늦은 병력은 담벼락까지
광장의 반 이상을 시위대가 차지하고,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간 병력이 분수대 쪽으로 집합이 안 되어있을 때

두 집단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지만, 충돌은 없을 때 장갑차의 기관총 사수가 달려드는 군중 머리 위로 사격한다.
가로수 잎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타당 탕 탕 총소리가 신호가 되어 실탄을 가진 장교들은 앉아 쏴 사격 자세를 잡는다.

1, 2, 3 동시 상황

군인들 아스팔트 바닥을 향해서 사격한다 튀어 오르는 총탄에 시위대 쓰러진다(갈기는 총소리가 아닌 몇 방의 총소리).
군중들 반응 제각각이다.

1. 장면
총소리 이게 뭐야! 다른 사람을 서로 본다.
광장으로 밀려든 군중은 거대한 물결처럼 뒤에서 앞을 밀고 오듯이 와서 앞에서 멈춘다고 멈춰지지 않는다.

앞에서 실탄 사격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는 여전히 밀고 온다.

군중 뒤쪽 사람 " 공포탄이다! 물러서지 맙시다! "
앞에 선 군중 " 물러서라! 진짜 총 쏜다! "

누군가 쓰러지고, 피 흘리는 순간 누군가 도망가고, 다른 사람도 따라 도망가고 모두 도망간다.
넘어지고 엎어진 사람을 밟으면서 도망가려고 쥐구멍을 찾는 듯한 눈빛

2. 장면
총소리에 놀란 방석모 쓴 경찰들 몇 명도 시위대 쪽으로 달아난다.

3. 땅바닥에 엎드리는 꼬마애, 사격하면 엎드리고 사격이 없으면 달려가고, 보는 사람 애가 탄다.
재주 좋게 잘 벗어나서 광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 손뼉을 친다.

한 화면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사격하는 부하들에게 외치는 장교

소령 3 " 이 개새끼들 똑바로 조준 사격 안 하냐!"

1, 2 동시 상황

시위대가 탄 차 운전사는 광장에서 나갈 길이 안 보인다. 노동청 쪽 도로는 불탄 차들에 가로막혀 있고.

1. 노동청쪽 방향으로 20여 명 시위대를 태운 관광버스 집중 사격을 받고 멈춰선다.

2. 광장에서 전남대학교 병원 쪽 길로 사라지는 시위대 장갑차 (이 길은 병력이 없다)

하나의 화면으로 되돌아온다.

장갑차 문이 열리고 탄창이 꼽힌 띠와 탄박스를 군인들에게 건네준다.
군인들 탄박스를 받아 탄창에 실탄을 끼운다.
동작이 민첩하다.

도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자리를 잡은 저격수들
금남로에 있던 군용 트럭 위 지붕에서 태극기를 흔들던 사람 쓰러지고, 트럭 운전사, 조수석에 있는 사람 저격당한다.

상반신 이상, 특히 머리에 일발필중의 사격 솜씨.

저격수 " 셋 " 탄피를 세워 놓는다.
명중시킬 때마다 센다.

106 광주경찰서 앞

시위군중 쪽으로 도망 온 경찰이 경찰서 앞에서 쉬고 있다.

시민 8 " 뭔 일이다요? "
도망온 경찰 " 발포 명령입니다! 얼른 집으로 가쇼!"

107 광장

병사들이 분수대 주변으로 모인 후

1차 사격 후 군중이 물러나고, 군인들은 도로에서 죽은 병력을 장갑차로 끌어 올리고, 장갑차에 다리가 깔린 부상자도 부축하여 데려오고, 시위대도 부상자를 끌어내는 등 잠시 각자의 필요에 따른 휴전 분위기 "일병이 죽었다." 는 말이 병력 사이로 퍼져 나가며 눈빛이 달라진다.

108 성당 사제관 / 낮

금남로가 가까운 성당
신부 1이 금남로 분위기를 보려고 성당을 나서다 헬기에서 불빛이 50㎝에서 거의 1m 정도로 쭉 뻗는 광경을 보고 '드드득' 세 번이나 갈기는 기총사격 소리를 듣는다.

혼비백산한 신부 1은 반사적으로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서 헬기를 응시한다.
순식간에 헬기는 공원을 넘어 사라진다.

신부 1은 너무도 놀라 가슴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려 성당을 나서지 못하고 사제관으로 되돌아간다.
다른 신부들도 기관총 소리에 매우 놀라 밖으로 나오면서 겁먹은 표정으로 묻는다.

신부 옥 " 웬 기관총 소리냐? "
신부 1 " 헬기에서 기총사격한 소리다. "

신부들 두려운 얼굴로 미사 예복을 벗고 말없이 흩어진다.

109 금남로 주변 골목

군대 사격에 대한 시민 반응으로 여기저기서 총! 총! 을 외치는 소리와 총 맞은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움직인다.

1, 2를 동시 화면으로 보여준다. 대표적인 대사만 한 번씩 들린다.

1 화면
도망쳐 온 시위대가 이걸 어째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데

시민군 장 " 여러분, 얘기 좀 합시다. 저는 학운동 예비군 중대장인 우장문이는 사람입니다. 현재 무차별 발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돌멩이나 각목 따위로 싸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무기를 가집시다. "

20~30명의 청년들이 모여든다.

시민군 장 〃 시내의 각 파출소, 경찰서 그리고 방림동에는 중대에 보급할 수 있는 병기창고가 있습니다. 일신방직, 전남방직, 화순, 나주 등지에도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경찰서에서는 이미 무기를 숨겨버렸을 것입니다. 화순탄광, 나주 등지에 무기가 많이 있을 테니 모두 무기를 가지러 갑시다. 총을 가져온 후에 곧바로 광주공원에서 모입시다! 〃

청년 1 〃 나주로 갑시다! 〃
무리 〃 갑시다! 〃
청년 2 〃 화순으로 갑시다! 〃
무리 〃 갑시다! 〃

2화면
총소리가 이따금 난다.
헐레벌떡, 분수대 광장에서 도망 온 흥분한 군중들 속에서

시민 남 〃 사람한테 총을 쏘네! 〃
시민 아 " 총! 총! 총이 있어야 돼! 〃

110 도청/낮

부지사, 국장들 10여 명 안절부절

부지사 〃 이 일을 어쩐다요 〃
기획실장 〃 애국가를 틀어봅시다! 양쪽이 동작 그만할 거 아니요? 〃

죽고 사는 순간에 공무원들이 애국가를 틀면 모든 동작이 그칠 것이라고 상상해 보았다는 것이다.
그때는 그랬다.
오후 5시만 되면 애국가가 나오고 모든 차량, 보행자의 동작이 정지되었다.
일본강점기 때 정오 사이렌과 함께 천황에 대한 묵례가 있었던 것대로였다.
공무원들은 그것을 상상했다.
긴장하고 있는 시위대나 군인에게는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한다.

111 분수대 근처 상무관/오후

다시 모인 대대장과 지역대장들 20여 명

중령 2 " 상황이 위급하니 철수를 하자 "
중령 4 " 군중을 물리쳤으니 이제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니 교체 병력 올 때를 기다리자."
중령 1 " 교체 병력 오기를 기다리다간 더 험한 꼴 보게 생겼소. 시위대가 없을 때 조선대 학교로 나가는 게 좋겠소"
중령 4 " 이미 피는 봤다. 아이요! 이왕 늦었으니 기다려 봅시다. 지시가 있겠지. "
중령 3 " 애들이 흥분하면 사격 통제가 안된다. 시위대도 지금은 잠잠하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하고 좀 무섭다! "
중령 1 " 월남 갔다 왔지만 이런 건 못 겪었다. 무섭다! 총질은 한번 하기가 어렵지, 통제할 일이 큰일이다! "
중령 2 " 병력이 죽어 불었는데, 흥분한 놈들 통제할 수가 없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112 분수대 광장

2차 사격
사격장면을 눈으로 보지 못한 시위대(많은 시위대가 흥분하여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탄 버스, 퉁탕거리며 구호를 외치며 군인들에게 달려든다. 시위대는 군인들이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군인들은 사격으로 군중이 사라지자 분수대 주변에서 오랜만에 편하게 쉬고 있다.
분수대 물로 씻는 병사.

1, 2 화면 분할

애국가 방송하는 공무원들과 사격하는 군인들

1 화면 애국가를 틀어주려는 공무원들

2 화면 총소리에 겁을 먹은 트럭 운전기사가 차를 멈춘다.

시민 C " 공포탄이다! " (강력하게 확신을 심어주는)
시민 D " 가자! "

금남로 몰려 있던 트럭들이 뒤로 후진한다.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도청을 향해 속력을 높여 돌진한다.
트럭이 움직이자 멀리서 군인들이 사격한다.
운전석에 총알이 쏟아진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트럭 멈춰선다.
트럭 위에서 총 맞은 사람, 뛰어내려 도망가다 총 맞은 사람들, 총 안 맞고 도망간 사람들

회의 중 총소리에 중령 1, 2 뛰어나오며

마치 옛 전장에서 횡대 무릎쏴 자세로 공격하는 듯한 자세로 일제히 분수대 앞에 포진하여 응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중령 2가 놀라서 총구 앞으로 나서 총구를 발로 걷어차면서 외친다.

중령 2 " 사격중지! 고만! 됐다!"
중령 1 " 사격중지!" 중대장들 엉덩이를 걷어찬다

군인들이 정신없이 총 쏘므로 말로 해서 소용없다.
군중이 멀리서 있는데도 군인들이 사격하므로 중령이 사격중지를 시킨 것이므로 거리감을 관객에게 보여준다.
카메라 총을 쏘는 군인들의 계급이 소령 대위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카메라는 총이 아닌 총을 쏘는 사람을 잡을 것

113 나주, 도로, 탄광

1, 2, 3, 4. 화면 분할로 동시 장면

1 장면
시민 남, 시민 3이 탄 버스는 미친 듯이 무기를 찾아서 떠난다.
차에는 시신이 실려 있다.
차를 타고 온 시민들도 붕대에 피가 묻어 있고, 미친 듯이 본 것을 말한다.
나주 시내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하며 빵과 음료수들을 실어준다.
청년 두 사람이 버스에 올라탄다.

시민 3 " 공수부대가 총을 쏘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기를 구해서 싸워야 합니다."
나주 청년 " 경찰서에 무기가 있다! "

경찰서로 안내한다
먼저 도착한 시위대가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꺼낸 다음 나누어 주고 있다.
M1 소총, AR 소총, 카빈총, 실탄, 수류탄 등을 주는 대로 싣고 광주로 바람처럼 달려간다.

2 장면
광주로 가는 도로에는 수많은 차가 시민들을 가득 실은 채 광주로! 광주로! 달려가고 있다.
이심전심으로 빠르게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급하게 움직이는 액션을 보여준다. 바람처럼~, 미친 듯이~는 말 그대로이다. 총을 구하고 쏘려는 그 몰입을 보여준다. 흥분과 복수의 마음으로 일치된 군중 말할 시간도 없다. 차에서 차로 총을 건네고

3 장면
흥분한 데다 운전 미숙으로 시위대 트럭이 넘어져 있고 부상자도 있다.

4 장면
탄광 직원들이 급하게 다이너마이트를 옮기고 있다. 계엄사로부터 폭발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이다.

무장 시위대가 바람처럼 광업소에 도착한다.
다이너마이트를 트럭에 실어 옮기고 있는 광업소 직원들에게

무장 시위대 1 (총을 들이대며) " 다이너마이트 좀 씁시다! "
광업소 직원 " 다 가져가더라도 불만 지르지 마쇼! "

트럭에 옮겨 싣는다.

도청 앞에서 총 맞은 사람들은 아무도 총 맞아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없이 총을 맞고 쓰러진다.
차를 타고 시위하던 시위대는 군인들이 총을 쏘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총소리를 듣고서도 공포 사격이라고 생각하고, 너도나도 시위대 대열 앞에서 군인들을 몰아내는 데 앞장서고 싶어 했다.

시위에 재미를 붙인 채 얼싸 덜까 하며 그 분위기로 도청광장에 나타났다.
사격할 것을 알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광장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다.
차를 탄 시위대는 신나 있었고, 금남로에 늘어선 긴 대열에서 우리는 언제 앞장설 수 있을까 기다렸는데, 마침 들어갈 길이 열리자 들어간 것이다.
" 도청으로!" 가자는 구호로 도청에 도착한 시위대는 마침 총격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미처 실감할 수 없었다. 흥분은 가라앉지 않은 채, 옆 사람이 죽고 쓰러지고서야 아! 진짜구나! 사람 죽인다고 느낀다.

광주 전남 일대 도로는 차를 탄 시위대가 흥분하여 돌아다니고 있다.

태극기를 흔들었던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에 흔든 것이다.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이 주동자로 사격 목표가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아무도 거리에 나서지 않는다.
그렇게 군인이 사람을 보이는 대로 죽인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말도록 거리 통제하면서 거리는 조용해진다.

군인들이 총을 쏘기 전까지 군중들이 자신의 힘에 즐거워하며 얼마나 축제 분위기였는지를 모르면 왜? 이렇게 총을 쏘는데도 달려들까를 알 수 없다.
군중이 어마어마한 힘을 보이는 데서 느꼈던 감동은 오래갔다.
그 열기는 총소리 속에서 쓰러지면서 죽어가면서 식어갔다.
열기가 높았던 만큼 열기가 식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114 도청광장 주변 건물 옥상

광장에는 군인들이 없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장갑차만 도로를 막아서고 기관총을 겨누고 있다.

거리는 고요하다.
저격수 조준경으로 사격한다. 정확하게 맞추고 나서 탄피를 세운다.
저격수 " 여덟! "

1, 2, 3. 화면 분할

1. 쓰러지는 사람
2. 두리번거리며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 모르는 사람
3. 건물 옥상을 바라보고 알아챈 사람

다시 한 화면

시위대 장갑차가 도청을 향한다.
장갑차에서 웃통을 벗은 채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에게 사격이 집중된다.
머리에 총 맞고 얼굴이 없어진 채 장갑차 위로 엎어진다.
장갑차 운전사는 전남대학교 대학병원 길로 도망간다.
광장 근처 건물 4층에서 몸을 내밀고 장갑차에서 몸을 드러내고 태극기를 흔든 청년을 바라본 사람 저격으로 사망

115 금남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간 뒷길

학생 B 친구들과 경상자들을 업고 동구청 뒤의 의원으로 달린다.
부상자를 의원에 내려놓은 뒤 현관에서 밖의 동정을 살핀다.
여고생 한 명이 위에는 교복을, 밑에는 흰 체육복을 입고 지나간다.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을 맞고 여학생이 쓰러진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온 줄 몰라 한참 지난 뒤에 쓰러진 여학생을 의원으로 데려와 살펴보니 이미 숨진 후다.
학생 B 눈물이 흐르고

116 서점/낮

도청에서 가까운 곳, 총소리가 들린다.
좁은 방안에서 조직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한다
학생운동권은 비상계엄이 되면서 지도자 중 일부는 잡혀가고,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다. 광주사태의 엄청난 전개에 당황하여, 18, 19, 20일의 튀밥 튀듯 커지며 여기저기 불을 지르며 해방감을 맛보는 군중들의 폭동화에 불안해한다. 늘 정해진 조직으로 움직이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하고 평가해왔던 운동권은 민중의 폭발적인 저항과 무장에 당황하여 판단 마비 상태이다. 통제할 수 없는 군중과 같이 휩쓸릴 수 없다는 생각이다. 언젠가 일이 끝나면 이 모든 덤터기는 운동권의 책임으로 물어질 것이란 예감에 두렵다. 앞날에 대한 계산 없이는 움직이지 말자

동지들이 바카스 병으로 화염병을 만들고 있는데 시민 11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시민 11 " 총을 쏘고 있소! 화염병 만들어봐야 인자 소용없소! 여그도 조사하러 올테니, 정리 합시다."
시민 영 " 공포 아니였어! "
시민 11 " 조준 사격이여! 금남로가 피바다여! 사람들이 싹 흩어져 불고 총 가지러 간다고 흥분해 있소 "
침묵.

시민 윤 〃 이야기 좀 합시다 〃
침묵

시민 정 〃 승리의 전망과 계획도 없이 사태에 끌려가지 말자. 책에서나 읽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나로서는 판단 능력 밖이다. 감당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싶지 않다.〃

시민 을 〃 일이 이렇게 커진 이상 나중에라도 피해는 모두 운동 조직이 입게 될 것잉께!.〃
시민 11 〃 잡혀간 사람만으로도 조직의 피해가 큰데 남은 역량을 잃으면 안되재 〃
시민 병 〃 지금 우리의 힘은 약하니 길게 보고 대응해야 하자.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자 "
시민군 정 " 잠시 더 관망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하자, 자칫 잘못하면 개죽음을 당하니 일단 이 상황은 피하자. 시골로 갈란다."

시민 윤 〃 시민들이 총기를 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화력이 모자라니 계엄군을 이길 수 없다. "

시민군 정 " 순간의 분노에 생명을 맡기면 안된다. 살아남는 게 비겁한 게 아니다. 각자 몸조심 하자 "
시민군 현 " 이곳도 너무 위험하다. 광주에서 나가야 한다! 〃
시민 윤 〃 남아서 돌아가는 것을 더 보고 숨겠다. 〃

전화

시민 11 〃 상무대에서 화정동으로 군 트럭이 움직인다네! 〃
시민 윤 〃 흩어져서 각자 숨을 곳을 알아보고 살아서 만나자!〃

포옹하며 헤어진다.

117 도청 안

군인들은 트럭으로 시위대 차량이 광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 놓고 시위대의 접근이 없어 도청 안에 들어가 쉬고 있을 때, 작전 나오기 전 일이 꿈만 같다.
일병 목 회상

118. 부대 내무반

1979년 12월 30일경 종무식

하사관 3 〃 날이면 날마다 데모 진압 훈련만 하니 짜증 난다. 천리 행군이 힘들긴 해도 재미는 있지! 〃
하사관 4 〃 코앞에 있는 집에 가본지가 언제고! 〃

하사관 5 〃 박정희 대통령 죽어불고 나라가 시끄러운 이럴 때 북괴만 적이 아니고, 나라 안 빨갱이들도 잡아야 하는 거라! 〃
하사관 6 〃 그렇께 우리가 나라의 기둥이재! 민간인들이 정치하면 나라가 불안하 당께! 〃
하사관 7 〃 부마사태 때는 3여단이 강께 조용해져 부렀다등마! 〃
하사관 8 〃 나갈라믄 언능 나갔으믄 좋것네! 우리사 시내 나가믄 그거이 휴가지 뭐 휴가나 마찬가지 아니겄어! 〃

중대장 〃 대통령 유고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에 시위 진압 훈련으로 고생 많았다. 3일간 휴가다. 〃

중대장 (웃는 얼굴) 〃 〃

부대원들 〃 뭔교? 뭔데 예? 뭐다요? 뭣 이다요! 〃
중대장 〃 새해부터는 200%의 봉급과 500%의 점프 수당 인상한다! 〃
〃 회식비 400만원도 있다 〃

부대원들 " 예? 와! 〃
하사관 5 " 내 인생도 피는구나 ! "
일병 목 " 제대할 때쯤이면 목돈이 되겠는데요 "

118-1 강당

3여단 부대장의 강연
필름을 보여주면서
〃 군중을 다룰 때는 앞장서는 놈 끝까지 추격해서, 기를 죽여놓아야 군중이 흩어진다,
군중심리라는 것은 강한 쪽에 붙으니까 처음에 무자비하게 타격하고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 우리만 보면 무서워 도망가도록 힘을 보여야 한다 〃

119 광장 /낮

헬기가 연이어 뜨고 내리면서 사망. 부상자, 서류를 실어 나르고 있다
금남로 방향에는 군용 트럭을 세워 놓아 차량 접근을 막아 놓았다.
군대는 주변 건물에서 쉬고 있고 장갑차 기관총 사수만 도로를 노려보고 있다.

120 광장 주변

1, 2, 화면 분할

1 장면 전남병원 로터리 오거리 앞 /오후
군용 트럭 3대에 30~40명의 시민군이 트럭 양편에 앉아 있다. 그들은 시민들이 몰려들자 차를 멈춘다. 지원동 탄약고에서 무기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모여든 시민들에게 총을 나눠준다. 서로 받으려고 하고, 아무

에게나 나누어 준다.

시민군 " 시민 여러분! 총을 듭시다! "

청소년들 예비군들 서로 손을 내민다.
전남대학교 오거리에 시민군들이 도로에 무기를 내려놓는다. LMG 2정이 있다.

27살 청년 LMG 사수 " 내가 LMG 사수였다 "
도청 쪽으로 총을 3발 쏜다.
그 총소리에 이전까지 도청에서 계속 들렸던 총소리가 뚝 그치고 시내는 고요해진다.
그때 무등산 쪽에서 군용 헬기 3대가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상공을 선회한다.

LMG 사수 " 저 녀석도 한패니 쏘자! "
20사단 중령 고 " 기관총 사격 받았습니다! "

총에 맞은 헬기는 비틀거리면서 송정리 쪽으로 날아가고 나머지 2대의 헬기는 아주 고공으로 비행한다. 20사단에서 공수부대와 교체할 병력을 헬리콥터로 도청광장에 실어나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던 중령 고가 사격을 받고 헬기로 병력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한다.

2 장면 광주공원 /오후

도청 주변에서 쏘는 총소리가 들린다.
시위대 차량과 무기들로 와글와글하다.
쌓여있는 총들, 수류탄들,
남자라면 총을 든다.
중학생 고등학생 ....
시민군 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시민군 장 " 여러분 나는 우장문이라고 합니다. 무기를 통제할 테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버스를 타주세요!."

버스에 탄 나이 어린 시민군들 속에 몇 사람의 제대 군인들, 어린 학생들이 수류탄 고리에 줄을 매달아 달고 있다. 고리가 빠지면 터진다.

시민군 장 " 군대 갔다 온 사람 손 좀 들어주세요 "

세 사람 손을 든다.

시민군 장 " 나머지는 수류탄에 손대지 마시고, 세 사람이 수류탄을 모아 주세요. "

공원 광장 넓은 곳에서 시민군 장이 시민들에게 사격 연습을 5발씩 시킨다.
건달 시민군 1, 2도 보인다

솜씨가 있는 사람 특공대가 된다.

121 금남로 /낮

정적 속에서 시위대 카빈총 총소리가 들리고, 공수부대 M16 소리가 들린다.
텅 빈 거리에 시위대 총을 들고 나타난다.
전일빌딩, 수협, 도청 옥상에서 사격하는 저격수들 사격한다.

1, 2, 3, 4 장면 동시에 보여준다

1. 광장 건너편 건물 5층에서 사격하던 사람이 머리에 총에 맞아 건물 밖으로 떨어진다.
2. 건물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50대 남자 가슴에 총을 맞아 즉사한다.
3. 시민군 총에 맞고 쓰러지고, 총 안 맞은 시민군도 사격할 엄두를 못 낸다.
4. 금남로에 나타난 시위대 장갑차에 탄 시민 남도 기관총 사격을 받고 뚜껑을 닫고 후진하여 도망간다.

고개도 못 내밀고, 엄폐물 뒤에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어디에서 총을 쏘는지도 알 수 없다.
엄폐물 주위로 총알이 날아든다.
시민군 카빈총 소리 점점 더 자주 많이 들린다.
다른 곳에서도 쏘고 있다.

122 전남대 병원 옥상, 도청광장

1, 2. 화면 동시 상황

1 장면 도청 뒤편 전남대 병원 내/ 저녁
시민군 특공대 여럿이서 기관총을 들고 올라간다.
흥분한 무리가 거칠게 병원으로 들어온다. 직원 망연히 바라본다.
도청을 향하여 내려다보며 기관총을 겨냥한다.

2 장면 도청광장
시민군 특공대 도청을 향하여 지프 타고 들어간다.
옥상의 저격수 운전기사를 저격한다.
운전석 옆에 시민군 특공대가 운전대를 잡는데 차는 분수대에 부딪히고 뒤집힌다.
광장을 기어서 도롯가로 나오는 시민군 특공대 손이 군홧발에 밟히고, 칼에 찔린다. 의식이 가물거린다.

공수 지휘관 " 철수한다! 우리가 마지막이야! 시체! 빨리 실어! "

123 적십자 병원

야전병원처럼 도청 광장 부근에서 총 맞은 사람들이 가까운 적십자 병원, 전남대 병원으로 몰려들어 난리인데 중학생 김 엄마도 아들이 총 맞고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말만 듣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중이다.

병원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쓴다. 시체를 운반하는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한다. 시민들이 시체를 트럭에 싣고 와서 병원으로 옮기고 나면 트럭 짐칸에 피가 흥건히 고여서 씻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 트럭에 싣고 온 시체를 내리고 나면 바께쓰로 물을 부어 피를 청소하고 다시 나가 또 시체를 싣고 온다.

시민 준 〃 의사, 간호원 일손이 부족한 판에 부모들이 들어가서 난장판을 치면 환자들을 돌볼 수가 없다고 병원에서 보호자들 막아달라고 시켜서 막고 있소!〃
수위 " 당신들이 수선을 떠니까 부상자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간단 말이오."

수위는 몽둥이를 들고 못 들어가게 한다.
중학생 김 엄마 하도 서러워서 적십자 병원 앞에 있는 나무를 잡고 대성통곡을 한다.

124 전라남도 경찰국

도청과 같은 구내이면서 별도 건물인 도청 뒤쪽에 있다.
총소리가 나면서 누구 총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다.
공수부대 M16보다 시민군 카빈총 총소리가 더 많이 가깝게 들리자 더 무서워하는 경찰들.

구내 방송 〃 전 직원 대피하라! 〃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르르 먼저 옷도 벗고, 모자도 벗고 달아날 준비 한다.

전경 남 〃 니 집이 여그 아이가 느그 집에 날 좀 숨겨도라 〃
전경 전 〃 상경님은 사투리가 거세서 ……〃 동료들 따라가 버린다.

1, 2, 3, 4, 5, 6. 화면 동시 상황

1 장면
도청 주변 주택가 총소리가 가깝다.
도청 뒷담을 넘어 도망가는 경찰, 도청 공무원들 주택가로 들어간다.
골목에는 죽은 시민이 있다.

전경 〃 숨겨주세요! 〃
주민 숨 〃 들어가세요. 〃

반지하 같은 연탄 창고로 들어가니 도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2~3명과 경찰복을 입은 사람 4~5명이 있다

2. 장면
부지사 도청 직원들도 도망간다.
담 넘다 장독을 깨트리고 빠지는 사람
밀어주고 다니고 서로 도우며 도망간다.

3. 장면

어젯밤, 광주가 불타오른 후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도청 주변에 피난 간 집이 많다.
주인 없는 집을 마구 뒤져 아무 옷이나 군복 대신 입는다. 아래는 운동복, 위에는 양복, 아래는 운동복 위에는 잠바.....
군화를 벗고 아무 신발, 슬리퍼를 걸친다.

경찰 9 " 돈 좀 빌려 도라"
기동대 6 " 이 사람아! 이 판국에 돈이 어딨어!"

4 장면
경상도 경찰 머리 위로 총소리를 들으며 어느 가정집 앞을 기어간다.
대문 틈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는 여자 3의 눈과 딱 마주친다.

경상도 경찰 그 집으로 뛰어들며 " 숨겨 주이소! ".
총소리가 연이어 들린다.

주민 겨 " 안된당께! "
경상도 전경 " 숨겨주이소! 살려 주이소! " (매달린다)
주민 겨 " 이 방으로 들어오쇼 내 동생이라고 할텐께! "
경상도 전경 " 첫째 경식이, 둘째 영동이, 셋째 영복이. "

경상도 경찰 이불을 둘러쓴다.
벌벌떨며 가짜 형제들 이름을 열심히 외운다.

5장면
전경 F 여자 슬리퍼에 여자 드레스도 입고 걸어간다
전경 V. 겨울 잠바를 하나 걸쳤는데 기장이 형편없이 짧다.
경찰은 무질서하게 허둥대면서도 모두 아무 사고 없이 도망간다.

주민 주 " 전경이지라! 꼬라지가 그래가꼬 해서 어디를 가시오 들어오쇼 "

팔을 잡아끈다. 갈아입을 만한 아들이 입던 옷, 신발을 준다.
이것을 본 옆집 사람도 따라 하고
이어지는 선행들, 숨겨주고,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2000명 모두 무사하다.

6장면
잡혀 온 시민들 지하실에 있다가 총 소리와 " 전 대원 피신하라 " 소리 듣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도망 대열에 낀다.

125 조선대학교 운동장 / 7시 30분

도청에서 걸어서 조선대학교 운동장으로 철수한다. 1200명이 걸어간다.

조선대학교 도착하자 모든 병력에 실탄이 배급된다.
중령 1, 2, 3, 4, 5 지역대장 20명
행정병이 지도를 나누어 준다.
중령 1 " 도로에 매복이 있어 차량 이동을 피해서 산을 넘어간다. 재집결지는 지원동 주남마을이다."

수송부대는 라면박스에 흙을 담아 트럭 양옆에 쌓아놓고 메트리스를 세운다.

126 지원동가는 길

군대 차 방송 " 모두 집으로 들어가 꼼짝말고 있어라 "

127 도청, 조선대학교

공수부대는 산으로 가고 수송부대는 살림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간다.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수송부대가 도로를 지나가다 시민군에게 사격받는다.
도청과 조선대학교에서 살림을 챙기고 있는데, 시민군들 도로가 건물에서 사격 위치를 잡고 있다.

1, 2, 3 장면 동시 상황

1 장면
군대가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민군은 총을 가지고 지원동 쪽으로 가는 도로 옆 건물에 들어간다.
70명씩 두 곳, 숭의실업고등학교 옥상에서 총을 겨누고 있다가 군대 차량이 지나갈 때 사격한다.

2 장면
장비와 부식을 싣고 떠나는 수송부대 서두르면서 장비 일부 챙기지 않고 장갑차를 선두에 세우고 차들 철수한다.
장갑차가 운동장 둘레 여기저기에 무차별 마구 사격한다. (학교 주변 주민들과 아이들,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을 향해 계속해서 사격)

장교 " 철수! 가자! "

시민군은 건물에 숨어있어 계엄군에게 안 보이고, 군인들은 도로 위 트럭에 있어서 사격하기 좋은 목표물이다.
시민군 캐리버 50의 총구가 거리를 겨냥한다.
.
차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갑차가 두 차례 고속으로 왕복하면서 길가에 사격한다.
무서워서 정신없는 운전, 가게 앞에서 장갑차에 깔려 죽는 사람, 장갑차가 오토바이를 부딪치면서 죽고 다치는 시민, 트럭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치고 가는모습
질주하는 트럭 6대 장갑차 2대 지프 .....

군인들은 조준 없이 난사한다.
군대 살림살이를 싣고 후퇴하던 트럭 3대가, 골목에서 몸을 숨긴 시민군 사격을 받고 운전기사 총에 맞고

차량이 넘어지면서 다리 밑 개천으로 굴러떨어진다.
운전사 즉사하고 옆에 앉은 군의관 놀라서 정신이 나간다.
군인 5명이 관통상

3 장면
병원은 밀려든 총상 환자로 야전병원이다.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

도청에서 전남대 병원을 지나서 화순으로 도망하는 트럭에 탄 병력, 트럭에서 전남대 병원 향해서 사격하며 후퇴한다. 트럭 짐칸 양옆에 군장을 세우고 숨어서 연속 사격, 조준 없는 무차별 사격, 차량은 도망가기가 더 바쁜 상황이다.

3 장면을 클로즈업하면서 병원 안 사람들 반응을 보여준다.
카메라는 병원 여기저기를 동시에 비춰 준다.
같은 시각, 다른 장소 발생 사건이므로
2층부터 11층까지 총알이 건물 전체로 날아든다.

총소리에 대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

반응 1 총소리가 나자 의사들 바닥에 엎드린다.
반응 2 총소리에 밖을 내다본 의사 얼굴 옆으로 총알이 날아간다.
반응 3, 1층 응급실 매트리스를 창문에 세워둔다.
반응 4 수술 중인데 총알 한 발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천장에 박힌다.

128. 조선대학교 뒷산

군인들이 죽일까 봐 사람들 10명 숨어있다.
전투경찰도 1명 있다.
군인들이 후퇴하면서 쏜 총알이 산속까지 날아온다.

129 도청 사무실

잡혀 온 시민들 총소리를 듣고 일어나도 크게 일어난 모양이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고 있다가, "전 직원대피 하라"는 방송이 들린다.
한참 후 머리띠를 두른 시민군이 들어오더니 잡혀 온 사람들 업고 나간다. 어젯밤 차량 시위 때 잡혀 온 사람들 모두 풀려난다.

시민군이 도청에 들어온다.
화단에 죽어있는 시체도 보이고 군인들 바삐 도망가느라 버리고 간 중령의 베레모도 보인다.

시민군 도 " 군인들이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 길목을 지키러 나가자 "

군대가 도시를 둘러싼 첫날

130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분소 /오후

사령관 이하 별들이 10여 명 모인 자리

사령관
"내란 사태가 도시 밖으로 퍼져 나가지 못하도록 샛길까지 병력을 배치하여 차 타고 다니는 폭도들이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라! 저항시에는 일발필중의 고도의 사격술로 극단적인 공포심을 주라! 폭도들이 시체를 가지고 시민들을 흥분시켰다. 시체가 폭도들 손에 들어가 폭동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

131 도시 외곽 /오후

차량시위대가 전남 일대를 질주하는 장면과 도로를 봉쇄하는 군대의 이동을 동시에 보여준다.

1, 2. 화면 동시 상황

1 장면
시위대가 도청 발포 이전부터 차를 타고 시위하다가, 발포 소식을 듣고서는 무장하면서 시위한다.
시위대는 나주, 화순,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장흥, 보성, 함평, 영광, 무안, 목포, 광주, 담양으로
신나게 돌아다닌다.

2 장면 광주 목포 간 도로 / 오후
시위대가 흥분하여 시외로 지방으로 마구 돌아다니면서 광주 소식을 알리고 있을 때, 군대는 광주의 분위기가 다른 곳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도로 봉쇄 작전 중이다.
여기저기 보이지 않게 병력을 배치하는 20사단.
군용 트럭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트럭에서 내린 병력은 도로 주변에 참호를 파고 매복한다.

3 나주군 남평 비행장 비상 활주로/ 오후
군인들 도로 주변 숲에 매복한다.
군대는 분주하게 이동하고, 자리를 잡고, 땅을 파고 기관총을 설치한다.

132 나주 터미널/ 오후

73대의 차량이 모여 있다.
각 차량에 무기들 실려 있고,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교사 박이 탄 지프에 태극기가 꽂혀 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무기를 걷어 재분배하면서 고등학생들에게는 총을 주지 않는다.
군중에 제자들이 많아 아는체하면서 자연스레 지도자가 된다.
차량마다 대표를 뽑도록 하여 모이도록 한다.

교사 박 〃 공수부대가 남평 다리에 매복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무사히 광주에 무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염탐을 해야 하니 먼저 가고 싶은 차는 손을 들어라!"

3명이 손을 든다.

차 3대가 가고 40분 후 돌아온 버스는 유리창이 모두 박살이 나고 유리창에 사람이 죽어 걸쳐져 있다. 죽은 사람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논에다 가마니만 깔고 예포를 쏘고 묻어 준다.

133. 31사단 /오후

잡혀 온 사람들에게 군용버스에 태우기 전
31사단장 〃 광주 시내는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여기에서 나가면 집에 가만히 있으라 〃
지배인 " 나가서 또 잡혀 두들겨 맞느니 여기 있는 게 더 편하다. 밖에 나가 이유 없이 또 폭행을 당하기는 싫다 "

군인 〃 미리 연락해 놓을 테니 염려 말고 팔을 보여주라. 또 잡혀 오지 마라! 잡히면 이것 보여주고 "(왼쪽 팔에다 〃 발송 〃 도장을 하나씩 찍어 준다)

광주교도소 뒤쪽 고속도로에다 내려준다.

134 국군통합병원

시민군이 트럭을 후진하여 병원으로 들어온다.
빨간 명찰을 단 해군 하사가 정문 보초를 서고 있다.

시민군 M 〃 너이 새끼! 공수부대 아니냐! 〃

보초가 도망가서 병원장에게 알린다.
병원장 진료부장 행정부장 모여 있다가

진료부장 〃 병원장님 좀 피하십시오. 저희가 나가 보겠습니다."

진료부장 행정부장 권총을 찬 위에 가운을 입고 나간다.
긴장한 의사들 등 뒤로 땀이 배어 나온다.

시민군 M 〃 병원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산소를 내놔라 〃 (총 겨누며)
진료부장 〃 총은 내리고. 대표만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M1을 든 시민군 병원에 들어가는데

진료부장 〃 병원에는 총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있다. 총 주고! 〃

진료부장 " 총알도 주고 "

트럭에 산소 100통을 받아 싣고 돌아가는 시민군 트럭

135 조선대학교 뒷산/ 밤

시민군들이 계엄군이 달아난 곳을 쫓아서 조선대학교 뒤 산속으로 들어가려다 땅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살펴보고 땅을 판다.

무등산 시민군 1 " 어! "
무등산 시민군 2 " 이것이 뭐여! "
무등산 시민군 3 " 사람 같은디! "
무등산 시민군 4 " 오메! 사람이다! 아직 살았는디! "

땅속에 사람이 묻혀 있다. 두 사람 죽어있고 한 사람 아직 살아있다.
무등산 시민군 일부는 산으로 가고 일부는 환자와 시신을 병원으로 옮긴다.
무등산 시민군 1과 2가 보듬고 가다가

무등산 1 " 인자 안 움직이고 무거워진 것이 죽어분 거 같다."

136 산속/밤중

산속을 걸어가는 군대 행렬, 말없이 걸으며 조는 군인들, 느닷없는 카빈총 총소리에 놀라 마구 주변에 사격한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총을 쏜다.
행군 중 방향을 잃고 행군할 수 없는 2대대, 계곡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중령 2 " 여기서 숙영한다 "

137 가정집, 길을 잃은 숲속의 대대, 경계선을 지키는 시민군 / 깊은 밤

1, 2. 화면 동시 상황

1. 식구들 이불 둘러쓰고 총소리를 듣고 있다.
2. 골짜기에 갇힌 숲속의 대대 병력도 멀리서 들리는 총소리 듣고 있다.
3. 도시 외곽의 시민군들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 사격한다.
4. 도시 외곽 건물 옥상에는 시민군이 숨어서 있다

군대가 도시를 포위한 둘째 날

138 광주 남평 간 도로 /밤 12:00

하늘에는 탐조등을 비추는 헬기가 떠다니고, 광주-나주간 도로 위에는 광주로 들어오려는 시위대의 차량이 무더기로 모여 있는 것이 보인다.
트럭 지붕에서 군인들 매복 공격에 위험하더라도 시도하자고 선동한다

남평 시민군 1 " 지금 광주 입구 효천에는 공수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수부대를 몰아내고 광주시민을 구출합시다"
남평 시민군 2 " 갑시다 "

남자들이 많이 탄 차는 앞으로 여자들이 많이 탄 차는 뒤로
맨 앞에는 지프가 가고
길가에는 2.5t 트럭 위에 피가 흥건하고 가마니에 덮인 채 시체 7구가 보인다

유족 " 내 새끼야! 내 새끼야! " (트럭 짐칸에 걸쳐진 다리를 붙들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시민군 차들 지나간다.

남평 시민군 2가 탄 차량은 대열 뒤쪽에 있다. 여자 10명 남자 14명
남자들 차창 밖으로 총을 내밀고 있고 여자들 통로에 앉아 무서워 찬송가를 부른다.

"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

무장 시위대가 지프를 선두로 버스 10대와 트럭 1대가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도 안 켠 채 광주로 들어간다.

1, 2, 3 화면 동시 상황

1. 장면
어둠 속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시민군 응사한다.
버스 놀라서 과속으로 3대는 광주 쪽으로 달아난다.

2 장면
트럭, 버스들 멈춰 서고 1대는 논으로 처박힌다. 4대는 멈춰 서고
어둠 속에서 상처를 입은 채 산을 넘어 도망치거나, 남의 집에 숨어 들어간다.

콩 볶는 소리가 들릴 때 뒤따라가던 버스 3대는

3. 장면
남평 시민군 2 " 차 돌려! "
3대의 버스는 꽁지가 빠지게 달아난다.

139 백운동/ 03:00

남평 시민군 1 " 송하동에서 당했다! '
백운동 시민군 1 " 지원 갑시다! "

백운동 시민군 200여 명 버스 10대에 나누어 타고 간다.
소식을 듣고 시체라도 가져오려고 어둠 속에서 달려온 백운동 지역방위대, 헤드라이트를 켜고
버스와 트럭이 멈춰선 곳을 살펴보고 길가의 부상자를 확인한 후 접근한다.
도로가 부상자를 버스에 옮겨 싣고 출발한다.
먼저 온 버스는 출발하고
나중에 온 버스가 부상자를 싣고 출발하려는 순간 조명탄이 올라가면서 사격을 받는다.
사격받은 채 부상자가 생기면서 도망가는 버스

140 무등산 산속/ 새벽

세 곳을 한 번에 보여준다.
1, 2, 3 장면
1 장면
계곡 어둠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다 다시 행군하는 2대대, 120명 저 아래로 시민군 방어벽이 보인다.

2. 장면
졸다가 넘어지면서 그대로 잠들어 버린 병사 1, 아침에 눈을 뜨니 주변에 아무도 없다.

3. 장면
잠들어 버린 병사 2 잠을 깨서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141 숭의실업고등학교 앞 개천/ 새벽

개천가로 주민들이 많이 나와 보며 수군거린다.
운전석에 죽어있는 이등병 시신,

142. 도로

시민이 지프 보닛(앞부분) 위에 시체를 싣고 다닌다.
시신 다리가 축 처져 있었는데 흥분한 시민은 도롯가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다닌다.

흥분한 시민 " 이놈이 우리 시민, 학생들을 많이 죽인 놈이다. "

143 조선대학교 운동장, 체육관 /아침

1, 2 장면 같이 보여준다.

1 장면
군대가 급하게 달아나느라 버리고 간, 천막, 식기가 그대로이고, 드럼통에 휘발유도 있다.
휘발유를 시민군 차량에 넣고 있다.

2. 장면
체육관 안
군인들이 버리고 간 무전기, 식량, 모포, 사복, TV, LMG 2개, 침낭 등이 가득 쌓여있다.

144 서점 /아침

시민이 무장한 이후에도 광주에 남은 운동조직 사람들 30여 명이 다시 모인다.

극단 광대 패 " 지금 운동권이 한 명이라도 모습을 나타내면 광주 운동권 모두 작살난다 "
시민 11 " 이런 큰 대중봉기를 포기하면 말도 안 된다. 끝까지 싸우자! "
시민 윤 " 싸움을 이어가자!, 선전 활동도 계속하고 "

145 광주 남평 간 도로/새벽

남평교 가까운 지점
승용차에는 교사 황 가족이 타고 있다.
아내와 아들, 운전사가 광주를 나가려고 한다.
목포에서 가르치는 교사 황은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감독해야 한다.
아들이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다 군인들에게 맞아서 데리고 내려가려고 올라왔다.
운전사는 아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다.

검문소에서 소령에게 내려가야 하는 일을 설명하고 통과한다.
더 가다가 방어벽 때문에 속도를 줄인다.
순간 자동차에 총알이 날아오고 사격이 멈추자 손들고 내린다.
운전사는 내리다가 총 든 군인을 보고 무서워 뒤돌아 달리다가 총 맞아 죽는다.
교사 황과 아내는 온통 파편으로 상처가 나 피를 흘리고 아들은 엄마가 몸으로 둘러싸 다친 데가 없다.

교사 황 육군 대위에게 쫓아가 항의하자 군인들이 죽이려 든다.
교사황 " 당신들이 차를 정지하라고 해서 즉시 멈췄는데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무차별 난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적군도 항복하면 생포하는 법인데 하물며 무장도 하지 않은 시민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애원했는데 어떻게 총을 쏠 수 있단 말입니까? "

병사 1, 2 " 이 새끼 쏴버리겠다. "
대위 실 " 총 치워! "

이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옆에다 김대중 석방하라는 프랭카드를 차체에 걸고 달려온다
군인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차에다 집중 사격을 퍼붓는다.

대위 실　　" 보십시요. 저 차에 탔던 사람은 모두 죽었는데 당신 가족은 그래도 운이 좋은 것이에요."
교사 황　　" 우리가 병원으로 가더라도 당신들 말대로 폭도 취급을 받을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폭도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달라"
대위 실　　" 그 말이 맞겠다 " (곰곰이 생각하더니)

수첩 한 장을 찢어 '차량 수화에 불응하여 발사. 악의는 없고 겁에 질려서. 잘 봐 주십시오. 7605부대 2대대 부관 대위 섭길김. 1980년 5월 22일 05시 40분 두부관통상'

146 도청 / 밤, 새벽

텅 비어 있는 도청 밤과 새벽

군대가 물러가고, 시민군이 도청에 들어가나, 아무도 없는 도청에 있는 것이 무섭다.
군인들이 다시 들어올 것만 같다.
사무실에 잠들어 있는 시민군 하나 보인다.
새벽에 변호사 1이 들어가 본다.
아무도 안 보인다.

27일 새벽에 군인들이 들어올 때는 작전이 미리 시민군들에게 알려졌지만, 설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자는 사람도 있었다.
전투와 죽음이 기다리는 27일 새벽을 "군인들이 또 들어와 학살할까?' 의심했다.
그래서 그렇게 200명 이상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22일 새벽에는 군대가 확실하게 도망가서 없는데도 곧 들어올 것 같은 기분에 아무도 없었다.

147 광주공원에 있는 시민회관 안 /이른 아침

시민군들 500여 명이 시민회관 강당에 모여 와글와글 간밤의 전투에 대해 과장하여 떠들어댄다.
공원 광장에는 차량 78대가 모여 있다.
커다란 광주리에 밥이 쌓여있다.
며칠째 밥을 못 먹고 데모하던 사람은 정신없이 밥을 먹는다.
목에 구멍이 나 있는 군복 입은 시체를 두 시민군이 한 발씩 잡고 끌고 간다.

지휘자들이 무대에 오르며 시민군을 이끈다.

시민군 위원장　　" 중구난방으로 계엄군과 싸울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싸우자! "
시민군　　" 옳소! "
시민군 박, 석, 무　　" 총기 사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나를 따라오쇼! "

시민군 위원장　　" 40명씩 조를 짜서 동네별로 지키기로 합시다.! 자기 동네별로 서보쇼!
서방 삼거리 학동 신역 산수동 백운동 화정동 금남로별로 모이쇼! 동네마다

차량 5대씩 나눌 테니 운전사는 모이쇼! 차량에 번호를 붙여서 역할을 맡기겠습니다.! ”

시민군 줄을 선다.

148 광주공원 광장 /아침

시민군 위원장 ” 도청으로 갑시다! ”
시민군들 ” 도청으로! ”

200여 명의 시민군은 40여 대의 각종 차량에 나누어 타고 도청으로 들어간다.
도청광장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차들을 일렬로 세워 놓는다.
위원장 사무실을 차지한다.
시민군들 서로 먼저 경찰이 도망가면서 벗어놓은 데모 진압복을 주어 입는다.
전리품으로 치장하는 시민군
비옷까지 챙겨입는다.
모자까지 쓰고 나니 무겁기는 하지만 폼이 난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처럼

149 수송기 안/ 어두운 새벽

북한 지역으로 침투하는 줄 알고 긴장해 있는 20사단 수색 중대원들 50분이나 비행했는데도 아직도 하늘을 날고 있다. 수송기 24대,
그중 한 대에 수색 중대장 중위와 그의 아이들 34명 타고 있다.

비행장 상공에 도착했을 때, 대공 사격을 받고 선회한다.
수색중대장 대공사격에 놀라 조종석으로 간다.
부하들 무서워하며 중대장을 바라본다.

주조종사 소령, 부조종사 중위
수색중대장 중위 헤드셋을, 벗기고 큰 목소리로 ” 어디가? ”
중위 대답이 없다. 수색 중대장 ” 야! 새끼야! ”
중위 대답이 없다.
수색중대장 소령의 헤드셋을 벗기고 ” 어디가? ”
소령 대답이 없다.
수색 중대장 ” 야! 상놈의 새끼들! ”
부하들 중대장만 바라본다.
조종사 소령 ” 광주 ”
수색중대장 ” 뭐하러 광주 가? ”
조종사 소령 ” MBC 가 불타고 있다.”
수색 중대장 (밑을 보며) ” 저것이 뭐여? ”
소령 ” 폭도들이다 폭도들이 군인들에게 총을 쏜다. 이북에서 간첩을 보내서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쑥대밭이 되었다. ”

150 도청 /아침

도청 옥상 고성능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온다.

" 부지사입니다. 지금은 군인도, 경찰도 없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학생 대표는 도청으로 오시오. 시민들은 나오지 마시고요 "

방송실에서 나오는 부지사에게 잠을 못 자고 눈이 충혈된 시민군이 다가온다.
둘을 스쳐 지나가는 여학생 방송실로 들어가는 뒷모습

시민군 (총을 겨누며) " 시민들은 나오지 말라는 말은 취소하쇼! "
부지사 " 못 하네! "
방송 (여자 목소리) " 시민 여러분, 10시에 도청광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151 광주 남평 간 도로 /오전

간밤에 부서지고 멈춰선 버스에서 총을 거두어들이는 계엄군 16정 총알 500발

주민 김 60세 " 쩌가 내 벌통인디 가도 돼까라! "

군인 보내준다.
주민 김 벌통 오고 가면서, 벌통 손보면서 천천히 주변을 돌아본다.
산속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앉은 수많은 군인
도로에는 논에 빠진 버스 한 대, 논바닥에 죽어있는 시체들 셋, 버스 안에 죽어있는 시체들 넷
벌통 못 미친 언덕에도 시체 둘, 3대의 기울어진 버스를 본다.

152 도청 /오전

부지사실
뒤바뀐 권력, 총기를 휴대한 시민군 가운데는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당하여온 사람들이 다수다.
그들은 무기를 지니고 시위를 하면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우쭐하며 시종 강경한 언행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다.
더욱 강력한 시위가 있어야 한다고 충동하면서 죽더라도 저항하겠다고 큰소리칠 때가 많다.

어린 시민군들이 경찰들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무전기도 들고 경찰 흉내를 내며 정문을 지키고 있다.

수습대책회의
참석자 부지사, 수십 명의 관계, 여당, 야당,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학생, 교수, 사업가들이 모여 있어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무작위로 수습을 위한 의견만 백출한다.

" 애기들이 무기를 들고 다닌다! "

〃 오발 사고를 봤다! 지 손으로 지 얼굴을 쏴불더랑께! 〃
〃 과잉진압을 사과해야 한다. 〃
〃 군대가 또 들어오면 안 된다 〃
〃 도지사 시장은 어디 있냐? 〃
〃 연행자를 풀어줘야 한다 〃
〃 총을 걷고 경찰이 들어와서 치안 유지를 해야 한다 〃
〃 애기들한테서 무기를 걷어야 한다 〃

와글와글, 야단법석

천주교 대주교 " 이렇게 산만한 상태에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대표를 선정하여 체계 있게 수습을 합시다. 천주교는 신부 1이 하겠습니다.〃

각계 대표가 정해진다.

부지사 " 누가 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
변호사 1 〃 변호사 기종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

시민 남 (상황실장) 〃 수습에 앞서 우선 무장 시민들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시민군의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그 다음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53 도청 서무과/낮

전남대 조선대 전문대 등 10명 학생, 교수들이 모여 있다.

학생 A 〃 무기부터 모읍시다. 국민학생 꼬마까지 총을 들고 다닙니다. 지프타고 방송하고 다니면서 총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디다. 수습위원회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줍시다.〃

흥분하여 들어오며 수류탄을 들어 보이는 시민군 위원장

시민군 위원장 〃 투쟁본부를 만들어야지! 수습위원회를 맹글기만 하면 수류탄을 터트려 버릴라니까! 느그들이 뭔데 인자 와서 설치냔 말이여! 일 저질러놓고 도망간 새끼들이!"
시민군 악 〃 저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수습위원회는 무슨 수습위원 이냐!
시민군 의 〃 사방데서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시방 무기를 나눠줘야지! 걷어불면 어쩌자는 말이여! "
학생 A 〃 니가 위원장인 모양인데 권한을 넘겨라! 〃
해직교수 〃 누가 누군지 모르고 총만 가지고 있으면 큰소리치는데, 학생들이 나서면 시민들이 믿어줄 것이다! 〃
시민군 붕 〃 너는 뭐냐? 〃
해직 교수 〃 전남대 교수다 〃

네가 학교서나 교수지 전쟁통에 뭐 쓸모 있겠냐는 얼굴

학생 A　　" 너도 학생 같은데 어디 학교냐!"
시민군 위원장　　" 삼수생이다!"
학생 A　　"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학생에게 있으니 대학생이 수습책임도 맡겠다!"

간밤의 총싸움으로 눈이 충혈되고 어깨에 붕대를 맨 시민군 붕이 해직 교수 목에 총을 들이댄다

시민군 붕　　" 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해! 수습이 뭐야 수습이! "
해직 교수　　" 야 새끼야! 지금까지 죽을 만큼 죽었어! 이제 살자! 니 어미 생각도 안 하냐? 이 새끼야! "

눈이 충혈되고 어깨에 붕대를 맨 시민군 기가 죽어 슬그머니 총을 내린다.
해직 교수 눈이 충혈되고 어깨에 붕대를 맨 시민군을 부드럽게 바라본다.

154 화정동 지역방위대, 잿등 /오전

시민군과 계엄군이 잿등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다.
건너편에서 계엄군은 위력시위를 하고 있다.
잿등 시민군 젯 32세가 두 손을 들고 걸어 나간다.
소령이 다가온다.

시민군 젯　"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
소령 7　" 손을 내리시오. 시민들이 광천동 죽봉 동상이 있는 곳까지 물러나 준다면 평화적 협상을 하겠습니다. "
시민군 젯　" 그러면 당신들은 모두 상무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소령 7　" 나는 전남 계엄분소장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영산강 사업소 (안전기획부)까지 사수하되 그 선이 무너지면 발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민군 젯　" 시민군들이 이해가 가도록 말로만의 평화 협상이 아닌 평화 협상의 증표를 보여 주시오. "
소령 7　" 그러면 좋소. 제일 좋은 증표로 영산강 사업소의 길 한가운데를 굴착기 차로 파서 서로가 넘어오지 않도록 합시다. "

155 송정리 황룡강 다리 /오전

운전 미숙으로 기중기가 다리 난간을 부수고 다리 밑으로 추락해 있다.
사람들 몰려들어 여러 가지로 구해보려고 애쓰고 있다.
이 때 교사 박이 73대의 차량을 이끌고 나주에서 노안을 거쳐서 황룡강 다리에 온다.
교사 박 강가로 내려가 살핀다.
한 명 죽어있고, 한 명 차에 끼여서 나오지 못한다.

부상자　" 살려주세요! "

156 비행장

송정리에서 광주로 들어가는 도로 가에는 군인들이 매복하고 있다.
비행장 입구에 군중이 모여 있다. 무장 시위대도 보인다.

교사 박, 제자 둘과 승용차를 타고 수류탄 두 발과 권총, M1을 들고 비행장으로 간다.
군인들 비행장 입구를 착암기로 아스팔트를 뚫어 도로를 파내고 있다.
입구에서 중령이 차를 세우고 손을 들라고 한다.
병사들 총을 겨누고 무기를 뺏는다.

교사 박 " 사단장을 만나야겠다 사람이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야겠다!
광주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도 있다. "
대령 " 무기를 거두어주면 통합병원으로 보내주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들여보내
주겠다. "
교사 박 " 이야기해 보겠다! "
메가폰 소리 " 총을 버리면 광주로 보내준다. 총을 버려라! "

157 군중쪽

교사 박 " 지프에 모아 놓았으니까 중령이 와서 가져가라! 권총 풀어 놓고 와라! "

가기 싫어하는 윤 중령 뒤에서 연대장 정 대령이 보고 있다.
가라고 눈짓한다.
50m 공간을 중령 걸어간다.
수색 중대장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지프에 올라탄 중령 얼굴은 겁에 질려 있다.
지프 몰고 돌아오다가 중간쯤부터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차 바퀴가 방어벽 철조망에 감기고 철조망 앞에 있던 수색 중대장도 철조망에 감겨 버린다.
철조망 가시가 수색 중대장 살 속으로 파고든다.

무기를 버리고라도 광주 가겠다고 나선 버스 3대를 뺀 70대는 무기를 가지고 지방으로 간다.

158 통합병원 /조금 후

수색 중대장은 통합병원 버스 운전사 옆에 앉아 다리가 잘린 듯한 학생과 시민들(어젯밤 들어오려다 못 들어간 찬송가 부른 여자들, 남평 시민군...)을 태우고 병원에 도착한다.
들어오는 도로는 파여 있고, 물이 채워져 있다.
시위대가 탄 지프 5대가 경계선에서 멈추고 시위대는 걸어간다.
비무장지대를 걸어오는 시민을 보고 지켜보던 시민군 환호한다.

159 전라남북 계엄분소 퀀셋 안

11명 수습위원과 6명의 계엄사 군인들 마주 앉는다.
부사령관이 퀸셋막사의 문을 열자 수십 대의 탱크와 헬리콥터가 당장이라도 출동할 듯 부릉거리고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다.

부사령관 " 평화적인 수습을 원한다면 시민들이 무기를 빨리 반환하고 해산해야 합니다. 무장헬기와 탱크가 준비되어 있어서 진압하려 한다면 몇 분 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명 살상을 하지 않으려고 군인들이 인내롭게 기다리고 있으니 무기를 빨리 회수하여 반납하십시오. 군도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부 1 " 사태의 발생원인 규명과 그 책임 소재와 무기를 든 시민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보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기회수가 불가능합니다. "
변호사 1 " 정부가 사과해야 합니다. "
교수 " 연행자를 석방해 주십쇼 "
부사령관 " 주동자를 빼고는 석방하겠습니다. "

160 상무대 앞/ 오후

버스들 줄줄이 서 있고 잡혀 온 사람 중 848명 버스에 태워져 석방된다.
풀려난 사람들이 데모대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이 Z 자로 밀려있다.
연락을 받은 가족들 상무대 앞에 나와 기다린다.
버스에 태워져 풀려난다
석방자들 " 애국가 " (악으로 깡으로)

대치선을 넘어오면서 시민군을 보고 서로 반가워하며 환호하고 노랫소리 더 커진다.

161 서부경찰서 앞

군인 지프차, 트럭에 가득 탄 시민들은 서부경찰서를 둘러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든다.
시민은 박수와 함성으로 응답한다.
마치 친형제, 자식들이 풀려난 것 같이 왁자지껄 들떠 있는 분위기다.

청년 한

"시민 여러분! 몇 명의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극심한 사태에 치달았습니다. 여자 간첩을 잡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불순분자들의 난동에 동참했으므로 그 잘못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루 빨리 불순분자들의 책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도청에 들어가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총을 요구하면 줄 것입니다. 그 총을 받아와서 전부 죽을 각오로 노력합시다."

군중은 청년의 말에 제압된다.

162 도청 구름다리 밑과 뒤뜰 /낮

목이 잘려나간 시체의 관 (의사의 의견서가 붉은 매직으로 관뚜껑에 '공수에게 목이 잘린 것 같음"쓰여 있다) 옆에 모자간으로 보이는 엄마와 형이 서성대다가

형 〃 며칠 전 동생이 내 바지를 입고 나갔는디 저 시체가 입은 옷과 같은디 〃
엄마 〃 바지 좀 뱃겨 봐 줄라요. 아들은 왼쪽 허벅지에 15㎝ 정도의 흉터가 있는디 〃

시체 봉사자가 벗겨준다.
바지를 벗겨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왼쪽 허벅지에 그 정도 길이의 흉터가 있다.

163 분수대 광장 /오후

분수대 광장에는 협상에 대한 기대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상무관 지붕 위에도 발 디딜 틈이 없다.
분수대 주변에서 금남로로 카메라를 돌려 전일빌딩에서 무기회수라는 글씨를 써놓은 곳에 무기회수라는 완장을 찬 사람이 무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서 무기를 받아 모으고 있는 모습 보여준다. 수북이 쌓여있다.
여기저기서 무기를 회수하는 사람과 안 뺏기려는 사람 간에 총부리를 겨누는 충돌도 있다.

분수대 위 협상 보고대회
분수대를 삥 둘러 관이 놓여 있다. 분수대 위에는 변호사 1, 신부 1, 학생 A, 목사 A....
보고대회 부지사가 사회를 본다.

부지사 〃 주동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석방되었습니다.〃
군중 박수
수습위원 목사 A 〃 계엄분소장이 과잉진압을 인정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니,
총기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무기를 걷자는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
군중 박수
수습위원 장 〃 우리가 총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폭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서 빨리 무기를 계엄사에 반납하고 시내 치안 질서는 경찰에게
넘겨줍시다. 〃
군중 〃 우 우 〃
학생 B 분수대 위로 올라와 수습위원들에게 총을 겨눈다.

학생 B "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무조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어쩌란 말이냐. 시민이
흘린 피는 생각지도 않느냐. 도대체 시민이 뭘 잘못했단 말인가!
야! 이 시민의 피를 팔아 출세하려는 놈들아. 너희들은 필요 없다. 다 꺼져라."

군중들 박수와 함께 시민군 중 몇 사람은 공중으로 총을 쏜다.

경찰이 버리고 간 데모 진압복을 입은 시민군이 정문을 통제하고 있다. 시민들은 가족을 찾으려고 도청 안에 있는 관속에 있는 시신을 보고 싶어 들어오려고 한다. 정문을 닫고, 몇 사람씩만 들여보낸다.
정문에 가까이 오지 못 하도록 마치 경찰 통제선처럼 줄로 막아 놓았다.
시민군 군용 트럭, 사망자 운구차 등이 들어오고 나간다.

갑자기 총소리가 나면서 모두 긴장한다. (오발 사고, 총기를 다룰 줄 모르는 시민군이 많다. 총 가진 어린 사람들도 총을 내놓으라는 어른 말을 듣지 않는다. 법, 도덕 대신 자리를 잡은 총, 총 가진 사람이 장땡이

다.

도청 2층에서 분수대 위를 공무원들이 보고 있다.

기획실장 " 저 여자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 왜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죽여버렸다 유방이 잘렸다! 이야기하냐고! 잡아 와라! 물어보게! "
공무원들 " 수상해! "

생각이 다르면 수상한 사람이 되고 수상하면 신고하는 게 건전한 사고방식이다. 일사불란 똑같은 생각을 전국민이 함께한다.
시청 직원이 시민군에게 목소리를 낮추어서 중요한 일을 너한테만 말한다는 듯이 말하면서 여자 1, 2를 데려오게 한다.

시청 직원 " 저년들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 저년들 말하는 솜씨가 훈련받은 것 같애. 간첩 아니면 저럴 수 없다."
시청 직원 " 잡아서 신고해야 것씅께 학생이 가서 할 말 있다고 부지사가 오시란다고 해라."

총 메고 있는 시민군이 분수대 위로 올라가서 여자1에게 뭐라 하니, 여자 1, 2가 분수대에서 내려온다.
남자들 서너 명이 여자를 잡아 어깨를 부추겨서 '간첩이다' 하며 데리고 간다.
사무실로 들어오자 공무원들 둘러싸면서 윽박지른다.

기획실장 " 느그들 정체가 누구여, 니들 때문에 일이 커진거여! "

지프에 탄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에스코트(호위)하면서 간다.
시청 직원이 여자 1, 2를 지프에 태우고 도청을 나간다.

164 시내 도로/오후

30분이면 갈 길이 8시간 걸리는 과정을 보여준다.
시민군이 여러 곳에서 검문을 한다.
누구나 패거리들을 불러 모아 총을 잡으면 작은 권력이 만들어진다.
수많은 자발적인 권력들이 생긴 현장을 보여준다.
" 멈춰라 누구냐? 어디 가느냐?" 물을 힘을 즐기는 젊은이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검문자가 질문하는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검문하는 시민군의 가슴을 으쓱하게 한다.
시민군들은 누군가를 수상하다고 여기면 잡을 수도 있는 공권력화 된 순간들을 즐긴다.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질하고 난 후, 시민군들은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스스로 시민 지킴이를 자처하며 목에 힘이 들어간다.
길거리에서 본 순경 흉내밖에 못 내지만 무척 보람차다.
학생들이 호위하며 가지만 검문하는 시민군은 까다롭다.
시청 직원은 깡이 세고, 안 물러나면서 통과한다.

여기저기 총을 들고 지역을 지배하는 듯 여기를 지나려면 우리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듯 무리를 지어 서

있다.
경찰이 버리고 간 데모 진압복에 비옷까지 걸치고 폼나게 도로를 막아서는 시민군 다섯 명

도로 시민군 1, 2: 〃 정지 누구냐? 무슨 일이냐? 〃
시청 직원 (공무원증 제시) 〃 이 여자들이 간첩으로 의심된다. 계엄군에게 넘기러 간다.〃
도로 시민군 1 〃 방송하던 여잔데!〃
도로 시민군 2 〃 말은 잘하드만! 나 어젯밤에 라디오 돌린디 북한 방송만 깨끗하게 잘 들리길래 들었거든 근디 여그 일을 본 것처럼 이야기 하는디 KBS, MBC 가 그렇게 방송했으면 이 난리가 났을까 싶더랑께! 〃
도로 시민군 1 〃 근께 간첩이 있기는 인는가비여! 〃
도로 시민군 3 (총을 겨누며) " 이 새끼, 너는 간첩 아니냐!."
시청 직원 〃 야, 안 치워 자씩들이 건방지게, 나도 너희 같은 동생들이 있어 〃
도로 시민군 5 〃 위험하다! 누가! 쏠지 모른다! 〃
시청 직원 〃 죽고 사는 것은 내 운명인께! 〃

내가 느그들 같이 겁쟁인 줄 아느냐는 듯 자신의 깡(오기, 자존심, 체면)을 보인다.
여러 곳에서 티격태격 먼 거리에서 그렇고 그런 말들이 되풀이된다는 듯이 보여준다. 몇 번을 더 보여준다.

165 화정동에 있는 국군통합병원 /오후 5시

군대는 군인들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경계선에서 시민군을 밀어내고 국군 통합 병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주민 8명 집 안과 집 앞에서 사망, 군인 1명 사망. 큰길과 큰길 양쪽 이면 도로로 탱크 장갑차가 들어온다.

주민들 시내 분위기를 잘 모른다.
동네에 탱크가 나타나자 주민들 호기심에 그 행렬을 보려고 밖을 내다보고 있다.
옥상에서도 내다보는 주민들
탱크를 앞세우고 군인들이 걸어오고 있다.

화정동 지역방위대 시민군들이 도로에 방어벽을 치고 있다.

군인들이 방송한다.

"시민 여러분! 통합병원까지만 들어가고 공단사거리 넘어서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공단사거리까지 물러나 주십시오! 〃

방송과 함께 탱크 장갑차들이 엄청난 소리를 내며 큰길과 뒷길을 지나간다.
병력도 줄지어 걸어간다. 구경거리를 내다보는 어린이들, 어른들

166. 주택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

아내도 걱정하던 차에 안심이 된다

남편 〃 시내가 난리여! 무서워서 일찍 들어와부렀네! 〃
아내 〃 그래도 집에 있으면 뭔 일 있을랍디여! 〃
남편 〃 밖에도 뭔 일 있는갑든디 ! 〃
아내 〃 집에만 있으쇼! 전 부쳐드리께라 〃

167. 거리 전투장면과 주택

장면 1, 2를 동시 화면으로

1. 장면
준비된 반응처럼 동시에 방어벽 양쪽에서 사격한다.
군대는 곧 주택가에도 사격한다.

2. 장면
남편이 방에 들어간다
총알이 쏟아진다.
그대로 쓰러지더니 겨우 일어나 마루로 나간다.
마루로 나간 남편은 또다시 쓰러지면서 피를 줄줄 흘린다

168. 주택
.
아내는 정신없이 뛰어가 쓰러진 남편을 부축하며 얼굴 턱부위를 손으로 감싸준다.
남편은 아내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쓴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부축하여 밖으로 나온다.

169. 도로

도로는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고 군인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

군인 " 손들어! "
아내 " 우리 남편인디 다쳤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디...."

위생병 1명이 조그만 가방 하나를 들고 달려온다.
남편의 턱은 이미 온데 간데 없고 피만 줄줄 흐른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다.
위생병이 남편의 입 주위를 압박붕대로 대강 감아준다.
응급처치가 끝나자 군인들이 재빨리 옆에 세워둔 군용 트럭에 남편을 싣는다.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 달려들어 차에 오르자 위생병이 트럭 위에 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친다.
위생병 " 이 차는 상무대로 가니까 환자가 아닌 사람은 차에서 모두 내리시오."

아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남편을 껴안고 있다.
어머니는 내린다.

170 상무대

군인들과 위생병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군인 몇 명은 잡혀 온 교련복의 젊은 청년들을 향해 소리친다.

군인 " 아줌마, 이 새끼들이 바로 폭도요. 바로 이 새끼들이 데모하러 다닌 놈들이오. 이놈들이 당신 남편을 죽였소! "

아내는 정신없이 위생병 이 사람 저 사람을 잡고 울면서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상무대 안 곳곳에 군용 담요로 덮인 시체가 있다.

아내 " 우리 남편이 저기 있는디 많이 다쳤응께 얼른 치료 좀 해주시오. 빨리 봐주시오. "

그러나 위생병들은 남편에게 왔다가 그냥 가버리곤 한다
아내는 또 다른 위생병을 붙잡고 사정한다.

아내 " 저기 우리 남편이 위급한디 빨리 가서 봐주시오."

위생병 〃 돌아가셨다 〃
아내는 시신 옆에 앉아 운다

위생병 " 돌아가십시오, 이제."
아내 〃 이곳에 두지 말고 시체실로 옮겨주쇼 〃
위생병 " 시체실은 없습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군인이 강제로 끌어다 지프차에 실어버린다.

171 101 사격장 터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놓고 시신 11구를 묻고 있다.

병사 1 〃 어째서 죽은 사람을 끌고 와서 땅에다 묻으까? 뭔 죄지은 사람멘키로 우리까지 죄지은 사람같다! 〃
병사 2 〃 병원 영안실에도 자리가 없다만 〃

무덤에다 표시를 한다
김경철

172 도청 /저녁

변호사 1 " 수습이 안 되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들어와 와버기라도 한다면 큰일 아니겠소? "

수습위원 휴 " 가십시다 "
시민군 위원장이 지프로 화정동 분계선까지 태워드린다.

시민군 위원장 " 위험하니 모셔드리겠습니다."

분계선에서 시민군 위원장은 돌아가고 변호사 1과 수습위원 휴가 손을 쳐들고 간다.
여기저기에서 총알이 핑핑 날아온다.

173. 공단사거리 화정동 지역방위대 / 밤

건너편 계엄군 지역에서 서치라이트로 시민군 쪽을 비추고 있다.
시민군 쪽에서도 타이어를 쌓아놓고 태우고 있다.

아직도 시내를 못 벗어났다. 수많은 검문을 통과하느라 계엄군과 시민군 경계지역, 마지막 검문이다. 오후에는 군대가 시민군들을 밀어내고 국군통합병원을 차지하느라고 전투가 있었고, 사상자가 있었다. 주변에서는 총소리, 수류탄 소리도 나고 시민군들 눈초리들이 사납다.

화정동 시민군 1 " 당신 누구냐?"
시청 직원 " 시청 공무원인디 간첩 신고하러 간다. 여기를 지나가야겠다. 너는 뭐냐? "

시민군 숙소인 관광버스에서 나오면서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오는 시민군 무리 다섯 시청 직원이 광주시에서 철거 용역 쓸 때 불러다 쓰던 아이들을 만난다.

화정동 시민군 2 " 형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군바리 이 새끼들 잡아불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
시청 직원 " 저 여자는 우리가 간첩 용의자라고 판단을 하고 군 당국에 넘겨야겄다 어떻게 저기를 넘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저 새끼가 누구냐? 니 일행이냐? "
화정동 시민군 2 " 아니오 야! 너 이리 와봐 니가 뭔디 우리 형님한테 총부리를 대고 "

화정동 시민군 2 기가 죽고

화정동 시민군 2 " 형님 갈라면 걸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 직원 " 길을 좀 가르쳐주라 "

174 황금동 여관

시민군 천 " 강도 들었다는 신고가 있어서 나왔는데 "
여관 주인 " 그런 일 없소! 저녁은 묵고 이라요? "
밥 먹는데 탕하는 총소리 한방

여관 옥상으로 올라가 살핀다.

시민군 천 일행 1 " 총 어떻게 쏘요? "
시민군 천 " 이리 줘보쇼! "
시민군천 일행 2 " 저기 있다! "
한동안 탕 탕 탕 탕.
상대방은 반응이 없다.
총쏘기를 멈춘다.

175 지원동 / 밤

조선대 뒷산의 숙실 부락에서 계엄군이 랜턴을 잠깐씩 비치며 냇가를 지나간다.
그곳에서 본부까지 약 1백50 미터 정도의 거리였고, 숙실 마을 6조와 무등육아원의 7조와는 약 70-80미터 거리밖에 안 된다.
그곳에 매복해 있던 6조와 7조가 계엄군을 향해 사격한다.
이에 다른 조까지 발사하기 시작하자 계엄군 역시 총을 쏜다.
양쪽에서 불꽃 튀기는 접전이 벌어진다.
칠흑같은 밤이었지만 양쪽에서 날아온 총탄에 의해 마치 여름날 반딧불이 날아든 것처럼 주위가 훤하다.
약 20-30분 정도의 격전을 벌인다.
배고픈 다리까지 계엄군이 쏜 총알이 날아와 다리 난간에 구멍이 뚫린다.
한참 후 총성이 그친다

군대가 도시를 둘러싼 셋째 날

176 도청 정문/ 아침

도청 큰 대문을 닫고 안쪽에서 무기회수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 무기가 산더미만큼 쌓여있다.
도청 정문을 시민군이 지키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병원에서 도청으로 옮겨놓았다.

중학생 김 엄마 " 내 아들 옷 갈아 입히게 문 좀 열어주라. 내 아들을 느그들 맘대로 데려다 놓고 들어가도 못하게 하냐? 왜! 못 들어가!"

문지기 " 아줌마 지금 자식 죽고 무슨 정신 있것소! 지금 우리가 수류탄이고 뭐고 다 걷어 놓고 정리가 안 된 판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손대면 어쩔 것이요! 가만히 있으시오. 쪼금만 기다리시오."

시민군들과 아는 사람들은 쪽문으로 잘도 다닌다.

177 지원동 광주-화순 도로/ 아침

광주제일고 방송통신고 학생 시민군들이 화순으로 제사 지내러 간다는 여자 두 명을 태워 화순 쪽으로 가다 지원동 외곽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군인들에 의해 총격을 받는다.
도로 양쪽으로 산속, 숲속에는 땅을 파고 군인들이 들어가 있다.

수많은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는 군인들, 길에서 숲을 보면 나무 말고는 군인들은 보이지 않는다.
11명이 탄 10번 빨간색 승합차에 103번이라는 흰색 페인트 번호가 붙어 있다.

1, 2 장면 동시 상황

1 장면
이발소 아저씨 " 위험하니 더 가지 마라! "

시민군 차는 무시하고 앞으로 간다.
도롯가에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양쪽에서 사격한다.

2 장면
소년 유, 2. 3.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딸기를 따 먹고 있다.
총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자 담 너머로 바라본다.
화약고 옆의 도로에는 소형 버스가 한 대 서 있고 양쪽 숲에는 계엄군이 매복해 있다.
그 계엄군들이 버스를 향해 집중 사격을 한다.
왼쪽 산 숲속에는 20명 정도의 계엄군이 있었고, 차량은 붉은색이다. 하천 건너편의 오른쪽 산속에도 10여 명 군인이 매복해 있으면서 집중 사격을 가하고 있다

하천에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목욕하다가 총소리에 놀라 도망가려다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벼랑에 매달려 있는 듯하다.
또 한 사람은 논둑 밑으로 살금살금 기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잠시 후 총소리가 멎고 군인들이 숲에서 나와 이것저것을 조사하며 버스 안에도 들어가 본다.
소년 유는 재미있어서 한참 동안을 구경하는데, 약간 무섭기도 하여 뒤로 물러서서 구덩이에 몸을 파묻고 있다. 소년 2, 3은 몸이 깊이 숨겨져 있고, 소년 유는 구덩이가 깊지 않아서 오른쪽 상반신과 얼굴은 내놓고 있다.
수색하던 군인 중의 한 명이 소년 1을 향해 겨냥한다. " 탕 "

178 도청

시민군 풍이 앰블런스를 타고 출동한다. 소년 유를 태우고 병원으로 간다.

179 전남대 병원 응급실

간호원 " 환자들이 침대마다 꽉 차 있어 더 받을 수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 "
시민군 풍 "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디로 옮기냐 바닥이라도 좋으니 빨리 살려라 "

옥신각신하다 의사를 보고 달려간다.
시민군 풍 " 저 학생 수술해주쇼! "
한번 척 보고
의사 " 수술해도 가망 없다 "
의사 돌아서자 총을 들이댄다.

시민군 풍 〃 수술하다 죽더라도 해보기나 하쇼! 〃

180 수술실

수술 후 의사가 웃으며
의사 " 덕분에 사람 하나 살렸다 "
시민군 풍 〃 감사합니다. 선생님! 〃

181 도청 정문 /오후

도청 앞으로 옷 갈아 입히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중학생 김 엄마 " 이놈 새끼들 차라리 날 죽여부러라. 내 몸뚱이 머스매 새끼 하나 밖에 없는디 날 죽여라 "

문지기 시민군은 들은 척도 안 한다.
시방 문 열면 내 직장 없어진다는 듯 완고하다.
경찰 비옷을 입고 무전기를 들고 완장을 찬 힘을 보인다.
엄마가 도청 대문을 기어오른다

중학생 김 엄마 " 내가 이 총 있는 데로 떨어져 죽어 불란다 "
문지기 " 가만히 있으시오. 안에 가서 타협 좀 하고 올 테니까. "
들어갔다 나오더니
문지기 " 아줌마만 들어오시오."
중학생 김 엄마 〃 옷 입힐 사람이 줄줄이 있는데 나만 혼자 입힐 것이요? "

먼저 들어가니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한다.

182 도청 뒷 뜰과 구름다리 밑

관들이 널려 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시신을 들여다보고 가족인지 확인한다.

중학생 김 엄마 " 어디 가서 입힐 것이요? "
시체실 봉사자 " 저기 저 복도에 아무 데나 놓고 입히시오! "

중학생 김 엄마가 관을 들고 가서 시체를 바닥에 뉘여놓고 보니 관에 피가 반쯤 고여 있다.
다른 사람들은 집안 남자들이 와서 일을 해 준다.

중학생 김 엄마 " 애야! 어서 수건으로 닦고 빨리 해라! 〃
딸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보고만 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입히고 다 관을 들고 나간다.

봉사자 " 아주머니! 못 하것소? 저리 비키시오. 내가 도와 주께라! ″
중학생 김 엄마 " 학생 고맙소! ″
봉사자 " 학생 아니어라! "

183 송정리 역광장/낮

광장에 모인 군중을 해산하려는 군대가 장갑차와 최루탄에도 흩어지지 않고 몰려드는 것을 보고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당한다.
장갑차를 탄 방탄조끼 입은 대대장 정 대령은 어안이 벙벙하고 지프를 탄 수색 중대장 지프가 방꾸가 나면서 군중들이 삥 둘러싼다.

처음 보는 사태에다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중에게 무기를 쓸 수도 없다.
떨어진 곳에서 쇠스랑을 든 사람들이 군인들을 찍어 버리자고 선동하고 있다.
군중들 때문에 군인들에게 가까이는 못 오고 있다..
군중 속 멀리에서 수색 중대장이 아는 친구(광석아!)가 보인다.

수색 중대장 ″ 광석아! ″
친구 광석이도 수색 중대장을 알아본다.
광석 쇠스랑은 든 사람 보고 ″ 그러지 마라! ″
강경파 시위대 ″ 야! 이 새끼야! 집구석이 어디냐!″
수색 중대장 ″ 영광이다! ″
강경파 시위대 ″ 주민등록 내놔봐! ″
강경파 시위대 ″ 오매! 우리 동네네! 길 비켜라! 길 비키라고! 우리 동네 애긴께! ″

184 전남대학교 / 낮

군대가 철수하고 난 뒤, 새벽부터 시민들이 몰려와 온통 학교를 뒤지고 다닌다.
교직원과 수위가 함께 교내를 살핀다. 계엄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종합운동장에는 그들이 피웠던 불자리가 남아 있고, 청소부 아저씨와 직원 몇몇이 학교를 둘러본다. 먼저 계엄군들의 지휘본부로 사용되었던 한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 허리띠 5백여 개, 신발 1백여 컬레 정도가 쌓여있다. 그리고 푸대로 하나 정도나 될 것 같은 사람 머리털도 쌓여있다. 또 헌 옷가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강의실 바닥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다.

교직원 1, 2 ″ 학교를 같이 둘러봅시다 ″
수위 1, 2, 3 ″ 같이 갑시다 ″

학교 뒷산으로 가본다. 산 구석구석을 뒤진다. 대강당 옆 동산의 나무 밑에서 덤불 같은 것으로 덮어놓은 솔잎이 유난히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발로 밟아 보니 쑥 들어간다. 파보니까 광주상업 고등 2학년 학생 시체 한 구가 나온다
시체는 칼로 옆구리를 찔린 것 같고 구타당한 흔적도 보인다. 비닐로 몇 번을 감아서 묶여 있다. 시민들은 시체를 경운기에 실어서 상무관으로 옮겨간다.

185 송정리역 광장 /낮

탱크와 장갑차로 군대가 송정리 경찰서, 역, 삼양타이어, 유류 저장고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

186 지원동 광주-화순간 도로/오후

도로 가에는 10번 빨간색 승합차에 103번이라는 흰색 페인트 번호가 보이고 차 안에 11명이 죽어있다.

버스가 달리고 있다.
25인승 버스 안에는 M1, 카빈총을 든 13명 시민군, 운전사와 여자 넷, 무전기가 있다.

계엄군 핸드마이크로 멀리서 외친다 "정지".
25인승 버스 멈추지 않고 사격한다.
군인들 사격하고 시민군들 허공에 대고 쏘거나 대응하지 못한다. 떼죽음

187, 지원동 7부 능선 여단 본부

헬리콥터 1대, 2개의 24인용 군용막사가 밭 한가운데 있다.
50m 간격으로 참호를 파고 들어가 경계 근무하는 군인들, 산속에 땅을 파고 숨어있는 군대
손수레에 실려 온 상처를 입은 포로 둘, 여고생 하나
교련복을 입은 한 남자는 팔과 눈에서 피가 흐르고, 교련복 입은 한 남자는 다리에 총을 맞아 절고 있다.

두 명의 남자 호주머니에서 학생증, 천 원짜리 지폐 한 장, 총알이 나온다.

하사관 20 학생증을 읽는다. 000
하사관 12 이름을 듣고 부상 포로를 보고는 사촌 동생을 알아본다.

부상 포로 1, 2 " 살려주세요 "
하사관 12 " 다리 다친 저 애가 제 사촌 동생입니다. "
소령 4 " 여기까지 뭐하러 데리고 왔느냐! 이 새끼들 폭도니까 없애버려! 너, 너 너 처리해"
소령 4는 하사관 12의 말을 무시한다.

지친 군인들 40여 명 바라보고 있다.

188 참호 속

참호 속

하사관 9 " 우리가 이러려고 군대 왔습니까! "
하사관 12 " 총 들고 다니는 놈들 고등학생 아~들이든마! 그런 놈들한테 뭐 한다고 저 지랄이고! "

하사관 13 " 교련복 입고 죽은 아들이 우리 상대가? 부끄러워 봐 말도 못 하겠다! "

189 여단 본부 인근

하사관 셋이 부상 포로 둘을 리어카에 싣고 간다.
교련복 둘을 소나무에 세워 놓고 하사관 10이 대검으로 배를 찌른다.
부상 포로 1 찔린 배를 움켜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부상 포로 1 " 살려.... "
힘없이 쓰러진다
하사관 10 죽어가는 사람 교련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운다
하사관 10 " 이 새끼들 정말 지독하네! "
머리에 두 방 씩 쏜다.
소나무 바위 밑에 묻는다.

190 상무대 / 오후

헬기를 타고 도지사와 함께 도청을 떠나 계엄분소장을 만나러 온 후 전쟁이 벌어져, 시내로 못 들어가고 있던 시장이 시청 직원을 만나자 반가워한다. 어떻게 왔는지 여차여차.....

시장 " 어떻게 왔냐! "
시청 직원 " 선동하고 다니던 년! 보안대에 넘길라다 죽을 뻔했소! "
시장 " 들어가서 일을 보아야겠는데 길이 없으까? "
시청 직원 " 요쪽은 훤하지라! 가십시다 "

시장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시청 직원이 운전한다.
골목, 골목, 골목, 샛길로 해서 계엄군과 시민군 경계선을 넘어온다.

오토바이 기름이 떨어지고, 자전거를 두 대를 빌려 타고 둘이 광주 시내 동을 다 돌아다닌다.
공무원들 몇은 동사무소를 지키고 있다. 격려하고 지시한다

시장 " 무기는 도청으로 회수시키고, 전시라 생각하고 전시 물자를 영세민에게 보급하고 자리 지켜라. "

191 도청 회의실 /오후

시장 국장 학생 B, G 들 연석회의

시장 "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없느냐? "
학생 B " 시체를 옮길 구급차가 없고, 식량이 부족하니 하루 쌀 세 가마니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 구입에 애를 먹고 있으니 관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자들의 장례식은 광주 시민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쇼. "

시장 " 모든 것을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

192 도청 /낮

수위실 옥상에는 총을 들고 폼을 잡는 시민군 사이에 변호사 1 단벌 양복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뒷짐을 지고 무기가 걷히는 모습 보고 있다.
도청 입구 마당에 총, 기관총 최루탄, 수류탄 어지럽게 쌓여있어 사람들이 정리한다.

시민 문 " 내가 군대에서 폭발물 담당을 했소 "
무기고 김 " 와따! 잘 됐소! 예비군들은 안 나오고, 애들이 총 들고 다녀서 큰일인데, 반갑소! 복영김이요."
시민 문 " 동용문입니다."
학생 이 " 식경이입니다, 반갑습니다 "

다이너마이트를 실은 8톤 트럭이 들어온다.

광업소 직원 " 화순탄광서 다이나마이트 가져왔소!"
도청에 있는 사람들 환호한다.
광업소 직원 " 이거는 뇌관이랑 다 연결되어 있응께 진짜 조심해야 하요! 같이 죽을 수 있응께!"

M1과 카빈총 등은 지하실 건물 바로 앞마당에 쌓아두고 폭약과 실탄, 최루탄, 수류탄, TNT 는 지하실 한쪽에 분류한다.

193 학동 배고픈 다리 지역방위대 / 낮

졸다가 잠들어버린 군인들은 하루를 산속에서 보내고, 오늘은 시내를 통해 상무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둘은 21일 증심사에 석가 탄신일 행사에 왔던 신자들이 23일에야 집으로 가려고 내려오는 사람 사이에 끼여서 시민군이 지키는 다리를 지난다. 밥과 옷이 없어졌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시민군은 배고픈 다리를 지키다 공수를 발견한다.

시민군 허 " 소대장님, 저기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군 장 " 나도 봤소. 모른 척하고 있으시오."

시민군은 담배를 피우면서 허술한 척 얘기를 한다. 태연히 통과하려는 공수대원. 시민군 장이 낚아채고 발로 차 쓰러뜨린다. 옷이 벗겨져 군번이 보인다.
80m 거리에서 도망가는 또 한 사람 시민군 장이 M2 자동소총으로 달아나는 사람 머리 위를 향해 쏜다. 달아나는 사람 그대로 서버린다.

194 도청/낮

수위실에는 총기가 어지럽게 널려있고, 쌓여있다. 여러 무리가 도청 각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다.
바닥에는 굴러다니는 수류탄, 오발 사고 총소리도 들리고, 와글와글하다.

밤에도 잠을 못 잔 핏발 선 시민군들, 수류탄 안전핀 고리에 줄을 달아 가슴에 달고 다니는 아이들, 총을 막대기처럼 들고 다니는데 총구가 사람을 향해 있기도 한 시민군들은 경찰들 비옷을 입고 폼내는데 더 마음 쓴다.

공수부대(사복을 입고 있다)가 잡혀 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시민군들 우르르 모여든다.
사복을 입은 공수대원들을 보며

시민군 막 " 트럭 뒤에 매달고 다니면서 돌로 쳐 죽여야 해! "
시민군 무 " 분수대 앞으로 끌어내 공개적으로 총살시키자! 당한 대로 갚아주자! "
시민군 가 " 죽이면 안 된다! 포로로 교환하자! "

무릎이 꿇려진 공수대원들의 얼굴은 맞아서 부어있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
상황실장 옆구리에 차고 있는 권총을 빼내 왼손으로 노리쇠를 후퇴시킨 후 총구를 천정으로 향해 들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본다.
상황실을 채우고 있던 시민군들이 와글와글하다가 갑자기 상황실이 조용해진다.

상황실장(시민 남) " 그 새끼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되재! . 요 새끼들은 나에게 맡겨두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오!"

시민군들 사무실을 빠져나간다

195 도청 복도/ 낮

상황실 맞은편 조사과 사무실
입구에 조사부라는 쪽지가 붙어 있다.
도청 내에서 조사과에서는 늘 큰소리로 호통을 친다
가장 시끄럽고 가장 힘센 곳이다.

시민군 중에도 수상하면 조사당하고, 조사당하면 힘을 잃는다.
조사과는 누구나 조사하면서 시민군 안에서 힘 가진 조직이 된다.
시민군을 통제하고, 일반 시민을 통제한다.
잡혀 온 공수부대도 조사하고, 시민군 내 프락치로 의심받는 사람도 조사하고, 조사과 마음에 안 드는 놈들도 프락치가 된다.
.
잡혀 온 공수부대원 둘이 심문을 받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신문 기자가 잡혀 와 있다.

기자 " 아무리 지금이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취재 기자는 대우할 줄 알아야지요.
사진 몇 장 찍은 걸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굴 거 있나요?"
소년 시민군 1 "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딘줄 알고 함부로 지껄이고 있어? 엎드려 벋쳐! "

주머니에서 카메라, 기자신분증 프레스 카드 메모용 수첩이 나온다.
어른 손바닥만 한 뭔가 나온다.

소년 시민군 1 " 이게 뭐야! 무전기다! "
기자 " 일제 라디오다! "
소년 시민군 2 " 우리가 촌놈인 줄 아네! 그 정도도 모를 줄 아냐! "

이때 들어온 조사과 지휘자
조사과장 " 첩자를 잡았다고! 당신 생긴 것을 보니 보안대 요원 같은데 정말 죽고 싶어?
이 새끼들 모조리 쏘아 죽여 버릴 거야! "

빈 권총을 기자에게 대고 철커덕 방아쇠를 당긴다.
기자 " 잠깐! 이유나 알고 죽읍시다! 뭣 때문에 이럽니까? "
조사과장 " 야! 아까 그 무전기 가져와 봐! (물건을 보고) 이게 뭐야) 라디오 같기도 하고 "
기자 " 라디오를 켠다! "

196 적십자 병원

조사과 시민군 " 공수부대원 둘이 시민들에게 복수를 당할까 싶으니 병원에 입원을 시켜 주십쇼 "
원장 " 그럽시다 "

197. 도경 /낮

사복을 입은 도경 국장이 부하 직원과 함께 도경에 들어온다.
자신의 사무실을 돌아본다.
아무도 출입한 흔적이 없다.
눈물이 난다.

198 상무관 /낮

상무관 가는 길 광장 풍경은 남도예술회관 벽에 사망자 명단이 붙어 있어 사람들이 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추도묵념을 드리기 위해 몰려와 일정한 숫자가 모이면 지휘하는 사람의 통제에 따라 상무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애국가를 부르고 묵념을 올린다.
태극기가 씌어 있거나 혹은 가족 및 죽은 사람의 이름이 씌어 있었고 미확인이라 씌어 있는 80여 개의 관마다 앞에 향이 피어오르고 있다.
관 앞에서 술을 따르거나 오열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추모하려고 기다리는 시민들 줄은 끝없이 길게 늘어서 있다.

199 광주 동부 경찰서 /낮

도경을 나와 경찰서 앞으로 간다.
시민군이 정문을 지키고 있다.

그냥 갈까? 들어갈까? 망설인다.

시민군 경 〃 무슨 일이요? 누구요? 〃
도경 국장 괜히 왔다 싶다.
돌아서기에는 늦었고
도경 국장 〃 경찰인데 볼 일이 있다.〃
시민군 경 〃 들어가쇼! 아무나 못 들어가게 우리가 지키고 있응께! 〃

경찰서 깨끗하다.
도경 국장과 부하는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경찰 뒷일을 수습한다.

200 도청광장

학생운동패가 주동하여 군중을 모아 죽은 이를 추모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고 선동한다.
광장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이와 가족이 죽었다고 하는데 시신을 못 찾은 이들과 포위 상태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학생운동패 극단 광대 사람들이 매일 오후 2시를 집회로 공고하고 다녀 사람을 모았다.

연사 1 〃 현 상황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무기반납은 절대 안 됩니다. 무기반납 후에는 엄청난 탄압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
변호사 1 〃 계엄분소 방문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군중 일부 〃 집어 치워라! 필요없다! 간단히 말해라! 끌어내 쳐라! 〃

201 계엄사 퀀셋 막사 /낮

수습위원들 버스를 타고, 150정의 총을 가지고 계엄사를 찾아간다. 흰 깃발을 꽂고 오고 간다.
목사 A 학생 A 150여 정의 카빈총을 군인들에게 돌려주고 잡혀간 사람 34명과 함께 도청으로 돌아온다.

신부 1 " 우리에게 시민군을 지휘 통솔할 권한이나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엄사 측에서 확실하게 시민들 요구사항을 보장만 해 준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적극 무기회수를 하겠습니다."
부사령관 " 무조건 무기반납부터 해주세요. 공수부대가 민간인에게 져서 쫓겨난 것에 대해 작전을 해서 군의 힘을 보여주자는 분위기입니다."
교수 A " 연행된 학생운동 지도자를 풀어주면 무장 시위대를 설득하기가 더 쉽겠습니다."
부사령관 " 지도자급들은 내 선에서는 풀어줄 수 없습니다."

시민 대표들 나가고 한 교수 A 가 할 말이 더 있는 듯 남아 있다
전투복 차림의 5명, 준장들 무슨 말인가 하다가 H 준장, 부사령관 다투면서 권총을 서로 뽑아 든다.

준장 H 〃 뭐야! '
부사령관 〃 이 새끼가! 〃

양쪽 부관들이 끼어들어 말리고 화가 난 장군들 모습을 보고 교수 A 가 슬그머니 나간다.

카메라 별 하나가 별 둘에게 권총을 들어대는 것을 보여준다.

202 상무관/밤

유족들이 시신이 또 어디론가 옮겨질까봐 밤에도 지킨다.
조용한데
빵 터지는 소리
유족들 놀란다
관이 시체가 부패하면서 관 뚜껑이 열리는 소리다.

군대가 도시를 둘러싼 넷째 날

203 09:55경 호남고속도로 광주 인터체인지

전투교육사령부 기갑학교 병력 120명이 도로 양편에서 매복하고 도로는 바리케이트로 막아놓고 있다.
31사단 96연대 3대대 병력 31명이 3대의 차를 타고 전남 영광군 부대로 복귀하려고 고속도로로 올라온다.
바리케이트를 보고 멈추자 사격이 쏟아진다.
31사단 병력 3명 사망 9명 부상

204 숲속 /오전

6일간의 부대 이동, 진압과 후퇴로 거의 쉬지 못한 공수부대는 재진입 작전을 위해 쉴 필요가 있다. 포위 작전은 20사단이 맡고 광주 비행장에서 쉬면서 도청 점령 작전을 할 준비를 하러 이동한다. 20사단 1000명이 교대하러 온다.
45대 이상의 군 트럭이 이동하는 모습을 숲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보병학교 교도대(사격을 가르치는 교관들) 중대 100여 명이 탱크를 파괴하는 로켓포와 기관총을 설치하고 참호 속에 숨어서 도로를 지켜 보고 있다. 도로 가에는 시민군들이 타고 다녔던 버스들 트럭 10여 대가 총구멍이 뚫린 채 처박혀 있다.

1200명의 병력을 실은 트럭이 오고 있다.

보병학교 교도대 1 " 뭡니까? "
보병학교 장교 " 공수하고 20사단 병력 교체한다 "
보병학교 교도대 1 " 폭도는 안 오네요! 우리한테는 전과 올릴 기회가 안 오나! "
보병학교 장교 " 앞에 부대들이 싹 쓸어 버려서 조용하네! "

도로 맞은편 숲 언덕에도 똑같이 매복하고 있다.
한편 동네 놀이터 언덕에서 아이 1, 2도 이 굉장한 광경을 보고 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 구경거리에 빠진 눈들이 행복해 보인다.

205 광주 화순간 도로 / 낮

25인승 버스 안에 시신들 그대로 있다. 11구의 시신들도 도롯가에 눕혀져 있다.
그때까지 있던 15명의 주검이 있는 버스에 올라간 20사단 연대장이 한마디 한다.

연대장 동 " 확실히 처리했네! "

자기가 해도 이 만큼은 해야 당연하다는 듯
길게 늘어선 트럭 45대, 공수대원들이 트럭에 오른다.

차량 이동 순서를 가지고 대대장들이 다툰다.

중령 3 " 산 넘어올 때 우리가 앞에 섰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대대가 앞장서라! "
중령 1 " 이동 순서가 정해서 내려왔는데!"

눈치 없게 3대대 작전참모가 중령 3 에게 이동 준비 완료 보고한다.
작전참모 " 이동 준비 끝났습니다."
중령 3 " 우리만 자꾸 앞장이야! "

206. 도로 /낮

광주 비행장으로 이동 중인 도로, 오전에 20사단 병력이 왔던 똑같은 길임을 하늘에서 보여준다.
행렬 선두에 선 장갑차에 중령 3, 작전참모 탄다.

1, 2. 화면 분할
장갑차가 폭도들에게 사격하는데, 그 소리에 놀란 매복 군대가 사격 준비를 한다.
두 개의 화면에서 한 화면(폭도들을 제압하는 곳)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다가, 군대가 다시 이동하면서 두 개의 화면으로 보여주다가 트럭이 8번째가 보일 때 한 화면으로 변한다.

1화면
이동 중 선두 장갑차가 효덕초등학교 앞에서 주민과 이야기하는 폭도 1, 2, 3, 4, 5를 본다.

중령 3 " 그냥 가자! " (별거 아니다)
시민군 M1 탕 소리와 함께 M16 사격하는 소리

중령 3 " 지원해라! " (할 수 없다는 듯)

장갑차가 기관총을 갈긴다.
사람들 쓰러진다.
시민군은 숨어서 사격하지 못한다.
폭도들이 숨은 주택가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사격한다.
운동장에 놀던 아이 총상, 마을에서 놀던 아이 1 사망.
트럭에서 내린 병력 기관총을 들고 폭도들이 숨은 곳으로 다가가 쏜다.

한편 폭도들 제압을 일부 병력에 맡기고 장갑차는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가던 길을 간다.
선도 장갑차와 차량 8대가 도로 모퉁이를 돌아 나아간다
트럭이 클레이모어 설치한 곳에 다가간다.

2화면
도로가 매복 중인 보병학교 교도대
카메라 하늘에서 매복하고 있는 군인들과 차량 이동 중인 군인 간 거리를 보여준다. 시민군들이 타고 다니던 버려진 버스, 트럭 10대도 보인다. 시민군을 저격했던 곳이다.
교도대 병력 도로를 바라보고 있다가 가까운 곳에서 엄청난 총소리가 나고 방아쇠를 당길 준비한다.

보병학교 지휘관 " 사격 준비! 기관총까지 가진 놈들이다."
보병학교 교도대 " 폭도다! "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 일부가 도로에 올라가 대열을 정비하고 로켓포를 겨냥하고 무엇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
관측장교 " 장갑차 1대, 트럭 8대 200미터 전방 "
숲 높은 곳에서 도로를 보고 있다. 무전병과 함께
도로 위 보병학교 교도대 지휘관도 무전병과 함께 위치를 보고 받는다.

지휘관 " 사격 준비! "
숲속 지휘관이 도로 위 지휘관에게 " 1 소대가 선두 장갑차 맡고, 우리가 뒤쪽을 맡는다. "

3.5인치 로켓포 어깨에 메고, 기관총을 겨누면서 무언가 보이기를 기다린다.
지휘관 (로켓포 사수에게) " 1번, 3번, 5번, 7번 트럭에 발사! "

한 화면으로

무반동총이 선두 장갑차와 4대의 트럭에 명중한다.
장갑차가 깨지면서 타고 있던 작전참모 대위, 전차병들 죽고 다치고
트럭에서 뛰어내려 길가로 피하려다 밟은 지뢰가 터진다.
지프가 도롯가에 멈추면서 지롸가 터지는 폭발음과 함께 지프 보닛이 날아간다.
배에 파편을 맞아 피를 흘리며, 철모에는 피가 가득한 채 "살려달라"는 고함
사지가 없어진 시체들,...9명 사망 40~60명 부상

트럭에서 내린 공수대원들은 공격이 어디에서 하는지 모른 채 주변 마을에다 사격하고 수류탄 던지고...
외양간 소가 죽고, 칠면조(250마리) 떼죽음
낮잠 자다가 총에 맞고, 논에서 일하다 총 맞고

8번째 차량 행렬 뒤쪽에 있던 차에서 군인들 뛰어내리며 언덕에서 내려다보며 사격하는 군인을 피해 사격 반대 방향으로 달아난다.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중학생 2~3명 놀라서 달아나다 달아나는 공수부대 눈에 띈다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른거리는 물체 둘을 보고 사격한다.

하사관 광 " 어디서 쏘는 거냐? "
하사관 범 " 저 언덕인데 ! "
하사관 방 " 저기 있다! "

중학생 방 머리가 총 맞고 깨진다

보병학교도 공수부대의 사격을 받아 죽고 다친다.
1명 사망 7명 부상 도망가는 병력도 있다.

보병학교 지휘관(무전) " 공격받고 있다. 지원 바란다. 무장헬기지원! "

작전참모의 몸은 분해되어 없어지고, 팔 하나가 없어진 중령 3이 지휘하려고 애쓴다.

중령 3 (무전) " 내 부하들 다 죽는다! 무장 헬기 지원! 무장 헬기 지원! "

트럭에서 내린 특전사 1 산으로 수색하며 가는데, 클레이모어가 소나무 가지 위에 걸려있다.
선을 발견하고 온몸에 땀이 흐른다. 선을 자른다.

207 효덕초등학교 근방 폭도 1, 2, 3, 4, 5 숨었던 동네

동네 주민 집, 화장실, 부엌에 숨었던 폭도 1, 2, 3, 4, 5, 어마어마하게 기관총 총알이 날아오자 꼼짝을 못한다.

하사관 15 " 투항하라! "
시민군 효 " 쏘지 마쇼! "
하사관 16 " 총 버리고 손들고 나와!"
시민군 덕 " 투항한다!" (악을 쓰고 나간다.)

포로들 곤봉, 개머리판, 워커 발로 전신을 수없이 구타당한다.

208 공수부대와 보병학교 전투지역 /낮

산속 보병학교 와 산 밑 공수부대가 교전 중
트럭 대열 뒤에 있던 중령 1, 2, 4 앞으로 나와서 상황을 살피고, 폭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나눈다.

중령 1, 2, 4 " 사격중지 "
부대원들이 넋을 잃고 사격을 멈추지 않는다
장교들이 돌아다니며 들고 있던 소총 개머리판으로 일일이 대가리를 쳐대니까 서서히 총성이 멈춘다

보병학교 지휘관 " 사격 중지! "

공수 대위 1 앞으로 기어나가면서 진지를 향하여 고함을 지른다.

공수 대위 1 " 야! 너희들 누구냐! 우리는 특전사다 "
보병학교 대위 " 우리는 전투교육사령부 보병학교다. !"
공수 대위 1 " 서로 총은 안 들고 중앙에서 만나자 "

중앙에서 만나니 보병학교 소속 대위다.

공수 대위 1 " 정규군 대열과 폭도도 구분 못 하냐! "
교도대 대위 묵묵부답 옆에 61대대원 누구를 보더니 반색을 한다.
보병학교 대위 "김 대위! "

이 때 하사관 복이 보병학교 진지로 달려간다.
그걸 보자마자 공수 대위 3 같이 달려간다.
하사관 복이 부상 당하여 떨고 있고 있거나, 겁먹고 있는 보병학교 애들을 죽이려 든다.

하사관 복 " 죽여버려겠어! '
공수대위 3 " 총 내려! 그만둬! "

땅바닥엔 허리가 잘려나간 시체, 손발이 없어져 신음하는 동료들이 즐비하다. 동료들을 헬기에 들어 올리면서 복수심에 돌아버린다.

209 보병학교와 공수부대가 전투했던 지역 도로가 동네 /낮

논에서 일하던 50대 여자 집으로 돌아오다가 군인들을 보더니 놀라 하수구로 몸을 숨긴다.
흰 물체를 본 공수대원 갈긴다.
총소리에 산으로 도망가는 농부에게 갈긴다.
공수부대가 주변 동네를 수색하는데 개가 짖자 개를 쏜다.
어느 집에는 방에는 어린아이 2명과 어른들이 벌벌 떨고 있다.
어느 집은 젖소가 죽었다고 울부짖는다.
어느 집은 낮잠을 자다 총에 맞아 있고,

하사관 수 " 국가의 반란군들이 도로에 지뢰를 땅속 설치하여 차량이 폭파되었다. 반란군들을 수색하겠다! "
송암동 주민 " 우리 가족밖에 없습니다 "

집에는 마침 동네 청년들 3명이 모여 있다.

하사관 수 " 물어볼 게 있다! 나와! ".

청년들은 양손이 뒤로 묶인 채이고, 군인들은 너도나도 개머리판으로 때린다.
청년들 얼굴은 알아볼 수 없게 망가진다.

동네 청년 1, 2, 3 " 살려주세요! "

210 하수구 물 흐르는 곳에

하사관 수 " 엎드려! "
하사관, 장교들은 미친 듯 하다.

211 전투 지역/낮

헬기가 연속 내리고 뜨고 부상자를 실어 나른다.
병사들 시신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모포에 주워 모은다.
여단장 특전사령관들이 나타난다.
할 말을 잃은 표정들
죽어있는 공수들, 팔다리 잘리고 후송을 기다리는 병사들 줄줄이 누워 있다.
작전 참모 죽어 있고 중령 3 팔이 없고 .....

주민들 총 맞은 사람들도 공터에 모여 있다.
헬기는 군인 사망자 부상자를 실어나른 후에, 주민 부상자를 실어 나른다.

효덕 국민학교 주택가 수색 현장과 송암마을 주택에서 잡혀 온 청년들 셋이 고개 숙이고 있던 하수구에서 포로 사살과 주민을 사살한다.

1 장면
하사관 6 포로 머리에 총을 대고 쏜다.
옆에는 포로들 4명이 있다.

2장면 하수구에 엎드려 있는 동네 청년 셋 등 뒤에서 탕탕탕

212 국군통합병원장실

국군 통합병원에 40~50명의 부상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산소가 없다.
국군 통합병원장 도청에 전화한다.
산소를 구해달라

진료부장 " 산소가 부족합니다 "
병원장 " 도청에 전화 연결해 봐라 "

화정동 공단 입구에는 탱크와 장갑차가 있고, 시민군 쪽은 목재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다.
기동순찰대원들 무장을 한 채 산소 실은 트럭이 통합병원으로 들어간다.

213 조사과

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자 강 ″ 총을 들고 와 강간했다 ″
조사과에 있던 시민군이 발로 찬다.
시민군 발 ″ 이 새끼가 시민들 지키라고 보냈더니 ″
조사 담당자 ″ 인적사항 대봐! 콩밥 좀 먹어봐야 돼! ″

214 도청

들어온다는 군인들이 들어오지 않자 도청에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수습위원 간에 논쟁이 심하다.
도망갔던 운동권도 시민군이 승리하고 군인들이 도망가자 다시 사선을 넘어 도시로 들어온다.
그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도청에 들어와 다수파인 수습파와 싸운다.
계엄사를 다녀온 수습파는 군대의 작전 준비 상황을 보고 왔고, 투쟁파는 학생운동 조직을 동원하여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 가면서 이길 수 있다는 낙관적 생각을 퍼트린다.
서로 간에 총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라기보다는 협박이 되기 쉬운 분위기에서 만난다.
수습파는 투쟁파보고 시민 희생을 만들고 있다고 빨갱이 아니냐고 하고, 투쟁파는 수습파를 시민의 피를 팔아먹고 있다고 비난하며 비겁자들이여 죽음이 두려우면 갈 테면 가라고 한다.
싸움은 힘 있는 자를 향하기보다는 이길만한 상대와 싸우게 된다.
외부의 적에 대한 적개심은 내부에서도 적을 찾게 된다.
중재자며 수습파인 변호사 1, 신부 1도 나이 먹었다고 존중받는 것도 아니다.

회의 참석자.
학생 수습위원 5명 변호사 1, 신부 1
의견이 다르면 서로 총을 들고 자기주장을 하면서 총을 들이댄다.
수습파 학생 시민 A, 투쟁파 학생 B 옆에는 각각 무장 경호원이 있다.

학생 A " 우리는 도저히 계엄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굴욕적으로 느껴질지라도 명예롭게 항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지 총 들고 끝까지 싸우다 광주시민 다 죽은 후에 민주주의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냐!
학생 C ″ 계엄사가 실제로 구속된 사람을 풀어주었다. 우리가 무기만 모두 반납한다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만약 이 상태에서 더 계엄군과 대결했다가는 엄청난 피를 흘릴 것이다. ″
학생 D ″ 서둘러 무기를 반납하자!"
학생 B ″ 시민의 피를 팔아먹지 마라! 시민군들이 무기를 반납하려고도 않을 것이고 시민군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민들을 폭도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학생 A " 궐기대회는 시민들을 흥분시키니 중단하자."
학생 B " 너희들은 왜! 마음대로 무기를 반납하느냐? 궐기대회에 나와서 입장을 밝혀라. 자신 없으면 너희들이 도청에서 나가라."
학생 A " 시민들을 얼마나 더 희생시키려고 그러느냐? "
학생 A 경호원 ″ 느그들 빨갱이 아니냐! ″ (진지하게)

학생 B 책상을 뒤엎고 노려본다.
학생 B 경호원도 총을 잡고 겨눈다.
학생 E " 그만둬! "

울음보를 터뜨린다.
다른 학생들도 서러움을 참기 어렵다.

신부 1 "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빨갱이가 어디 있고, 비겁자가 어디 있는가? 다 같이 살자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1 ' 억울하다고 총 들고 있는 어린애들을 싸움터로 보낼 수는 없네! 억울해도 살아야지 애들을 달래야지 같이 죽자고 하면 안 되네!"

215 진해 / 낮

항공모함 코럴시호가 입항한다.

216. 파출소

청소하는 직원

217 화정동 도로 /낮

무기고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발적이고 독자적이다. 무기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하고 행동한다. 다이너마이트 뇌관 제거가 있을 수도 있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계엄사와 협상을 시도한다. 수습위 목사 A 와 상무대 목사를 통한 다리로 상무대로 들어간다.

계엄군과 시민군 경계선 지역
시민 문, 시민 김, 학생 이 러닝셔츠를 흔들며, 차를 타고 경계선을 넘어간다.
중령이 탄 지프가 마중 나와 기다린다. 그 차를 타고 간다.
지프를 타고 들어가니
군인들이 출동 준비를 하고 긴장한 채 늘어서 있다.
헬리콥터, 탱크들 무수히 많은 것을 본다.

218 계엄사 부사령관실

회의 참석자 부사령관, 준장, 군목 시민군 무기고 담당 3명

군목 " 더 이상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통하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부디 좋은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
학생 이 " 다이너마이트 뇌관 제거에 협조하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공개 사과할

것, 사망자와 부상자에 피해 보상할 것, 무기를 든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말 것...."
준장 " 당신들 요구는 정치적인 문제라 들어줄 재량이 없다. "
학생 이 " 무조건 무기만 달라고 하면 시민들의 목숨은 어찌 됩니까? "
부사령관 " 무기를 내놓지 못하겠으면 뇌관만이라도 제거해 놓으면 어떻겠냐? "
뜸을 들이고 조용히
부사령관 " 무기고에 탱크 한 방만 쏘아 버리면 도청은 쑥대밭이 돼 버린다 "

학생 이 얼굴이 벌게지면서 일어나서 나간다.
시민 문 시민 김, 서둘러 따라 나가서 학생 이를 설득한다.

시민 문 " 제발 수류탄 뇌관이라도 제거하자 "
시민 김 " 네가 그 말마저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도청을 떠나겠다. 무서워서 더 무기고에 있을 수가 없다. "

학생 이 난처하다

시민 문 " 수류탄 뇌관만이라도 제거하자 "
시민 김 " 그래 하자 ! "
시민 이 " 형님들! 뜻대로 하쇼! "

폭약물 문관이 부사령관실로 들어온다.

부사령관 " 도청에 광주 반을 날려 버릴 수 있다는 다이너마이트 있다는 말 들었나? "
문관 " 예 ? "
부사령관 " 자네가 들어가서 수류탄 뇌관을 제거해주게! "
문관 " 군인도 아닌 내가요? "
부사령관 " 의심을 안 받고 도청에 들어갈 사람은 너밖에 없어! 머리도 길고, 나이도 젊은 너밖에 없어! 가주게! 시민도 살리고 군도 살려주게! 이분들이 도청 무기고 담당하는 분들이야. 이분들을 믿고 가주소!"

폭발물 문관 말없이 할 수 없다는 듯 오래오래 고민한다.

문관 " 신변 보장 각서를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각서에 서명하는 시민 문, 김, 이

219 전투교육사령부 /오후 6시

계엄분소장

" 아군끼리 오인사격으로 12명이 전사했소! 도청 작전을 연기하고 일체 대응 사격도 못 하게 하시오! 잘한다고 했더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하고"

지휘봉을 내리친다.

220 도청 무기고 /밤

시민 양이 방석모를 쓰고 판초 우의를 입고 지하실 입구에 버티고 있다.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호기심으로 기웃거리던 사람도 시민 양의 태도를 보고 돌아선다.

시민 양 " 형님들 다녀오셨소! 이 양반은 누구다요? ″
시민 문 조용히 여차여차 여차....
시민 양 ″ 아따!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섭섭하요만, 형님들이 잘 판단한 거로 믿소! ″

시민 문, 이, 김.... 계엄사에 온 폭약 기술자, 촛불을 켜고, 밤새 작업한다.
한참 뇌관 제거작업을 하는데, 학생 A 무기고에 들어와 보고 조용히 나간다.
밤 8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작업

시민 양 무기고 수문장으로 입구를 막고 있다. 폭약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왕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하실로 내려오는 계단을 책상과 의자 등으로 막아버렸다. 도청 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거의 왕래가 없다.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식당에서 밥만 먹었고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지하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잔다.

시민군 폭 ″ 폭약 잠 주쇼!″
시민 양 " 폭약을 가져가려면 나를 쏘고 가져가라. 당신이 나를 쏘면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러겠는가. 당신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위험하니까 내가 관리할 뿐이다."
시민군 탄 ″ 뭔 소리여! 무기를 주라니까! "
시민군 폭 " 너희들이 뭔데 무기를 주느냐 마느냐 하냐! 무기가 느그꺼여! 죽는 것은 우린디 느그들이 시방 뭐! "
시민 양 ″ 그라믄 지휘관이 직접 오쇼! ″

시민 양 시민 김 씨와 상의하여 될 수 있으면 적게 폭약량을 박스에 반 정도만 채워주며 시민군 지도자를 불러 말한다.

시민 양 " 오발 사고도 나고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설치니 그라요. 모두 달라는 대로는 못 주고 이것으로 잘 해보시오."

반 상자 분량을 준다.

신부 1, 3 청년 신자들 20명과 함께 지하실 입구로 온다.
멀리서 이따금 들리는 총소리

시민 문 〃 신부님들 오셨습니까?〃
신부 3 〃 폭발물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
시민 문 〃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군에서 폭발물을 다루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을 거로 압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
신부 3 〃 자네들을 보니 마음이 놓이네! 계엄군이 들어오면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고 같이 죽자는 소리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맘을 놓을 수 없네! 〃

221 광천동 공단사거리 화정동 지역방위대 /밤

아세아자동차 공장 부근, 교도소 부근, 무등산 입구, 백운동, 학동,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등등이 대치점이다.
시민군이 30~50명씩 카빈총으로 무장, 배치되어 있다.
구성원은 제대병이 많고, 음식점·구둣방 등 영세업체 종업원들도 상당수 있다.
책임자는 총기를 다룰 줄 알고 각개전투의 원칙 정도는 아는 이들이다.
충혈된 눈빛의 시민군들의 언행에서는 비장함이 엿보이지만, 한편으로 거의 절망에 가까운 표정들이다. 그들은 강경한 언행을 고수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수습의 빌미를 고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을 목격한 변호사 1, 신부 1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조건 총기를 반납하고 사태를 수습해서 희생을 줄이자고 주장한다.
한 번 총을 들고 얼굴이 팔린 시민군은 군인들이 들어오면 죽는다고 두려워하며 끝까지 싸우다 죽어 분다고 큰소리친다.

수습위원 중 변호사 1, 신부 1, 목사 A, 신부 G 수습위원들은 새벽 3시경부터 버스로 돌아다닌다. 헤드라이트는 켤 수 없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손가락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옆에 처박혀 있는 서울 번호판이 붙은 관광버스가 본부이고, 보초를 세우고 잠도 거기서 잔다. 계엄군 장갑차는 밤만 되면 양쪽 라이트를 환하게 켠다. 시민군은 통나무로 쌓았던 방어벽 앞 몇 미터에 차 타이어를 줄줄이 늘어놓고 석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다.

시민군 화 " 당신들 뭐요? "
변호사 1 " 우리는 시민 대표 수습위원들이네."
시민군 동 " 누가 인정하는 사람들 이다요? "
변호사 1 〃 자네들처럼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지 이런 일에 누가 박수친다고 나서겠나 ! 청년들이 다칠까봐 걱정되어서 왔네! 〃
시민군 수 〃 당신들이 우리가 흘린 피를 보상받게 해줄 수 있소?〃
신부 1 〃 그럴 자신은 없다. 그러나 무기를 반납해야 앞으로 희생을 줄일 수 있네!.〃
시민군 화 〃 그라믄 그렇게는 못 하지라. 죽으면 죽었지! 〃
시민군 동 " 시민의 피와 생명의 대가를 받기 전에는 무기를 못 내놓것소!."
목사 A " 계엄군이 시한을 정해 놓고 무력진압을 하려고 하네. 만약에 무기회수가 늦어지면 시민군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네. 그러니 인명피해와 막기 위해서는 무기회수를 해야 하네 "
시민군 수 " 당신들이 뭔데 아무런 보장과 대책도 없이 총을 반납하라고 하요?〃
총구를 들이댄다.

신부 1 ″ 천주교 신부이니 믿어주소. 오로지 광주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러 왔네.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 당신들과 우리가 다르겠냐?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 더 죽는다 한들 우리의 한이 풀리겠나!″

변호사 1 ″ 아까운 목숨이 너무 많이 죽었네! 군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는 게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죄도 없이 벌 받을 것이 무섭지만 그래도 살아보세! 자네들은 죽으면 안 되네.″

몇 사람이 무기를 반납한다.

군대가 도시를 둘러싼 다섯째 날.

222 지원동 지역방위대 / 새벽

계엄군과 시민군 중간지역에 민간인 한 사람이 저쪽 계엄군의 총격을 받고 쓰러져 있었다. 대치선을 건너다가 맞은 것이었다. 그 사람은 죽은 것 같은데, 시체도 끌어낼 수가 없다.

변호사 1 ″ 무기를 거두세! ″

시민군 지 " 이 새끼들 뭐야! 피의 대가를 누가 어떻게 보상하려고 무기를 회수하자는 거요! ″

총부터 들이댄다.

시민군 원 ″ 전쟁터에서 총을 달라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여! 얼굴이 다 팔려서 잡혀가서 죽을 것인디!″

변호사 1 " 무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정부와 계엄 당국을 상대로 보상문제와 보복과 처벌금지에 대해 수습위원들이 협상하고 있네. 억울하다고 싸우다 죽으면 안 되네! ″

시민군 학 " 총을 반납한다면 다 죽겠다는 얘기요. 우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든가 하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반납해도 반납할 것이 아니요! "

시민군 배 " 그렇게도 목숨이 아깝습니까? 형제들은 죽었는데 우리만 살아서 뭐 하겠다는 거냔 말이여."

신부 1 ″ 자네들 목숨은 아깝네! 지금까지 죽은 것만으로 충분하네!, 이 억울한 일은 당장 풀어질 수 없네! 젊은이들 다 죽으면 산 사람들이 어찌 되겠는가!″

시민군 어 ″ 배고프다! ″

수습위원들은 무기회수를 위해 한 바퀴 돌아본 다음 도청으로 가서 빵과 음료수를 싣고 다시 외곽지역을 차례로 돌면서 빵과 음료수를 주고 다시 설득한다.

223 백운동 지역방위대

시민군의 태도는 단호하다.

백운동 시민군 1 "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무기반납은 절대로 못 한다. 수습되면 우리는 끌려가 죽는다! "

신부 1 "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
목사 G . " 우리 시민들 살려 도라!"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며 통사정을 한다
변호사 1 " 무릎 꿇는다고 세상 다 끝난 것 아니네! 참고 견디면 자네들 세상이 올 거네! 이 짓을 하고 저놈들이 몇 년을 해 먹겠나! "

수습위원들의 애절한 호소에
백운동 시민군 1, " 철수는 하되 무기반납은 하지 않겠소!."

시민군들 함께 트럭에 올라 도청으로 돌아온다.
도청 식당에서 여자 봉사대원들이 지어준 따뜻한 밥으로 굶주린 배를 채운 다음 총기를 반납한다.

224 광주 비행장/낮 공수부대

공수부대 오인사격 희생자들 13명에 대한 영결식을 한다
트럼펫 진혼곡이 울리고, 특전사 군가 "검은 베레모" 부르며 운다.
관이 비행기로 옮겨진다.

225 전투교육사령부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자 계엄사령관, 내무부 장관, 보사부 장관, 건설부 장관 전교 사령관, 도지사, 도경 국장, 그 이하 전교사 간부들과 부대장들, 부사령관

전교 사령관 " 무기회수 등 사태수습을 위해서는 작전이 불가피합니다 "
대통령 " 도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
도지사 " 열흘 가까워지니까 생필품이 궁색해지고 치안 공백 상태가 더 지속해서는 안 되니 조속히 수복해야겠지만, 이 이상은 희생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계엄사령관 " 그럼 들어가란 말이냐, 들어가지 말란 말이냐? "
대통령 " 李 장군, 李 장군 "
도지사 " 그 이상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軍이 들어가고 안 하고는 軍 작전상의 문제가 아니냐? "

계엄사령관이 대통령 맞은편에서 앉아 있던 전교 사령관을 향하여 소리친다
계엄사령관 " 소장군, 도지사가 들어가라거든 들어가 "

계엄이니 내가 대장이다.

계엄사령관 " 경찰이 무장하고 도청을 접수하라! " 윽박지르듯
도경 국장 " 경찰은 무장 시위대 중에 형제, 가족도 있을 테고 이웃도 있는데 경찰이 무기를 사용하면서까지 할 수 없습니다 "
계엄사령관 " 저런 사람이 전남 치안을 맡은 경찰인가? "
침묵

대통령 " 내가 도청을 방문하여 시민들을 설득할까요? "
장군들 〃 안됩니다! 인질이 되어 버립니다! "

226 도시 경계선

군인들이 검문한다.
검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랗게 줄지어 기다린다.
길가에는 피 묻은 버스들이 놓여 있다.

검문하는 군인 〃 너 데모했지 ! 〃
때린다.

227 Y.W.C.A/낮

YWCA 건물 안에서는 투쟁위원회 사람들과 민주인사로 구성된 수습위원회가 서로 다른 곳에서 모임을 하면서 충돌한다.

장로 1, 2. 〃 너희들 총 들고 싸우자고 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여기서 나가라! 총 다 뺏어라!"

수습위원 장로 1, 2는 악을 쓰지만, 청년들은 귀머거리인 채 총 들고 끝까지 싸우자는 대자보를 쓴다.

228 금남로

전일빌딩 셔터문
수습위원 장로 1, 2가 금남로 곳곳에 붙어 있는 대자보를 찢는다.

229 YWCA

한편 투쟁위원회는 광주에서 도망갔던 조직원들이 돌아오면서 YWCA 에 모인다.

시민 기 〃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와 있다. 일주일만 버티자! 〃
시민 을 〃 예비군 조직을 동원하자 〃
시민 11 〃 궐기대회와 대자보에 학생들이 모였고, 총기 사용법을 가르쳤으니 이 사람들과 함께 도청에 들어가 수습위원들을 몰아내자 〃
시민 정 〃 도청 안에 T.N.T 가 폭발하면 광주가 날아간다. 군대가 못 들어온다! 〃
시민 현 〃 무기를 반납하고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어차피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희생은 난 것이다. 우리의 민주화 요구는 당연한 것인데 더 이상 희생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무장까지 한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시민 윤 〃 도청내 수습위내에 무기 반납파가 다수다. 우리가 들어가서 시민군과 힘을 합하여 결사 항전파를 모아 보자. 피해가 더 나고 덜 나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피해는 난 것이니 우리의 주장이 옳다면 끝까지 항쟁해야 한다. 당하더라도 끝까지 싸우다 용감하게 당해야 할 것 아니냐".

시민 영 〃 도청으로 들어가자! 도청을 며칠만 더 사수하면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광주시들의 민주화에 대한 피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 69 세무서

군중이 노동청 건너편에 있는 세무서 앞 도로에도 가득하다.

시민 무 〃 국민 세금으로 생활하는 군인이 국민을 때려죽이니 세무서를 불 질러 버립시다 〃

시민 서 〃 세무서를 불 지르면 국민 세금으로 다시 지을테니 우리 돈만 손해입니다 〃

시민 갑 " 싸움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230 도청 상황실

시민 윤 〃 수습위안에 무기 반납 의견이 많아서 걱정된다. YWCA 에 학생들을 모았는데 시민군 사이에 학생에 대한 불만이 커서 들어오기가 조심스럽다. 〃

상황실장 〃 들어와서 같이 일합시다. 〃

231 광장 /밤

YWCA 에서 학생 70명이 도청으로 걸어간다.

시민 을 〃 도청에 양아치들이 총 가지고 있고, 투항파는 무기반납하려고 한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밤 도청 질서를 바로잡자. 〃

광장을 지나면서 행진곡 부른다.

〃 노래 부르세 즐거운 노래 이른 아침 안개를 뚫고 내일은 전선 멀리 떠나갈 이 밤을 노래 부르세 ... 〃

232 도청 2층 식산 국장실/ 밤

학생 B, G, 시민 윤, 시민 영, 시민 이가 모인다.
시민군 윤, 시민군 정 팔에는 완장이 보인다.

학생 A 〃 청소년 시민군으로 끝까지 싸울 셈이냐? 무기를 내놓고 당장 도청을 떠나자! 〃

시민 윤 〃 여기서 죽으면 죽지 총을 놓을 수 없다. 피의 댓가도 없이, 항복할 수는 없다. 수습 후에도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총을 못 놓겠다."

학생 A 〃 당신들이 진즉 도청에 들어와서 협상대표로 계엄사에 가보았으면 군대 분위기를 알텐데, 결과가 뻔한 일에 무모하게 어린 시민군들을 선동하지 마라! 당신들 심정이야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군대는 진짜 오늘, 내일 들어온다니까! 〃

233 도청 본관 1층 상황실

기동타격대가 계엄군 한 명을 잡아 온다.
상황실장 " 언제 어쩌다 잡혔나?"
김 병장 " 조금 전 외곽병력에 밥 배달하고 돌아가는 길에 잡혔습니다."

상황실장 김 병장과 밥 먹는다.
김 병장 " 저 부탁이 있는데요? 제 총도 찾아주세요! 총 번호가 123456입니다 "

234 상무대 가는 도로

구급차 타고 시민군과 계엄군의 경계지대 텅 빈 도로를 건너가는데 병장 손에 총이 쥐어져 있다

235 도청 /밤

학생들이 서 있고 학생이 수습위원들에게 말한다. 수습위원들 같이 있기로 하다.

학생 폭 " 시위대가 화순에서 가져온 TNT 가 터지면 도청 주위 4㎞가 불바다가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같이 있어 주십쇼 "

군대가 도시를 둘러싼 여섯째 날

236 도청 안 /새벽

신부 1. 발이 붓고 물집이 생겨 있는 모습, 잠을 못 자고 지쳐 있다.
재야 민주 인사들도 정부 쪽 인사들을 밀어내고 도청 내 수습위원들이 되었지만,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모여서 잠을 자지 않고 걱정한다.

변호사 1 " 오늘은 학생들이 더 많이 보인다. "
수습위원 장로 1 " 싸우자는 애들이 YWCA 에 모여서 도청으로 들어온다. "
수습위원 장로 2 " 그 많던 군중이 다 흩어졌는데도 젊은이들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궐기대회에서 손뼉 치는 사람만 보고 시민들이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고집한다. "
변호사 2 " 대통령이 우리와 만나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리고, 군대가 다시 들어올 작정인가 봅니다."

구내방송 " 비상! 비상 ! 계엄군 탱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도청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총을 가진 시민군, 학생 전원 우르르 몰려오면서 총, 총알을 배급받는데 질서가 없다.

학생 A (전화) "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폭하겠습니다! "
부사령관 " 대표 2~3명만 들어와 이야기해 보자. "

밤새운 수습대책위원은 17명이다.
수습위원 주변에 시민군이 대책을 듣고 있다.

대변인 신부 " 전차가 진을 치고 있는 데로 나갑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는 불을 뿜을지 모르는 전차 앞에 나가도 죽을 것이며 여기 있어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원 나갑시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여기 남아서 여기를 지켜주십시오 "

수습위원 17명 전원이 찬동하여 일어난다.
시민군들은 타고 가라고 버스를 내준다.

시민군 " 버스 타고 가십시요! "
변호사 2 " 학생들이 내준 차를 타고 갔다가는 후에 영락없이 폭도로 몰릴 것이다. 걸어가자! "

모두 걸어간다.

대변인 신부 " 어른들이 총 맞으러 갈 테니까 그놈들이 쏘면 할 수 없지. 우리가 먼저 죽을 거야. 너희들은 여기서 끝까지 싸워라. 만약에 우리를 죽이고 여기에 오면 너희들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워라. "
237 화정동 경계지역

4㎞ 정도 행진한다. 농업진흥원 앞에 보도를 차단하고 서 있는 전차가 마치 괴물과 같은 포문을 길게 뻗쳐 있다.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오기 시작한 시민이 어언간 수백 명이. 외신 기자 카메라가 촬영한다. 드디어 2중으로 쳐진 방어벽까지 간. 소령 1명이 굳은 표정으로 맞이하면서 부사령관이 곧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한다. 아침 9시경이다. 시민은 점점 증가한다. 양측 인도에서 착검한 계엄군이 실탄을 장전하고 시민을 경계하고 있으며, 양측 빌딩 2층과 옥상에서도 군인들이 보인다. 얼마 있으니 좌측의 인도에서 군인들이 기관총을 내걸고 시민을 향하여 발포태세를 취한다.
수습위원들은 군인들이 제공하는 버스도 거절하고 걸어서 상무대까지 간다

수습위원 장로 1 " 우리를 깔고 지나가라 "
대로에 대자로 눕는다.
.
238 저수지

광주에서 남평가는 샛길주변

낚시꾼 1, 2, 3, 4, 한참 기분좋게 낚시한다.
연신 올라오는 고기들

군인 " 엎드려 !"
9명의 군인이 수색중이다.
군인 " 잠수! "
낚시꾼 1, 2, 3 저수지로 뛰어든다.
수영 못하는 낙시꾼 1 " 아푸, 아푸 "
낚시꾼 4 물이 무서워 못들어간다.
군인 엉덩이를 차 빠트린다.

20대의 청년 둘이 마침 그쪽을 지나간다.
군인 " 서라 ! "
청년들은 150M 도망간다.
두 명의 군인이 뒤쫓아가서 계속 총을 쏜다.

소위가 낚시꾼들을 물속에서 나오게하고
소위 " 당신들이 속이 있느냐? 이 경황에 낚시를 하느냐? "
낚시꾼 " 미안합니다 "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 저수지 둑 가에 한 명이 죽어있다.

239 도청 시체 정리반

기동타격대 지원하라는 방송이 들린다

팀장 " 인자 집에 들어갈라요 "
봉사자 1 " 기동타격대 지원할라요! "
봉사자 2 " 남아 있을라요! "

240 계엄사 퀀셋/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가운데 계엄분소장이 앉고 좌우에 장군들과 수습위원들이 앉아 있다.
수습위원들, 학생 A 등 11명과 부사령관, 준장 둘, 중령 한 명 마주 앉는다.

부사령관 " 나는 군인입니다. 정치문제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기를 회수하여 군에 반납하면 경찰이 치안을 회복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30분 안에 이야기를 끝냅시다. 오늘 중으로 무기를 회수하고 시내질서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못 한다면 앞으로 나하고 수습대책회의를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대변인 신부 "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 대화하자면서 30분 안에 끝내자는 게 말이 됩니까? 방송에다 계속 광주시민들을 폭도라고 하면 됩니까? 왜? 폭도라고 하요? 왜? 우리가 폭도요? 당장 그런 말을 쓰지 마쇼. 광주 시내에 절대로 군인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수습하더라도 경찰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인인 우리 백성이 사준 총칼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준장 H " 더러워서 못 듣겠네! "

문을 꽝 닫고 나간다.

부사령관 〃 이제 마지막이니 제발 무기를 반납하고 시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나도 고향이 전라도인 사람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더 작전을 미룰 수도 없고 제힘이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일이 끝나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통합병원에는 군인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살상당한 많은 전우의 모습을 본 젊은 군인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2 " 군대가 들어오면 진주하면 시민이 많이 죽는다. 지금까지도 많이 죽었는데 또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1주일만 연기해주면 우리가 무기 회수해서 모두 반납하겠소 〃

부사령관 " 안 됩니다."

변호사 2 " 그럼 3일만 시간을 주시오."

부사령관 " 그것도 안 됩니다. 무력으로 쫓겨났으니 무력으로 들어가서 군의 체면을 세우자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241 상무관 /오후

시청 직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서 도청광장에 들어서는 도지사 ,

시청 직원 〃 도지사님! 상무관부터 들리시지라!.〃

상무관에 들러 운다.

유족들 〃 살려내라! 니가 군대를 불러들였냐? 〃

멱살을 잡고 항의한다.

학생들 말리고 도청으로 안내한다.

242 도청 도지사실/낮

도지사, 시장, 학생 대표.

학생 B "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계엄사와 더 대화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총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망자들을 도민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지사 〃 사망자에 대해서는 28일 도민장을 치를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학생 G 〃 앞으로 성역이 될 만한 그런 장소를 시에서 내놓으십쇼!〃.

시장 〃 그것은 불가항력의 일이니 양해하소. 썩어가는 시신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는가?, 아직 적당한 장지도 없는데 언제 장례를 치르겠는가?. 대신 망월동 묘지를 내줄 테니 그곳을 장지로 정하자 〃

울면서 호소한다.

학생들이 그 말에 수긍하고 망월 묘지를 장지로 결정한다.

243 도청 2층 식산 국장실 /낮

기동타격대 애들이 건달 시민군에게 총을 겨누면서 총을 내놓으라고 하고 총을 다 회수해 가는 데 오기가 난다. 건달 시민군도 사나이인데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애들을 긁어모아 기동타격대에 들어간다.

구내 방송 " 결사 항전할 사람으로 기동타격대를 만드니 지원하기 바랍니다."

몰려드는 지원자들 6조까지 편성된다.
건달 시민군 무리는 기동타격대 지원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끼려고 한다.

타격 부대장 " 조가 다 편성되어서 안 된다 "
건달 시민군 1 " 우리 애들 여기 있다! " 여섯 명 둘러싼다.
타격 부대장 " 7조하고 보급 운반 담당해라! "

선서식
선서 "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시민을 지킨다!"

대변인 신부 격려사

" 이제 우리는 네발로 기어 다녀야 하며, 개. 돼지처럼 입을 밥그릇에 처박고 먹으며 짐승처럼 살아가야 한다. 두 발로 걸으며 인간답게 살려면 목숨을 걸고 민주화 투쟁에 헌신해야 한다. 지난날의 침묵, 비굴했던 대가를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의 시기를 맞이했다. 비굴하게 짐승처럼 목숨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인간답게 민주시민으로서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

244 도청 1층 상황실

시민군 위(시민 위) " 어떻게 해서 장악한 도청이고, 계엄군의 만행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우리들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를 반납해서는 안 된다. 전장에서 군인이 총이 없으면 도대체 뭐로 싸우자는 거요? 앞으로 총을 반납하자고 하는 사람은 모두 쏴 죽이겠으니 나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가라! "

상황실장 " 내 뜻이 당신 말과 같다! "

245 도청 2층 내무 국장실/오후

사무실 밖에는 어린 시민군들이 총을 들고 있고
기자회견장에는 10명가량의 외국 기자들,

대변인 윤 " 우리는 한국정부 혹은 계엄 사령부 누구와도 교섭할 마음이 없다. 미국은 한국정부를 움직일 수 있으니, 미국이 한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의 수습에 이바지해 줄 것을 희망한다."

Bradley Martin " 군대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시내를 재탈환할 수 있다. 빈약한 무장을 한 학생들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

대변인 윤 "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날려 보낼만한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령 진다고 해도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기자 (학생 B 에게) " 국내외의 여론이 광주사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5일만 더 버티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

246 광주 인근

155mm 곡사포를 도청을 목표로 배치 조준하고, 포병들이 준비 완료, 확인한다.

247 수원 비행장

F5 전투기 MK -82, 500파운드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비상 대기하는 조종사들

조종사 1 " 광주가 빨갱이 세상이라며 "

조종사 2 " 우리가 가면 끝나는 거지! "

248 도청 안 2층 부지사실 /저녁

수습위원들 학생들 30여 명 모두 모여 있다. 다수의 분위기는 무기반납으로 모인다.

학생 B " 계엄사와 무조건 협상하면 안 됩니다. 협상이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무기를 반납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집니다. 무기를 반납하면 안 됩니다! "

학생 A " 더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반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저항해봐야 이길 수 없습니다. 무기를 반납하고 도청 지도부를 해산하고 인명피해를 줄입시다. 그렇게 해야만 무기로 사수하는 것보다 시민의 희생을 막는 길입니다! 계엄 당국에서 오늘 자정이 무기반납 시한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무기를 반납합시다. 현재 군부의 동향으로 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광주를 진압할 작전을 세울 게 분명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광주시민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무기를 모두 반납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합시다."

학생 B " 이 참혹하게 죽은 시신을 놔두고 절대 도청을 나가지 않겠다 지금 총기를 반납하면 전부 죽으란 말입니까? 나는 여태까지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의 목숨은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받은 것이 없는 상태로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평화적인 수습도 보장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불명예스러운 항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버리고 도청을 나가겠다면 잡지는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합시다. "

시민 정 " 지금에 와서 싸움을 멈추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입니다. 시민의 피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매일 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의 함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계엄사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항복을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미국이 항공모함을 이동시켰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수습파 이 " 궐기대회를 해도 모이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폭력적인 진압에도 모여들었던 15만의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죽음을 보고 왜? 안 모입니까? 우리의 힘이란 게 청소년 시민군 아닙니까? 총으로는 시민들 마음을 못 얻습니다. 총 없이도 싸울 수 있습니다. 도청을 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까? 시민들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겁니다. 잡혀가면 어떻습니까? 삽시다. 사는 게 비겁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총 든 당신들만 정의파란 말이요? 다이나마이트와 함께 죽겠다!는 말로 협박하지 마세요! "

신부 1 " 이렇게 되면 다 죽게 되네. 그들이 들어오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무기를 돌려주어 버리고 평화적으로 도청에서 물러나세! 병력을 보충해도 막강한 화력을 지닌 정예 공수특전대를 당할 수 없을 것이네. 미군이 항공모함을 보냈으면, 군인들을 도우러 왔지, 우리를 도우러 왔겠는가? 쓸데없는 것에 희망을 걸면 안 되네. "

시민 현 " 신부님 죽는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꼭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옥쇄해야 합니다 "

변호사 1 " 사는 게 먼저입니다! 자네들이 살아야 하네! 총을 걷으러 다니다 보니 시민군이 우리한테 총을 겨누면서도 지원을 못 받아 굶고 있데! 시민과 함께 싸울 기회를 생각하고 도청에서 물러나세! 자네들이 어린애들을 달래야지 자네들이 이렇게 나오면 안되네! 같이 살자고 총을 들었으면 같이 살기 위해 총을 내려 놓세. 다 같이 죽자고 하면 안되네! "

시민 정 " 우리는 모두 죽고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끝까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못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 최후까지 일합시다 "
울음으로 호소한다.

학생 A " 무기반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청에서 물러납시다. "

249 상황실

대변인 윤 " 수습위에서 무기 반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상황실장 " 가봅시다! "
타격대장 " 죽여버릴라니까! "

250 도청 안 2층 부지사실

학생 B 일어나며 " 참 슬프다. 그렇다면 나는 도청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학생 A " 이렇게 끝나게 되어 우리도 안타깝다. 그러나 어쩌겠느냐?"

학생 A " 무기반납이다! " 소리치고 나가는데

우당탕 소리가 울리며 상황실장과 기동타격대장이 군홧발로 문을 걷어차면서 들어온다.
기동타격대장 손에는 M16이 들려 있다.
기동타격대장 곧 사격할 듯 철커덕 총알이 나가게 준비한다.

상황실장 " 누가 수습을 하자고 그러느냐. 대체 어떤 놈들이야! "

상황실장, 옆구리에 찬 권총 혁대에서 권총을 빼 들고 하늘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가 천천히 내려 그들을 겨눈 채

상황실장 " 어느 놈이 마음대로 무기반납을 결의했느냐? 앞으로 이제까지 죽어간 사람들의 피를 배반하고, 그따위 소리를 지껄이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 시민의 전체 의사를 무시하고 계엄당국과 내통하여 무조건 무기를 반환하자거나 하는 놈이 있으면 모두 죽여 버릴 테니 모두 도청을 떠나시오! 알았소? "

수습위원들 침통한 표정들, 겁먹은 표정이 아니라 결국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비극을 예감하는 얼굴
수습위원 중 늙은 여자 둘, 천주교 대주교 눈물을 흘리며 회의실을 나간다.

251 도청 정문 /저녁

학생 이 엄마가 도청 입구에서 큰 대자로 누워 큰소리로 외친다.
시민 문 지하실로 가서 자는 시민 이를 깨운다.

엄마 " 식경이! 나와라! 집에 가자! "
시민 문 " 나가봐라. 느그 엄마 오셨다."
학생 이 " 오늘 밤 무기고 보촌께 내일 아침에 집에 가께! "
엄마 " 집에 가서 자고 내일 다시 나오자! "
시민 문 " 내가 니대신 지키께! 집에 가라! "

다른 한편
고등학생 시민군 1 " 형! 나 갈라요 "
총을 준다.
건달 시민군 1 " 그래라! "

도청문은 열려 있다. 지키는 사람도 없다.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온다

252. 식당

학생 A 는 식당에서 취사를 담당하던 여학생과 외곽 경비를 서고 있던 사람들을 설득한다
학생 A " 계엄군이 곧 들어온다 "
상당수의 사람이 함께 빠져나간다.

253 도청 마당

도청문을 지키던 시민군이 없어지고, 도청문이 열린 채
도청 앞 집회 후 시가행진하고 난 뒤에 헤어지기에 미련이 남은 200여 명이 남아 있다.
시위 주도자가 사수하자고 선동한다

도청을 나가면서 대변인 윤에게 당부한다.
학생 A " 어떠한 일이 있어도 80만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은 하지 마시오."

시민 전 " 사수하자! "
200여 명 군중 " 사수하자! "

도시를 사수하자며 들어오는 젊은이들을 지켜보는 신부 1
오늘이 주보 성인 필립 보 네리 축일로 본당의 날이다.

신자들 " 오늘 밤 축일 미사를 집전해주세요! "
가시자고 팔을 잡고 놓지 않는다.
신자들 " 위험하니 오늘은 성당으로 가셔야 한다! "

신부 1 도청을 나서는 심정
한편으로는 비겁하게 나 혼자만 살기 위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심정과 또 한편으로는 저 많은 젊은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은 운명의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닦아도 닦아도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자꾸만 흘러내린다.

254 상무관 /밤

유족들 계엄군이 곧 다시 들어온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모두 돌아간다.

중학생 엄마 " 집에 들어갔다가 나옵시다! "
유족들 " 그럽시다! "

255 성당 /밤

성당에서는 3백여 명의 신자들이 신부를 기다리며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다.
신부 1 도청에서부터 줄곧 눈물을 흘리며 성당에 들어온다.
미사를 시작하면서

신부 1 " 오늘 밤 시민들이 또다시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될지 모른다 "

흐느낀다. 모든 신자 함께 울음을 터뜨려 울음바다다.

신부 1 강론

"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된 군인들이 무고한 시민을 죽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것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문을 모르고 죽어간 시민들의 목숨과 불의에 항거한 젊은이들의 피는 우리 고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옥에서 구할 수 있는 의로운 피가 될 것입니다. 의인의 억울하고 애통한 죽음과 그 피는 하늘에 사무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염원을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울면서 호소한다

미사를 드리면서 성체를 간절한 마음으로 모신다. 마음속 깊숙이에서 "도청에는 젊은이들밖에 없는데, 그곳에 가봐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다. 몇 번이고 나는 "예수님, 미사를 마치고 도청으로 가겠습니다.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라고 되뇐다. 미사를 마쳤을 때는 혼자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다. 신자들의 부축을 받고 사제관 소파에 걸터앉는다.

256 YMCA 강당/ 밤

사수하자는 선동에 이끌린 젊은이들 150여 명이 앉아 있고 상황실장 대변인이 앞에 서 있다.
상황실장은 옆구리에 권총을 차고 위풍당당하다.

상황실장 〃 총을 쏠 줄 알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기동타격대에 가입하라 〃
대변인 〃 고등학생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서 우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
고등학생 〃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 〃
예비군 중대장 〃 총기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이쪽으로 〃

257 상무대 계엄분소 /밤

전투교육 사령관(계엄분소장), 20사단장 3, 7, 11공수여단 장 ....별자리들 10명

작전참모 보고한다.
〃 각 단계가 실패하면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공수 특공대가 제압하고
2단계 도청 폭파 특공조 들어가고
3단계 155mm 곡사포 준비
4단계 공대지 전투기 폭탄 투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58 광주 비행장 비행기 격납고 /밤

공수부대 소령이 지휘하는 특공대에게 도청 구조를 설명하는 보안대

소령 5 〃 현재 도청에는 극렬분자만 남아 있다.!〃 각자 맡은 구역, 건물 구조를 숙지해라! 〃

한쪽 구석에서 10명 팀원에게 무기고에 있는 폭도를 확인 사살할 것을 지시한다.

소령 5 〃 도청 민원실 지하실이 무기고이다. 이곳은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하려는 악질 폭도들이다. 무기고 담당 폭도들 이름을 알아두고 확인 사살하라!〃

군대가 도시에 다시 들어온 첫째 날

259 도청

전투태세에 대비해 전경들이 쓰던 각반을 차는 사람도 있고 방석을 목에 거는 사람, 헬멧을 쓴다 더라는 말이 나돌면서 너도나도 각반을 차면서 웃는다.

고등학생 시민군 〃 총알을 달라 〃
건달 시민군 1 〃 나가! 느그들은 살아야재! 〃 (총을 빼앗는다)

260 도청 안 방송실/밤

상황실장 〃 나가야 할 사람은 지금 나가십시오. 고등학생, 여학생들 나가주세요. 마지막이니 갈 사람은 가시오. "

261. 상황실

상황실장 독백 〃 설마 군대가 또 들어와 학살할까? 〃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무전기 소리에
소파에서 잠을 자던 상황실장 눈을 비빈다.

변호사 1이 방에 들어온다.

상황실장 〃 어째 오셨습니까? 〃
변호사 1 〃 음~ 나는 살 만큼 산 몸이야 그래서 젊은이들과 이곳에서 죽으려고 집에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왔네. 청년들만 놔두고 나 혼자 집에 가서 잠을 잘 수는 없지 오늘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인데 나도 이곳에 함께 있겠네. 〃
상황실장 〃 뜻은 고맙지만, 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
변호사 1 〃 의자에 앉는다 〃
너는 네 생각대로 해라.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는 듯

도청 옥상 고성능 스피커 여자 목소리

"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모두 나오셔서 계엄군을 저지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을 도와주

십시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

262 도청 마당

지원자 ” 총 어떻게 쏘요?”
기동타격대원 할 말 잃은 얼굴

전일빌딩 옥상 시민군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다.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전일빌딩을 향하여 기총소사 후 공수부대들 도청을 향하여 접근한다.

263. 도청 2층 복도

건달 시민군 1. 건달 시민군 2 도청 본관 2층에서 장난치다 총소리를 듣는다.

건달 시민군 1 ” 야! 총탄이 안 나가야. "
건달 시민군 2 " 그럼 이리 줘봐라. "
건달 시민군 1 " 야! 인마 총탄이 두 알 박혔잖아. "

건달 시민군 1이 총을 쏘는데 건달 시민군 2가 옆에서 '픽' 쓰러진다.
건달 시민군 1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안다.

건달 시민군 1 " 야, 인마, 얼른 일어나야. "
건달 시민군 2의 몸을 만지니까 따뜻한 피가 흘러내린다.
건달 시민군 1은 친구가 죽자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도 났고, 아니면 이성을 잃었다고나 할까. 그때부턴 무조건 갈기기 시작한다
변호사 1 건달 시민군 2를 잡아끌고 복도에서 사무실로 들어간다.

변호사 1 복도에서 총을 쏘는 고등학생 시민군에게 다가가 ” 쏘지 마라! ”
고등학생 시민군 총을 버리고 운다.

1층에서 2층으로 도망 오면서 총을 들고 들어오는 시민군에게

변호사 1 “여기는 비무장 방이다. 들어오려면 총을 버려라.”

민원실, 강당, 지하실 무기고
너희는 포위되었다 손을 들고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려준다. 방송이 들리고

시민군 병 ” 후문이 무너졌다!”

후문 쪽이 바라보이는 창문으로 옮겨가는 시민군 윤, 영, 현

시민군 윤 ” 형님 나갑시다! ” 하는데

창문으로 총알이 날아오고 시민군 윤 쓰러진다. 시민군 영, 현이 살펴본다.

대부분 시민군 사격하지 못한다. 시민군 타격대장 "총 쏘라!"라고 다그치지만
시민군들 구석진 곳으로 도망간다.

264 지하실 무기고

쿨쿨 자고 있다. 총소리에 깬다.
공수 특공대 1 " 무기고 폭도들! 도용문, 식경이, 동복김! ", 이름을 부르며 "살려줄 테니 손들고 나와 투항하라! "
2층에 있던 시민군 손 " 손들고 나갑니다. 살려주세요! "

수류탄 터지고, 터지고, 터지고 타탕타아탕...
항복해도 죽이는구나! 서로의 눈빛으로 확인한 무기고 담당 시민들 시민 문, 시민 김, 시민 양
식당 뒷문을 열고 도망간다. 도망간 쪽으로 총알이 쏟아져 몸을 숨기고 꼼짝하지 않는다.

265. 강당

시민군 영은 그들에게 붙잡히면 죽음 이상의 고통을 받을 것을 직감하고 차라리 자결해 버리자고 엎드려
목 부분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다.
그때 총소리가 들리면서 동시에 뜨거운 것이 머리 위를 스쳐 간다.
총소리에 놀라 오른쪽 검지에 걸었던 방아쇠가 당겨져 연발로 장전된 총에서 두 발이 나간다.
자살에 실패한다.
시민군 현 " 형님 항복합시다. 항복! 항복! "
계엄군 중사 " 총을 내밀고 나와 "
계엄군 중사 시민군 영을 보더니 "너, 한 발도 안 맞았어? "
몹시 놀란다.
저쪽 창문에서 문 뒤에 엎드려 있는 시민군을 보고 겨우 80센티 정도 앞에서 일곱 발이나 쏜 것이다.
계엄군 중사 시민군 영에 " 너, 두 발 쏘았지? "

계엄군 중사 계속 안쪽으로 총을 쏘아대며 " 나와, 나와 "
시민군 영 " 모두 나오시오 "
숨어있던 타격대장과 기동타격대 시민군들 손들고 나온다.

267 도청 은신처

시민 양 " 우리는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까 남의 총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자살하자."
시민 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벌벌 떤다. 한참 후에야 "조금 있다 죽자."

간신히 말한다.

특공대 2 " 2명은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죽인다. 빨리 나와라! "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와 긴장이 더해간다. 총알이 날아온다.

시민 양 ." 총을 쏘지 말든지, 나오지 말라고 하든지." 악을 쓴다.
특공대 2 " 총을 버리고 나오라!" 는 계엄군 목소리 들린다.

시민 양, 시민 선 손들고 걸어 나오는데 어디에서도 군인들 보이지 않는다.
모두 숨어서 총만 겨누고 있다.

268. 본관 2층 복도

계엄군 " 너희들만 남았다. 밑에는 전부 항복했다. 너희들도 항복하라. 총을 복도에 던지고 손을 머리에 얹고 나와라."

사무실 문이 꽈당 열리고 총알이 쏟아져 들어온다.

하사관 김 " 나와! "
변호사 1 " 나갈 테니 쏘지 마세요 "
하사관 이 " 개새끼들! 기어 나와! 김하사! 영화 찍는 것 같지 않냐!"

총을 갈기는 군인들 긴장감이 없다. 저항하지 못하는 시민군들

다른 사무실에서
상황실장 권총을 풀고 복도로 기어 나온다 " 항복! "
다른 사무실에서
학생 종 기어 나오며 " 항복! "

269 도청내 은신처

날이 밝아온다. 조용하다.
공중에서 헬기에서 방송 소리
"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폭도들은 투항하라!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살려준다! "

시민 문 " 항복하자 "
시민 김 " 좀 있다가 "
시민 문 " 다 끝났는데 항복하면 살려주지 어떻게 죽이겠느냐? 내가 앞장설 테니 나가자! "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시민 문이 앞장서고 시민 김이 뒤따른다.
출입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시민 문 쓰러진다.

270 도청 마당

여기저기서 끌어다 놓은 주검들, 군인들이 지키는 도청

도청 고성능 스피커 "폭도들은 소탕되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제자리로 복귀하십시오."

지프 뒷자리에 앉아 있는 도경 국장 양쪽에서 헌병 둘이 앉아 있다.

271 도시로 들어오는 길/ 오전

수없이 많은 탱크가 줄줄이 끝도 없이 들어오고 있다.

그 후

272 망월동 /낮

쓰레기 차에서 관들이 내려진다.

273. 군 보안대, 경찰서

1, 2 장면을 한 장면으로
고문당하는 사람들, 벽에는 총기를 찾아내는 공무원은 1계급 특진 쓰여 있다.

1 장면
보안대 군인 " 느그들 신났지!"
2 장면
경찰서 경찰 " 총 어디 있냐!"

274. 3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8월 21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겸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새 국가원수로 추대한다